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4·3소설과 타이완 2·28소설의 비교 연구

-1980년대 중반 작품의 여성수난 형상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방연비

2022년 02월

# 제주 4·3소설과 타이완 2·28소설의 비교 연구

-1980년대 중반 작품의 여성수난 형상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윤


방연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방연비의 문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장인수 

위 원 조홍선 

위 원 김동윤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The comparative study of Jeju 4·3 novel and  
Taiwan 2·28 novel

-Under the theme of women's suffering in the novels  
in the mid-1980s-

Fang Yan-Fei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1 . .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Dong-yun,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와 선행연구 검토 .....	1
2. 연구 대상과 방법 .....	7
II. 4·3소설의 진실 회복 방식 .....	10
1. 광기로 폭발한 상흔의 깊이—고시홍의 「도마칼」 .....	10
2. 딜레마적 상황과 혹독한 선택—현길언의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 .....	17
3.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오성찬의 「덧에 치인 세월」 .....	24
III. 2·28소설의 진실 회복 방식 .....	30
1. 우연에 휩쓸린 불행의 종말—林雙不의 「黃素小編年」 .....	30
2. 구원의 울림과 전란 속 운명—李渝의 「夜琴」 .....	37
3. 매몰된 기억과 울분의 출구—楊照의 「煙花」 .....	44
IV. 4·3소설과 2·28소설의 대비적 고찰과 그 의미 .....	55
V. 결론 .....	62
참고문헌 .....	66
中文摘要 .....	69

부록: 2·28소설 한국어 번역 .....	71
1. 린쌍부(林雙不)의 「황수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 .....	71
2. 리위(李渝)의 「밤 풍금(夜琴)」 .....	76
3. 양자오(楊照)의 「연화(煙花)」 .....	102

# I. 서론

## 1. 문제 제기와 선행연구 검토

20세기는 제국주의가 횡행하면서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과 다툼으로 시작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싸움은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제1차 1914-1918년, 제2차 1939-1945년)으로 비화하여 유례없는 가장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남겼다.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 각국은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림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동아시아의 현대사도 그런 세계사의 양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은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은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고, 타이완은 중국이 청일전쟁에 패전하여 타이완을 일제에 할양한 1895년부터 50년간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1945년 10월 25일 ‘일치시대(日治時代)’(일제통치시대, 일명 ‘일거시대(日據時代)’)를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은 1948년 8월 남쪽에 대한민국, 9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분단되었고, 중국은 1946년부터 전개된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함과 동시에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쫓겨 가 중화민국을 유지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에서 1948년 4·3 사건이 일어났고, 타이완에서는 1947년 2·28사건이 발발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에 경찰들이 민간인에게 발포한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sup>1)</sup>을 말한다. 4·3사건은 오랫동안 공산폭동으로 규정되었다. 1960년에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비로소 4·3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1항.

중단되었다. 그 이후로 20여 년간 군사정권 하에서 그 논의는 다시 금기시됨에 따라 공식역사(official history)에서 줄곧 ‘공산폭동’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1978년 현기영 소설 「순이 삼촌」 발표를 계기로 점차 금기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였으나 4·3에 대한 정치적·사회적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였다.

타이완 2·28사건은 1947년 2월 27일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포로 인해 이튿날인 2월 28일에 대규모 관민충돌 사건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 이는 국공내전으로 인해 타이완으로 피신한 국민당이 타이완을 접수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저항하던 타이완 주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다<sup>2)</sup>. 국민당 정부는 이를 타이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의 선동을 받아 발생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1949년 국민당은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하는 시점에서 타이완에 계엄령을 내렸는데, 2·28사건은 1987년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정치 분야에서 금기시되었다.

이처럼 제국일본 해체 이후,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제주와 타이완 양 지역의 4·3과 2·28은 ‘맞거울’<sup>3)</sup>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양 지역은 비슷한 시대적 상황에서 오랫동안 금기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민주주의의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는 공통점을 지닌다.

「순이 삼촌」 이후 금기가 깨져가던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4·3진상규명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1989년 제주항쟁 추모제 개최,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설치, 1998년 국회에서 4·3사건 공청회 등을 거쳐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등에 이어 2021년에는 개정된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타이완 2·28 사건은 계엄시기 내내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 치부되었지만

2) 行政院二二八事件小組, 『二二八事件研究報告』, 時報文化, 1994.

3) 고성만, 「경계 위의 과거청산—제주4·3사건과 대만2·28사건 비교사 연구를 위한 시론」, 『濟州島研究』56, 제주학회, 2021. 4-7쪽.



타이완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2·28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1979년 메이리다오사건(美麗島事件)<sup>4)</sup> 이후 타이완 민주화운동이 점차 본격화되고 사회의 분위기도 점차 개방됨에 따라 타이완 내에서 2·28사건에 대한 논의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국민당 입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2·28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5년까지는 2·28에 대한 논의가 입법원에서 간헐적으로 질의만 제기하거나 지하매체에 국한”<sup>5)</sup>되어 있었다. 1986년 타이완 최초의 야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이 설립됨에 따라 2·28사건 진상규명을 둘러싼 문제들이 점점 타이완 사회의 주목을 받아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7년 계엄해제에 따라 2·28에 대한 공식적 논의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진상규명과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5년 2월 28일 당시 총통인 리덩후이(李登輝)는 2·28평화기념비 제막식에서 타이완 정부를 대표하여 2·28사건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3월 23일 입법원의 제정회의를 통과하여 4월 7일에 ‘2·28사건처리및보상조례(二二八事件處理及補償條例)’<sup>6)</sup>를 공포하였다. 2월 28일은 평화 기념일로 제정하고 ‘재단법인2·28사건기념기금회(財團法人二二八事件紀念基金會)’를 설립했다. 2007년 천수이벤(陳水扁)정부가 ‘2·28사건처리및보상조례(二二八事件處理及補償條例)’를 ‘2·28사건처리및배상조례(二二八事件處理及賠償條例)’<sup>7)</sup>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4·3사건과 2·28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조사는 비록 1987년 이후에야 이루어졌지만 문학작품의 경우는 달랐다. 이미 오래 전부터 4·3사건과 2·28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28소설은 타이완 현대사회의 참모습과 역사의식을 고찰하는 데 좋은 소재이자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2·28사건이 타이완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정치적 사건이면서 일반 대중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2·28 초기에 나온 보쯔(伯子)의 「대만섬의 피와 원한(臺灣島的血和恨)」(1947), 멩저우(夢周)의 「상처(創傷)」(1947) 등은 당시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

4)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은 1979년 12월 10일(세계 인권 선언일) 가오슝시(高雄市)에서 잡지 『메이리다오』에서 주최한 시위로 경찰과 충돌하고, 주최자가 투옥된 사건이다.

5) 쉬즈지아(許志嘉), 「타이완 “2·28사건”의 역사적 진실과 복권[평반(平反)]」, 『기억과 전망』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46쪽.

6) 邱萬興, 「打破禁忌, 走出2·28的陰影」, 『街頭人生』, 民報, 2017-02-04.

7) 李欣芳, 「228條例補償改賠償 三讀通過」, 『自由時報』, 2007-03-09.

과 국민당 정부의 강경한 억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들어 치우용한(邱永漢)의 『혼탁한 계곡(濁水溪)』(1954), 『홍콩(香港)』(1955) 등은 타이완 민중들과 국민당 정부의 대립과 당시 타이완 사회의 현실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취(白駒)의 『매춘낭(梅春娘)』(1964), 우궈류(吳濁流)의 『무화과(無花果)』(1968)와 『대만 개나리(臺灣連翹)』(1973) 등의 경우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당시 타이완 민중들이 국민당 정부에 대한 환호에서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심리상태를 그리고 있다. 1980년대는 린쌍부(林雙不)의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1983), 양자오(楊照)의 「연화(煙花)」(1987)와 리위(李渝)의 「밤 풍금(夜琴)」(1986) 등은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타이완 사회의 화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주 4·3소설의 경우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1950년대 허운석의 「해녀」, 1960년대 곽학송의 「집행인」 등의 작품에서는 공식역사와의 차별성이 없었으나,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면서 그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기영은 「해룡이야기」(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길」(1981), 「아스팔트」(1984)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현길언의 「귀향」(1982), 「우리들의 조부님」(1982), 「지나가는 바람에」(1984), 「애국부인 김옥렬 여사 전—우리들의 어머니」(1985), 오성찬의 「사포에서」(1982), 「공동묘지에서」(1984), 「뒤편에 치인 세월」(1986), 「단추와 허리띠」(1986) 등, 그리고 고시홍의 「도마칼」(1985), 한림화의 「불턱」(1987) 등은 제주 4·3의 비극성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4·3소설은 4·3의 수난상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뉘앙스가 매우 강했다.<sup>8)</sup>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대로 제주와 타이완의 작가들은 비민주적 독재정권의 시기에 4·3과 2·28을 형상화하면서 역사적인 비극적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로 인한 대중들의 왜곡된 삶과 고통을 정치·사회적 한계 속에서나마 드러냈으며, 향후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신념을 실천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밝혀냈는지를 함께 고찰한다면 두 사건에 대해 문학적 형상화의 ‘맞거울’로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주 4·3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미 적지 않게 나와 있기<sup>9)</sup> 때문에 이 글에

8)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57-63쪽.

서 재차 논의하지 않으며, 다만 타이완 2·28소설과 제주 4·3소설 비교연구 및 국내 타이완 2·28소설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홍선<sup>10)</sup>은 타이완 2·28소설인 이양(李昂)의 「채장혈제(彩妝血祭)」와 제주 4·3소설인 김석희의 「땅울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에 보이는 서술 방식의 역동성, 지배적 서술 방식과 모순이 되는 각각의 서술 방식을 문제로 삼아 그렇게 서술한 원인과 의도를 규명했다. 이는 비교문학연구 방법론에 따른 작품 분석으로 특히 서술 방식의 차이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홍선은 계속해서 같은 작품의 비교<sup>11)</sup>를 통해 2·28과 4·3은 기억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공권력에 의해 망각하기를 강요를 받았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기억 투쟁의 양상을 분석했다. 그는 작품의 주서술자와 부서술자의 기억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억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간극을 메우려고 서술자들의 움직임에 자세를 살피고 살펴보았다. 조홍선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논문<sup>12)</sup>에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과거, 역사적 구조, 정체성 등 역사와 기억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8과 4·3이 발생한 양 지역은 최근에 과거에 대한 ‘기억의 자살’이나, ‘기억의 타살’의 단계를 넘어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기탁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늘날 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조홍선의 일련의 논문들은 타이완 2·28소설과 제주 4·3소설에 대하여 비교문학적 방식을 통해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윤<sup>13)</sup>의 경우 4·3소설과 2·28소설만이 아니라 오키나와전투 소설을 함께 비교 연구를 했다. 4·3소설 고시홍의 「도마칼」과 2·28소설 린쌍부(林雙不)의 「황쭈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를 대상으로 소설 속에 활용된 방언과 속담을 통해

9) 김동윤,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140-146쪽 참조 바람.

10) 趙洪善, 「2·28소설(二·二八小說)과 4·3소설(四·三小說)의 서술 비교—「채장혈제(彩妝血祭)」와 「땅울림」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31, 한국중문학회, 2005, 203-230쪽.

11) 趙洪善, 「二·二八小說과 四·三小說의 기억투쟁—「채장혈제」와 「땅울림」을 중심으로」,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11-123쪽.

12) 趙洪善, 「濟州의 거울로서의 타이완—李昂의 「눈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小考」, 『中國文學研究』63, 한국중문학회, 2015, 66-81쪽.

13)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오키나와·타이완·제주 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반(反)폭력의 양상」, 『한민족문화연구』70, 한민족문화학회, 2020, 7-40쪽.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의식을 밝히면서 끔찍한 살상이나 위협의 도구로 돌변하는 칼과 낫을 통해 제국과 권력의 폭력 문제를 드러냈다. 두 작품 모두 생필품인 ‘식칼’을 통해 극단적인 폭력 양상을 드러냈지만, 「도마칼」이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보다 저항의식이 두드러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의 비교 연구 논문들은 한정된 지면에서 한두 작품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한편, 2·28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학적 특성과 위치를 살펴보고 2·28문학의 전개과정에 관심을 보여 준 국내 연구자들도 있다. 신정호, 최말순, 김은영 대표적이다.

신정호<sup>14)</sup>는 2·28에 대해 호소하는 목소리로 당시 창작된 작품 안의 ‘실제’를 통해 2·28 전후 타이완을 둘러싸고 전개된 역사의 진실과 타이완의 앞날에 대한 당시 타이완 사람들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그는 뤼허뤄(呂赫若)의 「겨울밤(冬夜)」과 어우탄성(歐坦生)의 「거위 새끼(鵝仔)」, 그리고 치우핑텐(丘平田)의 「농촌자위대(農村自衛隊)」 등을 대상으로 2·28소설에 나타난 광복의 실상, 헌법에 대한 기대, 2·28의 진상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대륙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계급모순이 확대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 2·28문학의 창작과 재생산에 역기능을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고 하겠다.

최말순<sup>15)</sup>은 2·28 소설들을 정리하여 타이완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2·28사건의 비극이 타이완 문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2·28사건이 타이완 문학에 나타난 역사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 작품, 여성 주인공을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드러낸 작품, 사건의 발생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 준 작품 등을 통해 2·28사건 전후, 계엄 해제 전후, 해당 시기에 발표된 소설들을 각 시기에 소설들이 어떠한 역사화 양상을 형상화했는가를 고찰했다.

14) 신정호, 「타이완의 현대사 전개와 2·28문학」, 『人文科學研究』30,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295-319쪽.

15) 최말순, 「대만의 2·28항쟁과 관련소설의 역사화 양상」,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글누림, 2020, 315-347쪽.

김은영<sup>16)</sup>의 논문은 소설 「겨울밤(冬夜)」, 「농촌자위대(農村自衛隊)」, 「대만섬의 피와 원한(台灣島上的血和恨)」을 통해서 2·28사건이 발발하기 전 일본 식민통치 아래서 억눌려 지냈던 타이완 민중들의 광복 전후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타이완 사람들은 광복이 되자 조국의 품에 다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렸는데 광복 이후 타이완 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적 난관, 불안한 치안, 전염병, 여성착취,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조국의 품에 귀속된 현재와 과거 식민의 차이에서 혼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몇 편의 2·28소설 연구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작중 인물의 형상화 양상 등 개별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sup>17)</sup>

아직까지 4·3소설과 2·28소설의 비교 연구가 일천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2·28 소설 자체에 대한 연구도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두 지역의 작품의 유형과 발표 시기가 비슷한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복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의 대상으로는 제주와 타이완의 1980년대 중반 현지인 작가들이 발표한 중·단편 소설 중에서 각 3편씩 총 6편을 선정하였다. 특히 여성 주인공의 수난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양 지역의 민주화 이전 시기에 는 사태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소설들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그러한 비극성을 공감시키는 데에 여성의 삶이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6) 김은영, 「타이완 2·28의 前兆와 그 실상—(소설 <冬夜>, <農村自衛隊>, <台灣島上的血和恨>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76, 중국인문과학, 2020, 323-340쪽.

17) 타이완 2·28소설의 한국어 번역 출간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4·3평화재단 등에서는 2·28소설 번역 지원 사업을 시급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김동윤, 「2·28소설의 번역을 기대하며」, 『한라일보』, 2020.11.23.

제주 4·3소설의 경우는 고시홍의 「도마칼」(1985), 현길언의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우리들의 어머니」(1985), 오성찬의 「덧에 치인 세월」(1986), 타이완 2·28소설의 경우는 린쌍부(林雙不)의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1983)<sup>18)</sup>, 리위(李滄)의 「밤 풍금(夜琴)」(1986), 양자오(楊照)의 「연화(煙花)」(1987)를 각각 텍스트로 삼았다. 이들 작품은 각기 문학적 특색이 매우 두드러지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여섯 작품의 작가들은 현지에서 성장한 작가이다. 4·3소설 작가의 경우 오성찬은 서귀면 호근리, 현길언은 남원면 수망리, 고시홍은 구좌면 한동리(이상 당시 지명임)에서 태어났다. 1940년생인 오성찬과 현길언은 소년기에 4·3을 겪었으며 1949년생인<sup>19)</sup> 고시홍은 4·3 기간에 태어났다. 2·28소설 작가의 경우 린쌍부(林雙不)는 1950년 타이완 동스취(東勢厝)에서, 양자오(楊照)는 1963년 타이베이(臺北)에서 태어났다. 리위(李滄)는 1944년 대륙의 충칭(重慶)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다섯 살)부터 타이완에서 자랐다. 양자오(楊照)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족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있고, 리위(李滄)는 유년기에 2·28을 겪었으며, 린쌍부(林雙不)는 사건 발발 3년 후에 태어났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6편의 소설들은 모두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또한 이 작품들은 사건 발생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참혹한 시대환경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삶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그 고통과 아픔, 피해의 정도를 심화시켜 잘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생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심리상태를 그려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기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주와 타이완 두 지역 간의 문학적 진실 복원 작업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제주와 타이완 두 지역에서 사회적 격변기에 일어난 참혹한 죽임과 죽음의 사건 속에서 공식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문학적 진실 추

18) 린쌍부(林雙不)의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는 1983년 7월 16일에 『自立晚報 副刊』에 발표되었다. 1983년도 하반기 발표한 작품이어서 1980년대 중반 작품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19) 고시홍은 1948년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양력 1949년 1월생이다. 고시홍, 「작가의 말」, 『물음표의 사슬』, 삶창, 2015. 302쪽 참조.

구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다. 아울러 여성들의 수난상을 중심으로 아픔과 고통의 비극적 결말을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작가에 의해 어떻게 극복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 4·3소설과 타이완 2·28소설이 상보적 ‘맞거울’로서 동아시아지역의 국가폭력과 제국주의 횡포에 맞서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II. 제주 4·3의 진실 회복과 여성의 삶

### 1. 광기로 폭발한 상흔의 깊이—고시홍의 「도마칼」

「도마칼」<sup>20)</sup>은 고시홍이 1985년 동인지 『경작지대』 1집에 발표한 후 소설집 『대통령의 손수건』(전예원, 1987)에 수록한 작품이다. 고시홍은 「해야 솟아라」(1989), 「계명의 도시」(1989), 「유령들의 친목죄」(1989), 「자서전 고쳐쓰기」(1991), 「낮과 망치」(1994), 「비망록」(2013) 등 여러 4·3 소설을 발표했는데, 「도마칼」은 그의 첫 4·3 소설이다. 1975년의 제주도를 무대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여성에 입각하여 4·3 사건의 비극성을 호소하고 있는 소설이다. 7장으로 구성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1) 행방이 묘연했던 양어머니는 고향 집에서 솟돌질을 하고 있었다.
- 1-2) 도마칼 휘두르다가 택시에 탄 양어머니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다.
- 2-1) ‘나’는 양어머니의 정신분열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 손상도의 병원을 찾아갔다.
- 2-2) 작은삼촌의 갑작스런 출현이 양어머니의 병세를 악화시켰음을 알게 되었다.
- 3-1) 김광진으로 개명한 작은삼촌이 조총련의 일원으로 제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과거)
- 3-2) 4·3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작은삼촌의 혼담이 오갔다. (4·3 회고)

---

20) 고시홍, 「도마칼」, 『대통령 손수건』, 전예원, 1987, 154-155쪽. 이하 작품을 인용할 때 괄호()안에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도마칼’은 식칼의 제주방언인 ‘돛베칼’을 변형한 표현이다. 작가가 표준어를 의식해서 만든 단어로,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돛베’는 도마의 제주방언이기에 ‘돛베칼’은 도마용 칼이란 뜻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2009, 참조.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 앞의 논문, 29쪽.



- 4-1) 죽었다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는 남편(작은삼촌)을 대면한 이 양어머니의 후 발작이 더 심해졌다.
- 4-2) ‘나’는 양어머니를 기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 5-1) 양어머니는 철물점에서 도마칼을 훔쳐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 5-2) 4·3사건 때 도마칼은 접대를 위해 가축 잡는 용도로 쓰였다. (4·3 회고)
- 5-3) 방안에 온갖 쇠붙이를 숨겨놓곤 하던 양어머니는 호텔 종업원을 보자 4·3 당시의 순경들이 생각나 도망쳤다.
- 6-1) 양어머니는 기도원에 들어가면서도 도마칼을 손에 놓지 않았다.
- 6-2) 아버지가 죽자 작은삼촌은 일본으로 밀항한 후 결혼해 5남매를 두었다고 한다. (과거)
- 7-1) 양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감당할 수 없다는 연락에 따라 ‘나’는 급히 기도원으로 향했다.
- 7-2) 남편 없이 출산한 양어머니는 고향에 숨었다가 아기가 죽자 ‘나’를 양자로 삼았다. (4·3 회고)
- 7-3) 도사건을 묶었던 쇠사슬이 양어머니의 발목에 채워진 것을 본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것을 풀어내고 곁에 놓인 도마칼을 내던져 버렸다.

이 작품에는 4·3 당시, 과거, 현재 세 가지의 시점을 오가면서 광기(狂氣)로 표출되는 여인의 삶이 그려지고 있다. 4·3 당시인 경우 ‘나’(김우찬)의 아버지가 죽고 작은삼촌이 행방불명되는가 하면 양어머니<sup>21)</sup>의 아기가 죽은 사연들이 회고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반세기 후에 작은삼촌이 조총련 성묘방문단 일원으로 나타난 것이 가까운 과거의 사건이며, 그 이후 양어머니의 발작 증세가 심해진 상황이 소설적 현재이다. ‘나’와 양어머니는 다정하지 않은 ‘모자’ 관계, 행방불명되었던 작은삼촌의 갑작스러운 출현, 도마칼을 휘두르는 양어머니의 광기 등에 독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연원에는 바로 4·3이 있다.

이 작품에는 주로 1949년 봄 이후의 4·3이 그려졌다. 당시에 양어머니는 작은삼촌과 신접살림을 차렸다. 어느 날 밭을 갈러 소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간 아버지는 통금 시간을 놓쳐서 하룻밤 성 바깥에서 보냈다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심

21)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 혹은 숙모는 ‘나’의 양어머니이다.

받던 아버지는 나중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것이 무장대(공비(共匪))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면서기인 작은삼촌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순경과 군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성담 밖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나서 가족들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작은삼촌은 아버지 때문에 ‘폭도’ 내통자로 물릴까 봐 종적을 감추어 일본으로 밀항했다. 6·25전쟁이 터진 직후였다. 그리고 갓난아이와 함께 고광[庫房]에 숨어 있었던 숙모는 그만 아기와 사별하였고, 조카인 ‘나’를 양자로 삼았다.

이 소설에는 4·3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4·3사건 당시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빨갱이를 숙청하는 군경토벌 작전으로 인해 제주 민중들은 “너 죽고, 나 죽자 판”(175쪽)이 되어 살기 위해 이웃 사람들과 대결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섬 구성원간의 협력관계가 사라져 제주 지역공동체 의식이 파괴된 것이었다.

“두벙이 각시가 영순이 외삼촌네 집에 좁쌀인가 보리쌀 한 뒷박만 껴 달랜 갓있던헛테다, 두벙이가 갑자기 전에 말씀…….남 껴 줄 때쌀이라말랑 이녁네 먹을 것도 없댕 거짓말이라도 해서 보낼 일이주마는 쫓쫓.”

할머니는 가랑니 서너 마리를 한꺼번에 손톱으로 까뭉개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허자, 영순이 외삼촌 각신가 허는 예펜은, 쌀은 있주마는 못 껴 주쿠다, 폭도질허는 집에 때쌀 껴 줬다가 무슨 꼴을 당허랜 말이우짜! 이렇게 해서 보낸 일이 있었덴 헛니다. 헛네, 두벙인 그마직을 당허고 나서, 산에 숨어 있는 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고 뉘달허는 군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방목해 놓은 쇠랑 말도 잡아먹고, 영순이 외삼촌네 이름을 대면서, 아무아무네 집에서 당해주는 식량으루 연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죄 없는 사람까지 벗해서 죽은 모양입테다.”

“너 죽고, 나 죽자 판이었던 말이라 났구나. 허지마, 임자야말루 저승길 갈 때 꽃상여라도 한번 타 보고 싶으면 그런 소리 함부로 허지 말아!”  
(174-175쪽)

주민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군경과, 무장대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양상은 가족 공동체에서도 나타났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를 화나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송장으로 나타나 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가족들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로 여기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튿날 낮에 쟁기만 지고 돌아왔다. 잠을 못 잔 탓인지 얼굴이 해쓷었다.

“발갈러 갔던 소는 어떡하고 혼자냐?”

할아버지는 소 걱정부터 했다.

“밭을 갈고 나서, 풀어놓았던 소를 찾다 보니 성문 닫히는 시간을 놓쳐수다.”

가족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수심에 찬 표정들이었다. (187쪽)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가족들은 하룻밤 행방이 묘연했던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것에 ‘수심’이 느껴졌다는 것은 아버지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혐의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다. 이는 섬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가 파괴되자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도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다. 시대 격동의 조류에 누구나 무관할 수 없다.

아버지를 잃은 ‘나’와 남편과 갓난아이를 연이어 잃은 양어머니에게는 가족이 해체된 상황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귀신이 된 다음에나 단 하루, 송늬 한 그릇 떠 놓고, 잠귀나 되지 말아 달라고 축원하는 것으로써 내 숙모이자 어머니에 대한 인연의 끈을 매듭짓지 못한 것이 후회”(165쪽)되는 정도였고, 양어머니에게도 ‘나’는 “뱀을 빌어 얻은 아들도 자식이우짜?”(200쪽)라고 하는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다. 양어머니는 4·3에 따른 가족의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어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였는데 ‘나’는 줄곧 양어머니의 증세(아픔)를 외면해 왔다. 혹은 ‘나’는 자신의 내면적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작은삼촌의 사례에서 보듯, 4·3으로 인한 일본 밀항 문제도 제기되었다. 작은삼촌은 “사나흘 동안 출장을 다녀와야 하겠다며 집을 나가고 선 썩 귀 먹은 소식”(206쪽)이 되고 말았다.

“밀항선을 탔었지. 그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십여 년 간은 숨어 살 수 밖에 없었는데, 막상 내 신분을 떳떳이 밝혀도 될 기회를 맞이했을 때 이미 저쪽 패거리들의 함정에 빠져 이중삼중으로 결박된 신세가 돼 있더구나. 그런저런 게 귀찮아서 고향을 도망쳤었던 것인데 말야.” (202쪽)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 중에는 4·3 사건에 연루되어 살기 위해 도피한 경우가 많다. “제주인들의 일본행은 반공체제 하에서의 연좌제나 극심한 생활고에 의해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sup>22)</sup>졌다. 작은삼촌이 밀항한 것은 당시 반공체제에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런 지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고 말았다. 작은삼촌은 일본으로 밀항하여 거기서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 이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4·3사건에 덧칠해진 반공이데올로기는 매우 견고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어머니의 상흔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삼촌의 갑작스런 출현은 양어머니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억눌려 품고 살아온 고통이 갑자기 터져 나와 발작이 심해져 증세를 심하게 폭발시킨 도화선이었다. 조총련 모국성 묘방문단 일원으로 나타난 작은삼촌과 대면하는 순간부터 양어머니는 또다시 그 참혹한 세월의 나락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양어머니는 작은삼촌에게 딱 두 마디 말만 던졌다. “저 사람 누게고?”(182쪽), “어떻 허난 이영(이렇게) 오라집데가”(182쪽) 이 말이 전부였다. 물론 양어머니는 작은삼촌을 모를 리가 없건만 그와 얽힌 과거가 너무 참혹하였기에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오랜 세월 혹독한 사건의 아픔에 시달리며 과거를 잊으려고 애를 썼던 양어머니에게 난데없이 나타난 남편은 과거의 재현이자 죽

22) 문경수, 「4·3과 제일 제주인 재론(再論): 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4·3과 역사』19, 제주4·3 연구소, 2019, 96쪽.

음을 의미하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다.

4·3 때 양어머니는 만삭이 된 몸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경찰이나 순경들을 대접하기 위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 털을 뜯고, 칼질을 했”(204쪽)다. 물건을 자른 도구인 도마칼은 양어머니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구였다. 양어머니가 수시로 도마칼을 휘둘러대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작용한 ‘방어적 폭력’<sup>23)</sup>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4·3 사건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고, 그것이 남긴 트라우마에 시달린 한 여성의 폭력에 순응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제주 민중들의 폭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냈다.

“너 이놈, 너도 그 백정 놈하고 한통속이지. 네가 날 방 안에 가둬 놓아 죽이려했지, 너!”

꽂지 빠진 씨암탉처럼 건물 외벽을 기대고 앉아 있던 어머니는 다짜고 짜 내 목덜미를 옥죄었다.

“그 김덕표인가 하는 놈이 시켜놓고 간 거지, 이놈!” (183쪽)

양어머니의 해괴한 행동은 미친 짓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내가 양어머니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양어머니는 “내 가슴에 불이나 꺼도라.”(192쪽)라고 대답했다. 양어머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은 “폭력의 피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했다는 분노에 찬 죄책감이며 신뢰할 만하며 선협적으로 확실한 사람에 의해 한 장소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분노에 찬 죄책감”<sup>24)</sup>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삼촌과 만나 송별 오찬 하기로 했는데 양어머니는 제복을 입은 호텔 종업원을 군인으로 오인하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감방으로 착각하고는 “저 속에 가두젠 허는 걸 몰랐구나!”(194쪽)라며 호텔 현관을 벗어나 건물 구석에 자신을 감추려고 했다. 양어머니의 이러한 언행들을 통해 4·3사건이 남긴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삼촌이 나타나기 전에만도 양어머니는 겨우 대낮에 불을 켜 놓게 하거나 집에 혼자 있을 때 문만 잠그는 편이었는데, ‘낮도깨비’처럼 나타난 작은삼촌과

23) 엘자 도를랑 지음 윤지영 옮김, 『자신을 방어하기』, 그린비, 2020, 257쪽.

24) 엘자 도를랑, 앞의 책, 301쪽.

상봉 후부터 양어머니의 발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해졌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뛰쳐나가 철물점에서 훔친 도마칼을 들고 사람에게 휘두르고 맨발로 40km나 떨어진 고향 집에 혼자서 걸어가기도 했다.

결국 양어머니는 점점 심해진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후 한라산 기슭에 있는 기도원으로 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당신에게 있어서는 도마칼만이 유일한 믿음”(200쪽)이라고 생각하며 양어머니가 과연 이곳에서 불덩이 같은 답답한 가슴을 풀 수 있을까 걱정됐다. ‘유일한 믿음’인 도마칼은 어머니에게 있어 어머니 삶의 전부와 다름없었다. 양어머니는 기도원에서 늘 “밥을 먹을 적이나 잠잘 적이나 도마칼을 노리개처럼 차았아”(210쪽) 지내었다. 그리고 몰래 기도원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급기야 기도원에서 ‘나’에게 양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연락을 받고 바로 기도원으로 향했다. 양어머니는 도사견처럼 변해 숙소건물 기둥에 쇠사슬로 묶인 채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한 마리의 도사견으로 변신돼 있었다. 숙소건물 기둥에 매달려 있었던 쇠사슬이었다. 옆에는 도마칼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다가선 후에도, 당신 발목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을 돌부리 위에 걸쳐놓고 앉아서 돌맹이로 내려찍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열병처럼 전신에 퍼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머니 발목에 채워져 있는 마디 굵은 쇠사슬을 풀어냈다.

어머니가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도마칼이 낙하된 숲 근처에서 야생조 한 마리가 비상했다. (210쪽)

위의 인용문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도사견을 묶었던 쇠사슬이 발목에 채워져 있는 양어머니의 옆에 다가간 ‘나’는 ‘열병처럼’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쇠사슬을 풀어내고 곁에 놓여 있던 도마칼도 내던져 버렸다. 도사견처럼 묶여 있는 양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의 고통, 역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고함이 터져 나”<sup>25)</sup>온 것

25) 김인환, 『역사의 상흔(작품집 해설)』, 고시홍, 『대통령의 손수건』, 앞의 책, 217쪽.

이다. 던져 버린 도마칼이 야생조가 되어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나’는 도마칼을 대신해 양어머니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치료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나’가 양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열병처럼 전신에 퍼지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4·3에 관해 의사 표시를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4·3의 공식 역사를 벗어난 논의가 철저히 금지되었기 때문이란 뜻이다.<sup>26)</sup>

양어머니가 수시로 도마칼을 휘두르는 것은 폭력에 대한 재현이자, 그 재현을 통한 치유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숫돌에 칼을 간다는 것은 언젠가 칼을 사용하게 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어머니에게 칼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폭력의 수단인 칼을 완전히 갈아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는 일종의 폭력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겠다. 또한 화자인 ‘나’가 양어머니와 함께 과거의 상처와 현실을 직면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작가가 제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4·3의 진상을 꼭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딜레마적 상황과 흑독한 선택—현길언의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

현길언의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우리들의 어머니」<sup>27)</sup>(이하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은 『한국문학』 1985년 12월호에 처음 발표된 후 1988년 소설집 『우리 시대의 열전』에 수록된 작품이다. 현길언은 작가 자신이 소년기에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취재한 후 4·3소설을 창작했다. 창작된 것이다. 현길언의 4·3 소설로는 「귀향」(1982), 「우리들의 조부님」(1982),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1985), 「지나가는 바람에」(1984), 「먼 훗날」

26)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 앞의 글, 28쪽.

27) 현길언,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우리들의 어머니」. 『우리 시대의 열전』, 문학과 비평사, 1988. 해당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안에 이 텍스트의 쪽수만 표기함.



(1984), 「무흔굿」(1987), 「깊은 적막의 끝」(1989), 「섬을 떠나며」(1999), 장편 『여자의 강』(1992), 『한라산』(1995) 등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은 초기작에 속한다.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에서는 한 젊은이가 죽은 어머니를 위해 세워진 추모 비석을 보러 밤중에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에서 시작한다. 프롤로그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0) 애국부인의 칭호를 받은 여인의 60평생을 글 속에 엮는다. (프롤로그)

1-1) 두식은 주저하던 끝에 택시를 타고 밤길에 고향 대원리로 향했다.

1-2) 운전기사는 간첩 남편을 고발한 여인을 기리는 반공시민추모비 제막식이 어제 있었음을 전했다.

1-3) 두식은 고향 마을에서 우연히 이웃이었던 대정방을 만나 어머니(성안방)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2-1) 성안방은 30여 년 만에 간첩 신분으로 몰래 찾아온 남편을 만나 난감해졌다. (과거)

2-2) 성안방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자수하라고 간절히 권했으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다. (과거)

2-3) 성안방이 어쩔 수 없이 신고하자 남편은 쫓기다가 총 맞아 죽었다. (과거)

3-1) 남편 시신을 공동묘지에 매장한 후에 성안방은 며칠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과거)

3-2) 보상금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성안방은 바닷가에 앉아 있기만 하는 등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갔다. (과거)

4-1) 성안방은 남편은 총살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녀의 사인(死因)은 공식적으로 실족사로 처리되었지만 사실 자살이었다. (과거)

4-2) 두식은 폭도새끼로 불리다가 마을을 떠나 살게 되었던 일을 회고했다.

4-3)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두식은 학교에 세워진 비석 앞에 서서 피범벅이 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현길언의 4:3 관련 작품의 초기작들은 주로 가족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도 마찬가지이다. 김옥렬 여사와 그의 아들과 남편이 겪은 4·3의 상처를 다루고 있다.

4·3 당시 북한으로 넘어간 아버지(성안방 김옥렬의 남편)는 두식과 어머니(성안방 김옥렬)에게 불행의 근원이었다. 아버지는 사건 당시 제주남로당의 일원이었고 입산 활동을 하다가 북쪽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국이 어렵게 되어서니 나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

-아니 이 날씨에 어린 걸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우짜.

겨우 돌이 지난 아이가 걱정이었다.

-남아 있으면 위험할 거라.

-무슨 일을 험다고 그러니까. 난 죄지은 것 없우다. 죽어도 여기서 견디 쿠다.

표독스런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는 바람에 사내는 혼자만 집을 나셨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면사무소가 불타고 면장이 공비들에게 죽음을 당했으며, 지서도 습격당했다, 집에서 잠자던 지서주임네 가족이 몰살되는 등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터졌다. (……) 그들과 내통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마을이 발각 뒤집혔다. (177쪽)

좌·우의 대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아버지는 입산했다. 아버지의 입산은 봉기 직전인 1948년 3월 정도로 짐작된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군정은 신탁통치를 맡는 과정에서 일제시기 공관서의 요원들을 그대로 등용했다. 환언하면 일제시기의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미군정이 친일파를 등용하는 가운데 유엔 소총회가 남한 단독선거실시를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이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격렬한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것은 4월 3일 단선반대 등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5·10 총선거를 강행되었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가시화되었다.

1948년 7월 중순쯤부터 북한의 정권 수립을 지지하기 위해 남한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남한의 각 지역 대표 1,080명이 참가하게 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8월 초 남한 전역에서는 월북행렬이 줄을 이었다. 도중에 체포되거나 교통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78명이 불참했지만, 모두 1,002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1일 대회가 열렸다. 1,002명 중에는 제주도 대표도 6명 포함돼 있었다.”<sup>28)</sup>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는 ‘지하선거’와 관련하여 월북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

소설에서 아버지가 왜 북한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작품에서 아버지는 북한에서 넘어와 고향 집에 숨어 있다가 부인에 의해 고발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분명 아버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나, 소설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소설을 발표한 1985년은 1987년의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4·3사건의 역사적 조명에 제한이 있었을 시기였다. 4·3사건이 발생하고 종결된 이후에도 당시 이승만 정권은 4·3사건을 망각시키기 위해 금기시켰다. 1960년 4·19혁명이 발발하면서 4·3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으나 이듬해 일어난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인해 다시 봉쇄되고 말았다. 그 이후 오랜 기간 계속된 군사정권으로 인해 4·3사건은 그저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해 공비들의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런 까닭에 1980년대 중반에는 4·3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과 사건의 본질인 이데올로기가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지”<sup>29)</sup>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설에서 아버지가 난데없이 간첩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을 뿐 그 안에 가려진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말미암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작가의 창작 초점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 이데올로기적 싸움을 주도한 사람들이 물러난 다음에 피해를 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현길언은 소년 시절 겪은 사건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이 그의 소설의 중심이 되어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얼마나 억압했는가, 또는 이데올로기 대결한 사람이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설의 등장인물을 통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239쪽.

29) 최영자, 「현길언 소설에 나타난 집단로맨스와 반영적 글쓰기」,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화연구학회, 2013, 645쪽.

부인은 몸을 떨면서 고개를 좌우로 몇 번 흔들었다. 끔찍한 사태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났다. 검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앞에서 붉은 선혈들이 번져갔다. 그 선혈은 차례차례 그 시댁 가족들의 얼굴을 덮쳐 버리었다. 부엌에 윤곽이 잡혀지는 광 속 여러 물건들이 모두 주검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건 치욕이었고 기구한 운명이었다. (177쪽)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김옥렬<sup>30)</sup>에게 삶이란, 생존이란 치욕이었고 기구한 운명이었다. 때로 삶이 기구할 수는 기반, 살아 있다는 것이 치욕이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죽을 것을 기대하는 듯한 여인의 발언 속에서 우리는 4·3사건이 사람의 삶 자체를 얼마나 왜곡시켰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여인에게 ‘치욕’은 단순히 4·3사건 당시의 기억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4·3사건을 ‘공비(共匪)’에 의한 ‘폭동’이라고 낙인찍고, 이에 가담하거나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공비’로 몰아붙이는 세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설사 자신은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사회적으로 공인된 ‘낙인(烙印)’이 지워지지 않는 한 개인의 인식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어떤 사건이든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의 사적인 기억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기억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하간 김옥렬 개인의 의지나 사유와 관계없이 4·3사건에 대해 날조된 ‘낙인’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김옥렬은 4·3사건으로 인해 남편이 실종되자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며 강인하게 삶을 영위하며 외아들을 길러낸 그야말로 억척어멈이다. 그러나 그 기나긴 세월에 줄곧 그녀를 억압해 온 이데올로기적 문제 중 하나는 ‘수절’이다. 여성에게 “수절을 해야 여자 도리를 다 했다 허니”(174쪽) 이러한 가부장적 의식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녀의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심신이 더욱 쇠약해지게 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30) 소설 프롤로그에서 여인은 “제주 양택(梁宅) 둘째 딸”(166쪽)로 태어났다고 기록했는데, 정작 제목이나 소설 내용에서는 김씨(김옥렬)로 나온다. 이는 작가의 실수로 보인다.

날이 갈수록 성안방은 실성한 사람같이 되어 갔다. (……) 어느 날 대정방이 아들 이야기를 꺼냈더니 눈을 뒤집고 노발대발 하였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는 대원봉 기슭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초겨울이 돌아와도 성안방은 매일매일 바다에는 나갔다. 그러나 일하러 물에 들지 못하였다. 물질웃으로 갈아입고 너른 바다 위에 오돌오돌 떨어진 서 앉아 있기만 했다. 이따금씩 물 속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 손으로 물장난을 치기도 하였는데, 그건 꼭 어린애 같은 모습이였다. (183쪽)

김옥렬은 “실성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어린애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 물론 어른이 어린애 같은 것이나 실성한 것은 모두 다 그녀의 정신상태가 쇠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녀의 ‘실성’은 본래의 삶의 형태에서 이탈을 의미하고, ‘어린애’는 삶의 원초적 모습을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 그녀는 실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여성, 즉 모성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뜻이다. 4·3 때 청상과부가 된 김옥렬은 아들을 위해, 혹은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왔는데 북한에서 다시 결혼한 남편이 ‘원수’처럼 간첩이 되어 수십 년만에 돌아왔다. 고민 끝에 그녀는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은 끝내 총살당하고 만다. 이어서 그녀 역시 자살한다.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김옥렬 또는 당시 제주 민중들의 삶을 억압한 다른 하나의 문제이다. 김옥렬은 결국 남편 대신 아들을 택했고, 과거 대신 미래를 택했던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을 고발하여 받은 상금을 모두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이 역시 실성한 이의 선택일 수 없다. 여인은 이렇듯 실성한 것처럼 보였을 뿐, 오히려 순진무구한 삶, 어린애와 같은 삶을 유지했다.

이 작품은 한 가족의 불행한 역사에 주목하고, 한 가족, 가정의 기구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 마을 주민들의 폭력적인 언사가 불행한 가족사를 더욱더 헤집어놓고 말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 불안에 휩싸였고, 남편을 고발한 후에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실성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 두식도 역시 사건이 남긴 상처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 폭도새끼가 진짜 폭도답게 노는구나!”(185쪽)라며 어린 시절 학교에서 폭도새끼로 불렸던 기억은 아들 두식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수가 없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죽음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절한 감정만을 느꼈던 두식은 대정방의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희생적 사랑을 주었음을 알아차렸다. 김옥렬과 그 가족들의 불행을 통해 4·3 사건이 사람들에게 준 상처와 비극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 여사는 모진 여사였습니다. 제 남편을 고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상금을 타서 공익사업을 위해 바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족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을 자살을 하신 겁니다. 남편을 고발한 반공시민 정신과 아내로서의 인간적인 정리가 서로 엉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결단한 거지요. 더구나 그 부인께서는 서울에 잘사는 아들이 있는데도, 이 마을을 끝내 지켰어요. 아들도 아마 이런 제 어머니 뜻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한 여인의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비석을 세웠다 해도 안 되지요. 그건 여사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188쪽)

두식은 비석에서 “그 빗돌에서 피범벅이 된 한 여인의 모습을 대하”고는 “그 피투성이가 불길이 되어 빗돌을 통째로 녹여 버릴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188쪽)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김옥렬이 감내한 고통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이 왜곡된 것처럼 그녀의 사랑도 왜곡되었다고 본다. 사실 4·3사건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 둘러싼 갈등과 고통 때문에 가족 구성원 사이의 화합을 깨지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가족도 죽일 수 있는 끔찍한 살상의 판국을 만들었다. 4·3사건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엄청나게 얼마나 왜곡시켰던 것이다.

김옥렬 남편에게 “새로 세상에 태어난 생각을 험서. 나도 죽어 저승 가서 새살림 차리는 걸로 생각허쿠다.”(176쪽)라고 말했다. 이후 그녀가 남편을 신고하고, 상금을 기부한 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은 한편으로 자신이 죽인 것처럼 생각

하는 남편에 대한 속죄의식이며,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당해야만 했던 치욕의 삶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여인은 죽임을 당한 남편이 다녔던 학교, 어린 아들을 괴롭혔던 학교에 상금을 기부하여 남편과 아들의 마음을 쓰다듬었고, 이를 통해 여인의 원초적인 모성을 한껏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김옥렬은 죽음을 통해서만 참혹한 4·3 사건에서 비롯된 과거의 아픔과 작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오성찬의 「덧에 치인 세월」

오성찬은 고향마을인 제주도 서귀면 호근리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니던 때 4·3을 겪었다. 그는 2학년 때 목도한 제주 4·3을 바탕으로 증언과 취재를 통해 「하얀 달빛」(1971), 「잃어버린 고향」(1976), 「사포에서」(1982), 「크는 산」(1984), 「공동묘지에서」(1984), 「덧에 치인 세월」(1986), 「단추와 허리띠」(1986), 「나비로의 환생」(1988),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1989), 「표류하는 세월」(1991), 「바람 불어, 인연」(1999)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오성찬의 「덧에 치인 세월」<sup>31)</sup>은 『PEN문학』 1986년 겨울호에 발표된 소설이다. 제주 어느 작은 마을이 무대이다. 작품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세 명의 어린 자식과 시부모를 위해 밥을 준비한다.
- 2) 대동아전쟁 중, 열아홉 살에 신부가 된 그녀는 결혼 3년 만에 남편과 도일해서 딸과 아들을 낳았다.
- 3) 시조부가 손자를 보고 싶대서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귀향하고 남편은 빛 때문에 일본에 남았다.
- 4) 10개월 후에 남편이 빛을 더 지고 귀향하자 그녀는 친정의 도움으로 빛을 갠다.

31) 오성찬, 「덧에 치인 세월」, 『단추와 허리띠』, 지성문화사, 1988. 작품 인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이 텍스트의 쪽수만 표기함.

- 5) 다섯 아이 중 위로 오누이가 죽어 3남매를 키우는 가운데 해방이 되면서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다녔다.
- 6) 낯선 사람들이 남편을 찾아오는 일이 생기더니 4·3이 터졌다.
- 7) 1년 반이 넘도록 밖을 전전하던 남편은 어느 저녁 귀가했다가 대여섯의 사내들을 따라 다시 집을 나갔다.
- 8) 풀이 죽어 돌아온 남편은 남로당 마을 위원장이 되었다고 했다.
- 9) 10월 초쯤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붙이더니 둘째 시아주버니가 총 맞아 죽은 후 마을 사람 17명이 총살당했다.
- 10) 일주일 뒤에 향사로 모이라는 토벌대의 명에 따라 남편과 작은시아주버니는 함께 나갔다.
- 11) 3일을 조사받고 작은시아주버니만 풀려나온 그날 저녁에 총소리를 들은 그녀는 이튿날 아침 경찰서로 찾아갔다가 집단처형 소식을 들었다.
- 12) 그녀는 남편의 시체를 찾아 매장하고서 먹고살기 위해 여러 장사를 했다.
- 13) 딸과 아들이 집안일을 하다 보니 결석이 잦아서 학교에서 그녀를 호출하는 바람에 담임과 교장을 만나야 했다.
- 14) 사망에서 ‘폭도새끼’라는 말이 그녀에게 들려왔다.
- 15) 작은시아주버니는 지원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죽고 말았다.
- 16) 예비검속 때 아들 데리고 피신하라는 시부모의 말에 대해 피하면 또 ‘폭도새끼’가 된다고 거절했다.
- 17) 그녀는 싸우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잠속에 빠져들었다.

「덧에 치인 세월」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 4·3을 겪은 당시 제주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재현하고 있다. 소설의 현재 시점은 4·3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이다. 위의 개요에서 1)과 17)은 소설적 현재이며, 2)부터 16)까지는 순차적으로 여인의 삶이 그려져 있다. 식민지시기에 19살의 젊은 여성이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식민지시기에 내선일체의 황민화 교육의 영향으로 남편과 함께 도일(渡日)했다가 귀향한 여인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4·3사건을 만나 겪는 끔찍한 일을 다루었다. 그 와중에 자식 둘과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고된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 특히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의 비극을 조명한 작품이



다.

그러다가 4·3사건이 와작작 터지니 밤에 지서가 불타고 순경이 산 채로 구덩이에 묻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디도 사람이 죽었다, 길에도 죽어 쓰러진 사람이 있더라, 살벌한 소문들만 무성했다. (……)

그런데 시월 초엿새 날 저녁은 가름에 불이 별갯었다. 산 쪽으로부터 불을 붙이며 내려온 군인들이 마을을 에워싼 것이었다.

(……) 그날 저녁에 그 시아주버니가 총에 맞아 죽었다. 총소리가 와작작 하는 통에 뒷걸음으로 툭 튀어 들어온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었다. (……) 그날 학교 마당까지 불려갔던 마음 사람들 중에 열 일곱이 총살을 당했다.

(……) 그녀는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남편의 몸 위에 덮었다. 속치마만 입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같이 갔던 여인도 한쪽에서 시체 하나를 앞에 놓고 뉘두리울음을 울고 있었다. (55-58쪽)

위의 인용문은 4·3사건 당시 학살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이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이 10월에 학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제주에서는 “1948년 10월 11일부터 1949년 3월 1일까지 대규모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4·3사건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제주 도민들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는 등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sup>32)</sup> 특히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주민들의 집단희생을 부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가의 창작초점은 수많은 무고한 제주 사람들이 학살당한 4·3사건을 증언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죽음’ 당하는 초토화 작전은 소개령(疏開令)에 따른 것이었다. 소개령은 1948년 10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포고령이다. 이는 ‘제주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를 전부 포함하여 무허가 통행금지가 되었다. 위반자의 경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폭도로 인정해 총살에 처할 것이다. ‘초토화’ 작전이 시작한 이후 제주 민중들을 공포의 나라에 몰아넣었고, 특히 빨

3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213쪽.



갱이 낙인(烙印)이 찍힌 중산간 마을 사람들의 피해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 작은시아주버니든 그 ‘오류’를 반증하려고 하는 제주 청년이든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제주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피해의식이 심화되어 일부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했다. 다시 말해 4·3 당시 제주 민중들 가운데 상당수는 살기 위해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마당만한 소나무밭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시체들, 치마 덮은 남편의 시체, 그를 매장하고 왔을 때 사망에서 쏟아지던 눈총, 뒤통수를 따라오던 ‘폭도새끼’ ‘폭도새끼’, 그녀는 그만 눈을 지리감고 도리도리를 쳤다. (62쪽)

소설이 1986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4·3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인문용에서 수시로 나온 ‘폭도새끼’ 그리고 “남자에겐 생명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63쪽)다는 말에 대해 독자들은 ‘폭도새끼’로 취급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나 하는 의문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죽어도 절대 ‘폭도새끼’ 말 들을 수 없다는 ‘맞섬’, 남자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한 여인이 겪은 4·3사건을 통해 ‘폭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제주사람들의 몸부림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 속 그녀의 남편은 4·3의 북새통에 “신작로에 가 담 쌓고, 돌아와 선거했는디 나가 위원장이여”(57쪽)라는 이유로 ‘폭도’에 연루되어 습격당해서 죽고 말았다. 4·3 사건 당시 소개령 전개됨에 따라 중산간 마을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폭도’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로 인해 “소개지에서 토벌대에 의해 ‘폭도’로 체포당하거나 혹은 소개지인 마을이 유격대에 의해 습격당했을 때에도 폭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학살”<sup>33)</sup>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남편도 ‘폭도’로 취급되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제주에는 수많은 민중들이 도처에 탄압과 공포가 자리한 이른바 ‘붉은 섬’으로 인식되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피바람 속에 거대한 희생을 당한 경험 때문

33) 양정심, 「제주4·3항쟁과 레드콤플렉스」, 『사총』63, 역사학연구회, 2006, 33쪽.

에 제주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날로 심해져 레드콤플렉스가 점점 내면화되었다. 4·3의 학살로 인해 제주 공동체가 파괴되어 주민들의 의식도 왜곡되었다. 4·3 사건으로 파괴된 제주 공동체의 의식이 제주 민중들에게 얼마나 깊은 정신적 상처(레드콤플렉스)를 남겼는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씨발, 내가 나가서 형님덜 원수를 갚겠수다.”

형수가 만들어 준 천임침(千人針)을 배에 감고 자원 입대한 작은시아주버니는 석 달 만에 재로 돌아왔다. 아들 삼형제를 불과 두 해 동안 모두 전쟁에 빼앗긴 시아버지는 그동안에 그만 폭삭 늙어 버리고 겁이 많은 노인인 되어 있었다. (62-63쪽)

4·3이 ‘공산폭동’으로 규정된 사회적 분위기 하에 여자의 작은시아주버니는 인민군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전쟁에 자원했다. ‘폭도새끼’ 즉 빨갱이라는 이념적 각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었다. 당시 제주 청년들은 제주 민중들을 좌익시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아주 용맹했다. 그러나 왜곡된 의식 속에 그들이 폭력으로 폭력에 대한 양상을 낳았다. 결국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4·3이 제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파괴, 왜곡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sup>34)</sup>

이 소설의 여성 주인공은 이름이 없이 ‘그녀’로만 지칭된다. 4·3의 와중에서 남편과 큰시아주버니 그리고 작은시아주버니의 죽음이 역시 그녀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예비검속 때 아들을 데리고 피신하라는 시부모의 말에 “안 됩니다. 일 년 반을 남의 할망 밭에 가 누우며 피해 다니다 죽어도 좋 맞아

34) 이와 비슷한 상황은 현기영의 「순이 삼촌」에서 더욱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때마침 6:25가 터져 해병대 모병이 있자 이 귀순자들은 너도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그야말로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 있다간 언제 개죽음당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현모 형은 인천상륙 작전에 참가한 해병대3기였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용맹을 떨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출신 청년 삼만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용맹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따지고 보면 결국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이라 한번 여봐란 듯이 용맹을 떨쳐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어쩌면 거기엔 보복적인 감정이 짙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북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섬 청년들이 6·25동란 때 보인 전사에 빛나는 그 용맹은 한때 군경 측에서 섬 주민이라면 무조건 좌익시해서 때려잡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질렀나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현기영, 『순이 삼촌』, 창비, 2015, 83쪽.

죽으니까 폭도새끼 말 듣는다 그건 못합니다”(63쪽)라며 거절했다. ‘폭도새끼’라는 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들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큰 정신적 상흔을 입었음에도 그녀는 현실과 맞서기로 한 것이었다. 비록 그 ‘맞섬’이 가냘픈 몸짓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비극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자각의 순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각이자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의 자각이기도 하다.

남편이 죽은 이후 그녀는 “무섭고 두려운 게 지나가니까 왈칵 서러움이 가슴속으로 몰려들었다. 난간 기둥에 뺨을 대고 소리를 죽이고 한참 울었다.”(60쪽) 그만큼 4·3사건이 남긴 상처와 고통은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든 것이었다. 그리고 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것은 4·3 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온갖 서러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먼데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진 사태에도 저것들이 목숨을 부지해서 새벽마다 울어 주는 것이 울컥 고마웠다. 그녀는 각지를 헐겁게 하여 아이를 가만히 요 위에 눕어 놓고 모로 일어났다. (51쪽)

사람을 대신해 ‘닭’이 소리를 내어 울어주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섬뜩하고 서늘 퍼런 광선에 가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모진 사태’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겨우 살아남은 ‘닭’의 울음 소리에도 울컥 고마움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차마 어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4·3의 와중에 이러한 어찌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아들을 위해 도피하지 않겠다는 그 ‘맞섬’이 제주 민중들의 저항을 암시한 것으로 본다. 물론 그 저항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인데, 그것은 아직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한계에도 오성찬은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제주 민중들의 저항의식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던지시 보여준 셈이다. 그것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타이완 2·28의 진실 회복과 여성의 삶

#### 1. 우연에 휩쓸린 불행의 종말—林雙不의 「黃素小編年」

린쌍부(林雙不)의 본명은 황옌데이(黃燕德)이며, 타이완 동스취(東勢厝) 출신이다. 보인(輔仁)대학교 철학연구소 석사이다. 초기 작품은 대부분 학생들의 생활과 사랑 체험을 배경으로 삼은 것들이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타이완 향토 문학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지식인으로서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장편소설로 『결전금요일(決戰星期五)』, 『대불무연(大佛無戀)』 등이 있고, 단편소설은 「작은 나팔수(小喇叭手)」, 「여대생 창난안(大學女生莊南安)」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 『타이완 신악부(臺灣新樂府)』, 산문집으로 『고요 속의 외침(安安靜靜很大聲)』, 『고요 속에 그를 보고 싶다(安安靜靜想到他)』 등이 있다.

린쌍부의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sup>35)</sup>는 타이완 어느 시골 소녀의 삶을 통해서 타이완 2·28사건의 비극적 사건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소설 제목처럼 시간 순서로 내러티브의 발전을 이끌어 사건의 전말을 짧은 분량으로 전하는 이 소설은 냉정한 말투로 작가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독자에게 전달되었다. 그 결과 독자들에게는 실록처럼 읽힌다.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1947년 결혼을 앞둔 열아홉 살 황쑤는 어머니와 함께 혼수용품을 장만하러 시내의 시장에 갔다.
- 2)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황쑤는 옷과 식칼에 피 묻어 피신하다가 반동분자로 몰려 잡혀갔다.
- 3) 고문에 시달리며 1년 정도 수감생활 하다가 총살 직전에 무죄로 석방되었다.
- 4) 황쑤가 고향에 돌아오니 집은 황폐해졌고 아버지는 병사(病死)했음을 알게 되었다.

35) 林雙不의 「黃素小編年」은 許俊雅이 엮은 『無語的春天·二二八小說選』(玉山社, 2003)에 실려 있다. 해당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안에 이 텍스트의 쪽수만 표기함.

- 5) 황쭈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고, 세 오빠와 올케들도 예전의 웃음을 잃었다.
- 6) 정치범이란 이유로 파혼당한 황쭈는 ‘나는 총살을 당하지 않을 거야.’라며 하루 종일 중얼거렸다.
- 7) 1959년 겨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황쭈는 더럽고 냄새나는 여자로 전락했다.
- 8) 1967년 여름에 황쭈는 시내로 가는 기차 궤도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황쭈의 작은 연대기」는 19살 젊은 여자가 신접살림을 마련하기 위해 혼수용품으로 준비한 식칼 때문에 2·28사건의 와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신분열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다. 1947년의 봄날(황쭈가 체포된 날), 1948년의 어느 날(황쭈 사형 집행 날), 1959년 겨울(황쭈 어머니 사망), 1967년 여름(황쭈가 자살한 날) 식으로 소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처럼 소설에서 중요하게 짚어지는 1947년, 1948년, 1959년, 1967년은 타이완의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다. 1947년에 2·28사건이 일어났고, 1948년에 국공내전으로 인해 민주 정치가 중지되었으며, 1959년은 백색테러 시기였다. 그리고 1967년에 타이완에서 민주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결혼을 보름 앞둔 19살의 황쭈이기에 1947년 봄은 희망으로 시작된다. 다소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사망에서 요란한 싸움과 공포의 총성이 들려와 상서로운 평온함을 깨뜨렸다. 이때 혼란스러운 외침 속에 그녀는 ‘촌뜨기새끼(阿山仔)’, ‘육지새끼(芋仔)’, ‘돼지새끼(豬仔)’<sup>36)</sup>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 황쭈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무서워하고 있었다. 본성인과 외성인의 충돌 현장이었다.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들이 점점 밀려와 인과가 그녀를 둘러쌌다. 나무 방망이, 벽돌, 또는 깨진 술병을 들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들의 싸움 현장의 한복판에 있는 황쭈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

황쭈는 1947년 2·28의 현장의 한복판에 휩쓸린 것이었다. 군과 민중의 충돌을 터지자 “분노한 군중들은 공공기관 외성인(外省人) 공무원 숙사, 외성인 경영하는 상점뿐만 아니라 외성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sup>37)</sup>하였고, 이러한 혼란 속에

36) 광복 이후 타이완으로 넘어온 중국대륙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서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황쑤는 피신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려 끌려갔다. 그 이후 황쑤는 매일 혹독한 추궁을 당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 질서 체계가 문란하고 불균형적이며 경찰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황당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 후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황쑤를 심문했다. 대부분은 삼각턱 남자였다. “네가 사람 죽였지? 어? 안 그러면 왜 식칼을 들고 있어? 식칼에 왜 피가 묻었어? 누가 너한테 죽이라고 시켰나? 몇 명을 죽였어? 타이베이(臺北)에 갔다 왔지? 다다오청(大稻埕)에도 갔다 왔지? 솔직히 말을 안 해? 다른 사람이 다 말했어. 너는 왜 식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지? 말해! 빨리 말해!”

남자의 표정이 차가웠다. 황쑤는 그 표정만 봐도 온몸이 떨려 마치 겨울 아침에 얼음물을 밟은 것처럼 등골까지 오싹해졌다. 그의 타이완 말투는 황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이상했다. 그리고 그의 질문도 이상했다. 그의 질문에 황쑤가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 이름이 많이 있었다. 남자의 말투가 매우 사나웠고, 황쑤에게는 19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거칠게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멍하게 있었다. 우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

此後天天有人來喝問黃素，大抵是以三角臉男人爲首：你殺了人，是不是？不然爲什麼要帶著菜刀爲什麼沾血？誰指使你殺人的？你殺了多少人？台北你有沒有去過？大稻埕那裡你去了沒有，不要隱瞞了，別人都招了，你爲什麼要拿菜刀殺人？說！說！快說！

三角臉的面孔很冷，黃素一看就抖，好像冬天早晨一脚踩到冰水一樣。三角臉的台灣話怪腔乖調，黃素沒辦法完全聽懂。三角臉的問話很奇怪，一些地名黃素連聽都沒聽過。三角臉的口氣很兇，黃素長到十九歲，從來沒有人如此對她兇過，她完全嚇呆了，除了哭，她一句話也回答不上來。(91-92쪽)

“식칼은 황쑤에게 10년 후의 다복한 가정이 연상되는 희망의 신접살림 도구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몰고 간 불행의 도구가 되고 말

37) 쉬즈지아, 앞의 글, 138쪽.

았다.”<sup>38)</sup> 단지 우연히 충돌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황쑤의 식칼에 피가 묻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핏빛 인생의 수렁을 헤매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황쑤는 매일 감옥에서 모진 심문에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를 주로 심문하는 사람은 삼각턱 남자였다. 그런데 그의 타이완 말투는 황쑤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다. 이는 남자는 외성인<sup>39)</sup>이고 황쑤는 본성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황쑤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1948년 초 어느 날 감옥에서 일 년 가까이 지낸 황쑤에게 삼각턱 남자가 증거를 확보해서 사형 선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1948년에 국공내전이 한창일 때 국민당 정부가 공산주의자의 ‘폭동’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공포함에 따라 타이완의 민주 정치가 중지되었다. 이로써 “총통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설립 허가, 감독, 해산권을 보유함으로써 반대세력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sup>40)</sup>하는 타이완 독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정치 체계의 급변으로 인해 거대한 사회적 혼란이 일었고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통제와 진압을 2·28 사건의 와중에 더욱 강화하였다.

감옥에서 당한 고문, 삼각턱 남자의 무서움, 그리고 사형 선고로 인해 황쑤의 정신세계는 무너지고 말았다. 황쑤는 결국 ‘총살을 당하면 안 돼’라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미친 여자가 되고 말았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1948년 늦봄에 황쑤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왕진하이의 아버지는 문병차 황쑤의 어머니를 찾아왔다.

“황쑤가 실성했나 봐요.”

“실성이 아니에요.” 황쑤의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천천히 회복해질 거예요.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38)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 앞의 글, 18쪽.

39) 당시 타이완에서 말한 외성인(外省人)은 광복 이후 타이완으로 넘어온 중국대륙 사람들이고 본성인(本省人)은 광복 전부터 계속 타이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40)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한국동북아논총』23, 한국동북아학회, 2002, 158쪽.



왕진하이의 아버지는 무릎과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저도 황쭈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혼사는 취소해야 해요.”

“왜요?”

“진하이는 정치범과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쪽은 분명히 개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왕진하이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의 입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황쭈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阿素起猶了。」

「不是猶，」黃素的母親雙眼含淚：「她只是受到太深的刺激，回來後會恢復的，親家你放心。」

王金海的父親摸摸膝蓋抓抓臉頰，好久好久以後又說：「我也希望阿素能早點恢復。但是這門親事還是要取消。」

「爲什麼？」

「金海不能娶政治犯。」

「你明明知道阿素不是。」

「我知道有什麼用？」王金海的父親嘆了一口氣：「衆人的嘴毒。」

「好吧！」

黃素的母親答允之後淚水漣漣而下。(94-95쪽)

1948년의 타이완은 좌익 숙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범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회생이 거의 불가능이었다. 정치와 전혀 무관한 황쭈였건만 정치범으로 낙인을 찍히고 말았다. 정치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일단 그렇게 인식되면 끝장이었음을 이 소설은 보여 준다.

1959년 겨울 황쭈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황쭈는 아



름다운 청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신혼생활과 사랑하는 부모를 연이어 잃게 됐다. 그 이후로 오빠들과 올케들은 황쑤를 돌봐 주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다. 그녀는 밤중에 뛰쳐나가 계속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생활능력이 점점 상실되어 스스로 대소변조차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을 어린아이들은 그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더럽고 미친 여자로 간주해서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부었다. 오빠들과 올케언니들 그리고 마을 아이들까지의 이질적인 시선과 비난은 그녀에게는 2차 피해였던 것이다.

1950년대 타이완에서는 “국민당 정부는 도처에 휘날리는 성조기에 힘입어 전부터 벌려오던 숙청작업의 칼을 뽑았다.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왔던, ‘50년대 백색테러’라고 불리는 타이완 전 지역에서 자행된 대소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sup>41)</sup> 좌익 숙청의 피바람 속에 황쑤 어머니의 죽음은 거대한 역사의 그늘 아래서 보통 사람들의 무기력하고 비천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sup>42)</sup> 소설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1950년대 말이든, 이 작품의 소설적 현재인 1960년대에서든,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 중반에서든 2·28이나 2·28에서 이어지는 백색테러에 관한 내용을 표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황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67년 여름, 비 내리던 오후 황쑤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967년 여름, 서북쪽에 비가 막 내린 오후에 황쑤는 빨간 창고의 문을 열어 집을 나가, 작은 마을을 떠나 시내로 향했다. 두 발에 흙이 묻어도 멈추지 않았다. 황쑤는 철도를 따라 어느 기차 플랫폼에 들어가 남쪽으로 가는 급행 기차에 올라탔다. 차장이 검표할 때 황쑤는 표가 없었지만 끊임없이 차장에게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난 총살 당하면 안 돼, 난 총살 당하면 안 돼.”

41) 란보조우(藍博洲), 「대만-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42, 역사비평사, 1998, 64쪽.

42) 작품에서 어머니는 수감된 황쑤의 소식을 알아보다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그 후 앓아누웠다가 1959년에 세상에 떠난 것으로만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기차가 멈추자마자 차장은 그녀를 쫓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으로 가는 일반 기차가 역에 들어오자 황쭈는 다시 기어올라 기차를 탔다. 역을 몇 곳 지나지 못하고 그녀는 다시 쫓겨났다. 황쭈는 플랫폼의 기둥 옆에 쪼그리고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황쭈는 플랫폼에서 내려와 철도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갔다. 긴 철교 위를 올라갔다. 황쭈는 한걸음에 침목(枕木)을 하나씩 차분하게 건너 가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기적 소리와 귀를 찌르는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뒤로 돌아보니 기차가 달려왔다.

하지만 황쭈는 여전히 철교위에 서 있기만 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一九六七年的夏天，西北雨剛剛下過的一個午後，黃素離開柴房，離開小村，走向城鎮。兩腳沾滿烏黑泥巴的黃素沿著鐵道走進一個月台搭上一列南行的平快車。車長查票時，黃素沒有票，只是不停地告訴車長：「我不要槍殺，我不要槍殺……」

平快車靠站，車長把黃素趕了下去。不久一列北上的一列車進站了。黃素又爬了上去。過了幾站再度被趕下車。黃素就蹲在月台上一個柱子旁，過了一夜。

第二天，黃素走下月台，沿鐵軌往北走，走上一座長長的鐵橋。黃素一步一枕木，慢慢地走著，忽然聽見背後傳來急促的汽笛聲和刺耳的摩擦聲。

黃素回頭一看，火車頭逼面而來。

黃素兀自站立橋上，一動也不動。(96쪽)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황쭈는 철교의 레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차가 다가왔다. 그러나 황쭈는 기차를 피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다. 2·28 사건이 발발한 20년 후, 1967년에 자살을 선택했다. 인력으로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기차를 통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개인의 무기력함을 보여 준 셈이다. 하지만 작가가 1967년을 선택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이완에서 “1967년부터 1977년 사이에 몇 차례의 크고 작은 자발적인 반체제적인 이른바 ‘반란’ 사건이었”<sup>43)</sup>기 때문이다. 1967년은 타이완 사회 민주화의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킨 시점이었던 것이

43) 란보조우, 앞의 글, 68쪽.

다. 물론 이 소설에서는 ‘2·28’이나 ‘본성인’ ‘외성인’이란 단어 표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면, 황쑤를 비롯해 타이완 민중의 희생과 가족 수난 등을 통해 타이완 현대사의 비극적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그려져 있다. 외성인 남자에게 추궁을 당하는 일이든, 본성인 남자에게 파혼을 당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타이완 지역의 화합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작가의 창작초점은 공권력의 폭력성과 타이완 민중들의 화합이다. 황쑤는 왜 시내로 가고 싶었을까. 왜 자신이 기대했던 행복한 삶의 기점이자 종점인 시내로 향했을까. 황쑤가 “나는 총살을 당하면 안 돼”라며 늘 중얼거리는 것, 그리고 기차와 맞서 부딪치는 것은 바로 황쑤로 대표되는 타이완 민중들의 저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내는 황쑤에게 있어 삶의 모태가 된 촛불과 같이 미약한 희망의 공간이었다.

## 2. 구원의 올림과 전란 속 운명—李渝의 「夜琴」

「밤 풍금(夜琴)」의 작가 리위(李渝)는 타이완에서 작가 생활을 했지만, 본적은 중국 안휘성(安徽省)이고 1944년 충칭(重慶)에서 태어났으며 1949년 5살 때부터 타이완에서 살았다. 타이완대학교 외국어학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분교에서 중국예술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소설 창작을 시작하였으나 미국 유학시절에는 창작을 중단하였다. 이후 1980년부터 다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주로 단편소설을 썼다. 타임스문학상, 제문(帝門) 예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단편소설로 「온주의 이야기(溫州的故事)」, 「응답해 준 고향 기슭(應答的鄉岸)」, 「여름날의 망설임(夏日踟躕)」, 「무안의 하천(無岸之河)」 등이 있으며, 미술사론으로 『런보넨-청말의 시민 화가(任伯年-清末的市民畫家)』 등이 있다.

그의 소설은 심오하고 세밀하다고 평가된다. 역사적 서사에 관련하여 리위(李渝)는 늘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텍스트에 써 내려갔다. 그의 소설에는 종종 집단 안에서 고독한 개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타이완의 다양한

족군(族群)<sup>44)</sup>과 신분의 고독한 모습을 그려냈다. 그들은 무자비한 전쟁에 시달리거나 혹은 현대 도시문명에 갇혀 자신의 이상(理想)에 국한됨에 따라 휴머니즘, 삶, 생명의 폭력성 속에서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했다는 견해도 있다.<sup>45)</sup>

「밤 풍금(夜琴)」<sup>46)</sup>의 주인공은 이름이 없는 ‘그녀(她)’이다. 그녀는 중국 북방에서 온 외성인(外省人)이고 나이는 40대쯤이다. 2·28의 비극은 다양한 족군(族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개인의 운명과 함께 역사의 발전과 얽혀 있음을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다.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 북방에서 온 40대 여성인 그녀는 신부에게 아침 인사를 한 다음 방과 성당을 청소하다가 풍금을 보았다. (현재)
- 2) 달 밤에 신부가 풍금 연주를 해주자 그녀는 그 신비스러운 소리에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다. (현재)
- 3)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남편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더니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과거-국공내전)
- 4) 그녀는 전쟁이 시작된 후 자신이 남장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았다. (과거-국공내전)
- 5)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날에 남편과 함께 있던 그녀는 충돌사태가 끝나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라고 믿었다. (과거-2·28)
- 6) 그녀는 남편과 함께 교사의 집으로 피난 가서 십여 일 동안 밤낮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 (과거-2·28)
- 7) 사태가 좀 안정되자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2·28)
- 8)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려준 후에 사라졌다. (과거-백

44) 타이완 사회는 다양한 족군(族群)이 섞여가는 사회이다. 타이완은 ‘남도어족(南島語族, Austronesian)’의 발상지로서 타이완의 원주민은 아메이(阿美, Amis)족, 다우(達悟, Tao)족, 부농(布農, Bunun)족, 타이야(泰雅, Ataya)족, 파이완(排灣, Paiwan)족, 루카이(魯凱, Rukai)족, 베이난(卑南, Puyuma)족, 싸이샤(賽夏, Saisiyat)족, 쩌우(鄒, Tsou)족, 샤오(邵, Thao)족 그리고 한족화(漢族化)된 평푸(平埔, Pingpu)족 포함하여 11족으로 나누기도 한다. 타이완 거주민은 대체로 많은 분파를 가진 남도어족과 한족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한족 내부는 다시 민난인·하카인·외성인·본성인 등으로 나뉜다. 허이린(何義麟), 「대만의 족군관계와 2·28사건」,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창비, 2012, 63-77쪽.

45) 蔣興立, 「論李渝小說中的抒情殘體」,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9, 2016. 46쪽.

46) 李渝의 「夜琴」은 許俊雅이 엮은 『無語的春天·二二八小說選』(玉山社, 2003)에 실려 있다. 해당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안에 이 텍스트의 쪽수만 표기함.

색테러)

9) 그녀는 도리어 난리 때문에 남편과 같이 지내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현재)

10) 풍금 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날이 어두워졌다. (현재)

11) 남편이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십여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현재)

「밤 풍금(夜琴)」의 소설적 현재는 1960년대로, 1940년대의 국공내전과 2·28사건이 회고된다. 역사적 서사에 대하여 한 여성의 기억·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와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의 운명과 역사적 사건을 결합해 역사의 틈에서 빚어진 개인의 비극에 대한 깊은 성찰·구원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된다.<sup>47)</sup>

「밤 풍금(夜琴)」의 주인공은 단지 광대한 역사의 발전과정 중의 평범한 여인일 뿐이다. 작가가 외성인과 본성인을 공동주인공으로 소설을 창작한 이유는 2·28사건은 본성인에게만 주어진 상처가 아니라 당시 모든 타이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작가는 사건이 남긴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한 외성인 여자의 모습을 통해 타이완 지역의 화합을 강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2·28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타이완 사회의 현황은 ① 외성인과 본성인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 ② 전면독점, 경제통제 ③ 관료들의 부정부패 횡행 ④ 군인들이 규율을 무시 ⑤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sup>48)</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 타이완 민중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졌고 국민당 정부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민중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2·28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1945년 타이완 광복 이후부터 1947년까지 경제 쇠퇴와 부패 관료체제로 인해 관민충돌사건인 타이완 2·28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1949년 국공내전에서 참패한 장제스(蔣介石)는 타이완으로 복귀하여 4·6사건<sup>49)</sup>을 기점으로 엄격한 탄압을 진행하며 1949년 5월에 계엄령을 내렸다. 계엄령 속에서 백색테러<sup>50)</sup>가 지속되었다. 계엄령으로 인해 민중들의 기

47) 朱立立, 「左翼의憂鬱心靈與詩性的美學救贖—郭松棻、李渝的文學世界初探」, 李樹峰, 汪文頂 編은 『兩岸文化發展與創新: 第四屆兩岸文化發展論壇文集』, 文化藝術, 2017, 第38頁.

48) 정나이웨이, 「타이완 2·28사건의 재조명 과정」, 『4·3과 역사』18, 제주4·3연구소, 2018, 398-400 쪽 참조.

49) 타이완 백색테러의 전주곡인 4·6사건은 1949년 타이완 타이베이 지역에서 학생이 당시 국민당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에 반항하여 결성한 조직적 학생시위운동이다.

본인권과 자유가 제한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좌익사상을 유도하면 모두 위법으로 처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민중들은 살기 위해 침묵을 강요당했다.

「밤 풍금(夜琴)」의 여주인공은 국공내전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국공내전 때문에 남편과 함께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넘어왔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가정만 꾸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총소리를 듣게 되고 말았다. 2·28사건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타이완 여자 교사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다. 이후 그녀는 모든 불행이 드디어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외출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국공내전에서 죽은 아버지처럼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설 속 그녀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야만 했나?”(183쪽) 국공내전과 2·28사건 때문에 이어지는 백색테러로 인해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녀의 모습은 애처롭다. 소설에서는 국공내전 때 아버지가 참전 전의 모습을 다루었으며, 가족들이 같이 피난하다가 자신만이 남편과 타이완으로 건너왔음을 언급했다. 그녀와 가족들은 격동의 시대에 피난으로 도망치는 모습은 삶의 일상화가 되고 말았다. 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거나 짐을 싸고 있거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곤 했다. 이처럼 「밤 풍금(夜琴)」에서도 국공내전이나 2·28사건에 대한 자세한 서술 없이 작중 인물들의 피난 모습을 다루고 있다. 계엄령이 해제되는 1987년 이전 작품에서 사건 상황에 대해 적나라하게 형상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것을 그려지지 않고 그녀 삶의 변화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 비추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또 총소리를 들었다.

(……)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초등학교 6학년 타이완 여자 교사가 그들을 강둑 옆의 자신의 어머니

---

50) 1950년대의 타이완은 좌익숙청의 피바람 속에서 공산당원·농민·학생·지식인·예술인·교사·신문기자·군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타이완 전역에 걸치면, 출신을 보면, 타이완 본토인, 외부인, 타이완 산지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란보조우(藍博洲), 앞의 글, 53-69쪽.

집으로 피신하자고 건의를 했다.

(……)

어두컴컴하고 낮과 밤이 똑같이 춥다. 구석마다 눅눅해 만지면 손가락 사이에 바로 물기가 묻을 것 같았다. 장마 날씨였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우르릉거리는 포성 그리고 도로 위에 구르는 무거운 바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폭죽같이 터지는 총성은 때로 맑고 탁탁거리고 있었다.

(……)

폭탄이 불꽃같이 하늘에서 터져 별똥별과 같은 불빛이 수문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강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서 은은한 온기가 풍겨와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她又聽見了槍聲。

(……)

戰爭並沒有結束。

(……)

六年級的一個女老師，台灣人！要他們到她淡水河邊的母親家裡躲一躲。

(……)

黑暗的白天和夜晚一樣寒，每個角落都濕漉漉的，摸在兩個指間一層水，梅雨天氣。靜聽尖銳的哨聲，沉悶的砲聲，沉重地壓過去路面的車輪聲。

(……)

爆竹似的槍聲有時變成清脆的嗒嗒嗒。砲彈在空中爆裂成煙花，流星似的火點，照亮了石灰做的水門。從他的肩頭傳來似有似無的溫暖，擁抱了自己。

(176-179쪽)

위의 인용문에서 그녀가 다시 듣게 되는 총성은 바로 2·28의 총성이었다. 2·28이 폭발한 이후 타이완 행정장관인 천이(陳儀)는 최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28사건처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곧 타이완 정치 개혁문제로 옮겨졌다. 원래 '중재' 목적으로 결성된 사건 처리위원회는 타이완 인민의 여러 정치 세력과 장제스(蔣介石) 세력 사이의 정치적 힘겨루기 장소로 바뀌었다. 국민당은 많은 병력을 타이완에 투입하여 진압 작전을 폈다. 타이베이(台北), 지룽



(基隆), 자이(嘉義), 가오슝(高雄)과 같은 요새 지역에서의 학살이 제일 참혹했다. 사령부와 헌병들이 시민들을 협공하고, 대포·기관총·보총이 불을 뿜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검으로 변해가고,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다.<sup>51)</sup> 그러한 참혹한 상황에서 그녀와 남편은 타이완 여자 교사의 가정의 도움으로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 2·28 사건에서 이어지는 백색테러 때문에 외출했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사라지자 그녀는 추궁을 당해야만 했다. 군인 두 명이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군인들의 말에서 그녀는 머릿속에서 열심히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특별한 것, 특별한 것, 아주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다.”(184쪽)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다. 국민당 통치하의 백색테러시기에 “‘2·28’ 세 글자는 자연스레 금기가 되었다. 수많은 2·28 희생자 가족조차 이 일로 가족 중 또 다른 누군가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침묵을 선택”<sup>52)</sup>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했던 것이었다. 망각을 강요당한 당시로서는 ‘특별한 것(2·28과 관련된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혼란기에 전란 위낙 사랑의 장애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전란(2·28사건) 남편과의 연결고리였다. 전란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면서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란이 끝난 뒤 남편도 사라져 혼자서 전후의 복잡한 삶을 견뎌내야만 했다. 전란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그녀는 오히려 전란으로 남편과 묶였던 세월이 그리워졌다.

그녀는 수시로 전란 시절 어둠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부축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또렷이 나타났다. “포화의 불길은 꽃무늬 유리창에 터져 반짝거리고 있었다. 30초에 한 번씩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190쪽) 포화가 터지는 곳이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상대방 걱정만 했다. 그녀와 남편 사이의 따스한 사랑은 번쩍이는 포화 속에서도 더욱 슬퍼 보인다. 전란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늘 비극적 결말과 마주한다. 시대적 혼란기에 그 격동의 시간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건과 부딪치는

51) 란보조우, 앞의 글, 55-56쪽.

52) 정나이웨이, 앞의 글, 404쪽.



그녀의 삶을 통해 잘 보여준다.

“내가 들어 줄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어깨에서 풍겨온 따스한 온기가 다른 한쪽 어깨에 스며들었다.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망설이다가 땀비를 건네주었다. 손이 스치는 순간에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잘 지내고 있니?” 그가 말했다.

“응” 그녀는 고개를 숙여 빠친 듯한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한 손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도 쭉스러워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것이 이미 십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텅 빈 거리는 조용히 그녀의 뒤에 뻗어 있고 빨간 불빛 속에 스며들었다. 가로등 밑의 가늘고 규칙적인 그림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둑어둑한 수원로 끝에서 거센 찬 바람이 불어왔다. 십여 년 전에 거기는 사람을 총살하는 곳이라고 했었다.

我給你拿吧——

一個熟悉的聲音說。

一個肩開始溫暖地擦著這一邊肩。

她知道他會回來的。

遲疑著，讓他接過鍋。手碰到自己的，一陣溫熱。

這幾年都好，他說。

她低下頭，嗯了一聲，算是回答，心裏還是有點氣。

騰出一隻手，伸過來，摸索到她的腰。她一陣羞，在黑暗裡紅起了臉。

那是十多年前的事了。

她停下步子，回轉過頭。空寂的街道靜靜鋪在自己的身後，浸在紅色的燈光中。除了燈柱頭下的細長而規則的影子，除了自己什麼人也沒有。

黑暗的水源路，從底端吹來水的涼意。聽說在十多年前那原是槍斃人的地方。(192-193쪽)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작품은 1960년대가 소설적 현재 시점이고 십여 년 전에 사라진 남편은 1950년대 타이완 사회에서 백색테러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남편은 십여 전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십여 년 전에 거기는 사람을 총살하는 곳’이었음을 회고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이미 죽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밤 풍금」의 서사 방식은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이 교차하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 풍금 연주를 듣고 있는 공간이 현재이고, 다른 하나는 연주를 들으며 기억으로 재현되는 중국대륙에서 일어난 국공내전과 2·28사건 그리고 2·28에서 이어지는 백색테러 시기의 현장이 과거이다. 「밤 풍금」은 “슬픔과 따스함은 여성의 시각으로 소설의 서사를 펼치면서 역사적 사건에서 여성, 즉군의 상호작용을 보여 준”<sup>53)</sup>작품이다. 소설에서 그녀는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변화된, 스스로는 파악할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해야 했다.

### 3. 매몰된 기억과 울분의 출구— 楊照의 「煙花」

양자오(楊照)의, 본명은 리명궈(李明駿)으로, 1963년 타이완 타이베이(臺北)에서 태어났다. 타이완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타이완문학상, 우산련(吳三連)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타이완 역사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다수의 작품을 창작했다. 장편소설로 『대애(大愛)』, 『검은 골목과 해매는 밤(暗巷迷夜)』가 있고, 중단편소설은 「우리 고향의 혼(吾鄉之魂)」, 「별의 마지막 후계자(星星的末裔)」, 「홍안(紅顏)」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군려찰기(軍旅札記)』, 『미로의 시(迷路的詩)』 등이 있다. 이외에 『문학, 사회와 역사의 상상(文學、社會與歷史想像)』, 『문학의 원상(文學的原像)』, 『꿈과 재(夢與灰燼)』 등의 평론집을 펴냈다.

양자오 소설은 문학과 정치, 사회, 심지어 과학 이론까지 결합하여 내용의 품

53) 蔡志誠, 「歷史記憶·詩性救贖·文化認同—評李渝小說《夜琴》」, 『海天片羽』, 2006, 第50-53頁.

부성을 더했다는 특징이 있다. 양자오의 단편소설 「연화(煙花)」<sup>54)</sup>는 1987년 9월에 『시보문화(時報文化)』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 소설의 현재 시점은 1960년대이고 여자(女孩)와 진홍자오가 2·28사건의 비극에 관한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가족 수난의 이야기가 다루어졌다. 이 소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아내와 단짝 친구를 잃은 진홍자오(金鴻藻)가 같은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여자(女孩)와 그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 2) 진홍자오와 그의 아내는 외성인이고, 여자와 아버지는 본성인인데, 두 사람은 왕허순(王和順, 여자의 아버지)이 묻힌 묘지에서 자주 만났다.
- 3) 식물 연구자 진홍자오는 처음 왕허순 무덤 앞의 작고 붉은 꽃들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 4) 여자는 늘 그에게서 그 비극적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진홍자오는 “우리의 시대에는 모르는 것이 좋겠다.”라며 거절했다.
- 5) 여자는 결국 그 사건에서 그의 아내와 친구(여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 6) 연구원에서 도서관으로 직장이 바뀌었던 진홍자오는 무덤 앞의 꽃 때문에 다시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 7) 여자는 그의 친구이자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에 과거를 회상했다.
- 8) 아버지는 사건처리위원회에 참여하다가 죽었는데 그 후에 집안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과거)
- 9) 여자는 이로 인해 절대 외성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는 독한 맹세를 했다. (과거)
- 10) 여자는 성인이 되어 어머니가 세상 떠난 후에 생계를 위해 외국 군인들을 상대하는 창기(娼妓)가 되었다. (과거)
- 11) 진홍자오는 그 연구 때문에 반란죄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었다.
- 12) 진홍자오가 죽었음을 모르는 여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무덤에서 그를 기다리

54) 楊照의 「煙花」는 許俊雅이 엮은 『無語的春天·二二八小說選』(玉山社, 2003)에 실려 있다. 해당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안에 이 텍스트의 쪽수만 표기함.

고 있었다.

위에서 보듯이, 2·28사건처리위원회에 가담한 아버지가 살해당해 시체로 발견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이 외성인에 대한 공포감과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 여자의 가족이 해체되고, 여자는 친척들과 연락도 끊었다.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안개를 걷고 희생자의 무덤에 피어나는 붉은 꽃을 의미하는 ‘연화’는 희생자들이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희생이 초래한 여자의 현재 처지의 상징이기도 하다.”<sup>55)</sup> 양자오는 남성이지만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그림으로써 2·28 사건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여성의 삶을 통해서 당시 타이완 사회에서 나타난 불공평한 현상들을 비판”<sup>56)</sup>한 작가다. 특히 타이완의 2·28사건은 양자오에게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2·28사건 당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작가에게 평생 참혹한 흔적을 남겨 그의 소설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까닭에 그의 소설은 단순히 소설작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 사건에 대한 기록의 의미가 있다. 그는 소설가로서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양자오에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사는 곧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sup>57)</sup> 작가에게 외할아버지가 2·28 사건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2·28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고, 더욱 무거운 것이었다.

2·28이라는 기억이 타이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사건의 충격이었다. 훗날, 그 사건은 금기가 되었고, 그 집들, 그 사람들, 그때부터 그 기억들을 짊어지면서. (……)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가 군대에 간 1986년 무렵에야 어머니가 얘기해 주었는데. (……) 알고 난 뒤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소설을 두 편이나 쓰게 되었다.

55) 최말순, 앞의 책, 329쪽.

56) 姜星宇, 「國族記憶與傷痕－台灣二二八事件與韓國四三事件小說比較」,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中華民國105年 第106頁.

57) 陳鈞昂, 「當代台灣公共知識分子的批判精神」,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中華民國104, 第39頁.

그렇게 한참 뒤에야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였다. 내 나이 스물셋에야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2·28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알려주었다.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피살됐고, 아관(阿官) 삼촌이 어떻게 외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업고 돌아왔는지, 또 어떻게 시신을 거리낌 없이 집안으로 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총검의 기억까지 모두 다 알려주었다.

對於台灣人的社群，2·28這種記憶，那是很可怕的。真正可怕的是那種震撼，後來，它變成了一種禁忌，然後這個家，這些人，從此就背負著這個印記。（……）外祖父的故事，我知道當兵，大概是於1986年的時候，媽媽才告訴我。（……）我知道後非常激動，連寫了兩篇小說。就是因為在不久之後，我才知道外祖父的故事。直到我二十三歲的時候，媽媽才告訴我：外祖父是2·28事件的受害者，他怎樣被殺，阿官叔公怎樣去尋找屍體，怎樣背回來，連屍體怎麼樣不顧忌諱進門，她是怎樣留下那刺刀的印象。<sup>58)</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양자오는 2·28의 역사와 가족의 대물림을 짚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정치에 대한 서사는 대부분 ‘가족’을 주요 구조로 선택했다. 정치 서사에서 가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친족 관계, 호칭 사용, 심지어 혼인 등 다양한 요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핵심어이다.”<sup>59)</sup> 이 소설에서는 아내를 잃은 외성인인 진홍자오와 아버지를 잃은 본성인인 여자가 각자의 기억을 짜깁기해 공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의해 가족에서 일어난 비극을 다루었다. 진홍자오는 2·28사건으로 타지에서 홀몸이 되었고 여자는 늘 줌처럼 잊지 못하는 사건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십여 년 전에 집사람은 너의 아버지와 같은 사건 때문에 죽었다.’ 구정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아내는 길거리에서 시위 군중과 부딪혔는데 그들이 무슨 소

58) 白先勇, 廖彥博著, 「止痛療傷-白崇禧將軍與二二八」, 『時報出版』, 2014, 第224頁, 姜星宇, 앞의 글, 107쪽, 재인용.

59) 黃雨婕, 「政治化敘事的性別化想像」,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中華民國105, 第1頁.

리를 지르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 나의 아내는 죽고 말았다. 십 여구의 시체 가운데 (……) 나는 누구든 죽일 만치 화가 났지만 나에게 사람을 죽일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

여자의 아버지가 ‘담배단속 유혈 사건 조사 위원회’에 참가했고 또 ‘사건 처리 위원회’에 가담했었다. 어느 날 회의를 나간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결국은 아관이 가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7번길에서 지나갔던 사람에게 계속 소식을 알아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경과 군인을 피해야 했다. 마침내 어느 구렁덩이에서 여자 아버지의 시체를 찾았는데 두 눈에 검은 천으로 감고 있었고, 두 손은 거꾸로 뒤에 묶여 있었다.

한밤중임에도 여자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게 선명하게 잘 보였다.

他喟嘆了一聲：「十幾年了。她和你父親前後去世的，在同一個事件裡。」事件發生的那天，才過完年沒多久。他妻子聽說是在路上遇到了示威的群眾。他們吱吱喳喳喊著些什麼。（……）她就死了。一堆大約十幾具屍體中間。（……）他那時憤怒的幾乎想殺人。可是根本輪不到他來殺人。「沒多久，你父親就死了。」

女孩的父親參加了‘緝菸血案調查委員會’，又參加了‘事件處理委員會’。有一天出門去開會，然後就沒有回來了。（……）阿觀去了。在七堵那條路上沿途問，一面躲避憲警和軍隊，終於在一個坡角下找到了女孩的父親。屍體。兩眼還蒙着黑布，兩手反綁在身後。

女孩滿臉的淚水即使在夜晚也可以看得很清楚。(208-210쪽)

위의 인용문에서 왕허순과 관련된 얘기는 아관삼촌이 여자 아버지의 시체를 몰래 집으로 업고 온 다음에 진홍자오를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할 때 그에게 말해 준 것이었다. 여기서는 그의 아내는 2·28사건의 현장에서 죽고, 여자의 아버지는 사건의 현장에서 살해당한 것을 아니었지만 같은 사건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 당시 여자 아버지가 가담한 사건처리위원회는 장제스 세력에 대항하는 대표적 인민단체 세력이 되어 무장투쟁을 계획했다. 장제스 세력은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대량학살을 시작했다. 그리고 “계엄이 내려진 기간 경비사령부는 라디오에서

‘공무원들은 즉시 출근하라, 학생들은 반드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교하라, 노동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라’ 매일 같이 명령을 내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출근하던 공무원들은 모두 사거리에서 죽었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교문 어귀에서 차례로 죽어갔다. 노동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죽어간 시체들은 모두 담수하(淡水河)에 버려졌다. 이렇게 타이완 전역에서 학살된 인원이 만 명을 넘었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sup>60)</sup> 여자의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죽고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부터 가족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느 친척이 밖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집에 들르면 집안 전체를 망칠 것이라고 아버지의 시체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나섰는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밖에서 입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아버지 시체를 업고 있는 아관 삼촌한테 이렇게 말했다. ‘밖에서 죽은 것도 불쌍한데 집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애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집안은, 이 모양인데 또 망가질만한 것이 어딴냐?’라고 물었어요. 이 모들은 서둘러 할머니를 말렸다. 문 밖의 헌병들이 멀리서 다가오고 총검의 빛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났다. 햇살 아래의 길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父親回來那天就起了爭執。有些親戚說，不能讓屍體進家門，死在外頭的人，進到家裡會把整個家敗掉的。祖母卻說什麼也不肯讓父親在門外入殮。“進來，進來”祖母招著阿觀和父親的屍體。“死在外面已經夠可憐了，難道還不能讓他進門看老母嗎？這個家，弄成這樣，還有什麼好敗的嗎”姨審們連忙拉拉祖母。門外遠遠來了憲兵，槍上的刺刀閃閃發亮。在陽光下從路的那端走來。(214-215쪽)

위의 글은 여자가 어렸을 때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사회적 격동기에 공권력이 휘두른 폭력이 평범한 가정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보여 준다. 아버지의

60) 란보조우, 앞의 글, 57쪽.



죽음으로 인해 여자는 정치범의 유족이 되었다. 그 민감한 시대에 정치범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자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여자는 자신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다. 허순의 딸이다. 가끔은 허순의 딸이라고 몰래 물건을 건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앞에서는 다 멀리서부터 피했다.”(216쪽) 아버지의 죽음으로 여자는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었고, 가족들의 사이에서 생겨난 외성인에 대한 증오심도 집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했다. 2·28사건으로 인해 정치범 가족으로 몰린다는 두려움과 울분은 늘 그녀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진홍자오와의 만나는 과정에서 여자의 내적 심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흐릿한 그림자가 길고 홀쭉하다. (……) 그녀의 마음은 점점 위압감을 느껴 더 이상 언덕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돌아 내려갔다. (……) 더 이상 쳐다보지 못했다. (……) 여자는 말을 못하며 고작 필사적으로 고개만 저어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면서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햇빛에 반사되어 수많은 미세한 구슬이 되었다. (……) 그의 퍼지지 않은 옆얼굴을 볼 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쳐 공포감에 휩싸인 마음이 한참 동안 안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난생 처음이다.

一个灰濛濛的影子，頗長細瘦。(……) 她的心頭一寸寸寒涼起來，不敢再留在坡頂，急忙繞著曲折的小路趕下坡去。(……) 不敢再看。(……) 女孩說不出話來，只是拼命地搖頭，淚水一下子激迸了出來，隨著她搖頭淚水一顆一顆飛出去。(……) 看著他舒展不開的側面，她會突然冒起一身疙瘩，久久保持在莫名的驚懼的最高點，怎么也下不來。她不太確定自己到底怕什麼，這一生，還未曾這樣怕過。(200-202쪽)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이 여자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여자는 예민한 정치적 신분과 어린 시절 집안을 둘러싼 음울하고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늘 두려움의 절정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한편으로 두려운 기억에 시달리며 여자



는 항상 자신을 경계태세에 내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린 여자가 생계를 위해 ‘연화’와 같은 삶<sup>61)</sup>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외성의 남자와 만났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친척 어른들의 단호한 반대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와 헤어지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여자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런데 여자는 왕허순의 딸인 자신이 외성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도 외국인을 상대해서 몸을 파는 것은 허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아이러니하게 여기고 울적하다. 당시 타이완 본성에서 사람들은 2·28 사건으로 외성인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이 컸음을 작품속 여자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 작중인물들이 보여주는 성격적 특징은 심각한 충격을 입은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상태나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다.<sup>62)</sup> 진홍자오도 역시 사건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다. “나중에는 미워하지도 않았어. 그냥 무서워 줄곧 두려워하기만 했어. 더 이상 두려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210쪽)다는 것을 통해 2·28사건의 피해자였던 진홍자오에게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가 그 사건을 계속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화순 무덤 앞의 작은 붉은 꽃들을 보며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순간부터 그는 희망과 기적을 보는 듯했다.

그의 첫눈에 띈 붉은 빛은,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 주변은 다 흑백인데 그곳에만 불꽃처럼 타오르는 붉은 꽃들이 가득 차 있었다. (……) 그는 이러한 연구에 미친 듯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먹을 꽉 쥐어 가슴 앞에서 문지르고 있었다. (……) 그는 갑자기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붉은 꽃들의 구조가 도대체 왜 돌변한 것인지 아니면 왕허순의 죽음을 둘러싼 기적과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 그의 얼굴에 마치 전쟁이 끝난 후의 평화스러운 표정,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지친 안색이 나타났다 (……) “나는 늘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연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붉은 꽃과 같은 기적을 말아야.”

61) 煙花女子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62) 姜星宇, 앞의 글, 110쪽

他第一眼就望見那一團圍得滿滿的紅光，絢麗得有點詭異。(……) 周遭都是黑白的，只有那團焰火般燒著的紅花。(……) 他開始瘋狂投入這樣的研究。(……) 他情不自禁將左手從口袋裡拉出來，在胸前擺了擺，拳握的緊緊的。(……) 他忽然弄不清楚自己要證明的，究竟是小紅花的結構突變，抑或是整件事，根本就是一個奇蹟，一個圍繞王和順死亡的事件的奇蹟。(……) 他臉上顯露出戰爭結束後的平和，無關輸贏的疲憊……「我總覺得自己還在等待某種奇蹟，像是在煙塵裡生長的紅花什麼的。」(204-206쪽)

진홍자오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기적을 탐구하기 위해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붉은 꽃들에 대해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지식인으로서 한참 동안 줄곧 외면해 왔던 것을 다시 직시한 진홍자오는 결국 반란죄로 잡혀가 옥중에서 죽고 말았다. 여자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혼자서 아버지의 무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홍자오와 여자의 결말은 그러한 시대에서 예견된 운명이고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sup>63)</sup> 말하자면 진홍자오의 죽음과 여자의 기다림은 당시 국민당 정부의 정치적 강경 탄압 상황과 지결된다는 것이다. 독재정권 아래서 2·28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또한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사건의 오류를 반증하는 데 지극히 어렵고 긴 시간을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붉은 꽃’처럼 땅을 뚫고 나올 것임을 작가는 전망하고 있다. 작고 붉은 꽃들은 그 혹독한 시대에 자유와 민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먼지덤불 속에서도 불구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꽃들은 온 힘을 다해 땅을 뚫고 나와 바닥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말은 역시 비극이지만 진홍자오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과 여자도 긍정적으로 삶에 맞서는 것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보인다. 결국 작가는 “사건 피해자의 무덤에 활짝 핀 작은 붉은 꽃으로 정의로운 진리를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하여 마침내 ‘연기 속의 꽃’과 같이 활짝 꽃피울 것<sup>64)</sup>을 고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한 억압에

63) 姜星宇, 앞의 글, 111쪽.

64) 故事以受難者墳上盛開的小紅花，隱喻為正義真理而流的血，終將開出‘煙塵中的花朵’。廖咸浩，「楊照著 吾鄉之魂」，《中國時報》31, 1989, 姜星宇, 앞의 글, 재인용, 111쪽.

순응할 수 없다는 타이완 민중들의 저항과 결심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2·28’을 추념하는 것은 현재의外省인(外省人)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본성인(本省人)이外省인(外省人)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었다. (……) 비민족적 전체 심리상태 그리고 이견(異見)을 존중하지 않는 파쇼적 통치에 우리 모두는 족군(族群)의 구분이 없이 언제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이다.

追念2·28不是要叫現在的外省人爲事件負責,更不是要再激起本省人對外省人的敵意仇恨。(……)面對非民族專制心態,面對不尊重不同意見的法西斯統治,我們沒有群族之分,我們都是隨時可能受害的人民。<sup>65)</sup>

양자오는 또한 본성인과外省인 문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2·28 사건에 관한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데 본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일깨워 준 작가들은 ‘족군(族群)의 슬픔’이라고 규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슬픔은 성적(省籍)의 구분이 없다.”<sup>66)</sup>는 말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양자오는 이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는다. 소설 속 타이완 본성(本省)의 여자와外省(外省)의 진홍자오는 같은 사건 때문에 과거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는 개인의 결말을 바꿀 수는 없었다. 여자와 진홍자오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서로 알아가다 마지막에는 아쉽게도 이별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에 슬픈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작가 양자오에게 2·28사건은 본성인과外省인의 갈등과 투쟁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8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상처는 족군(族群)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2·28사건은 타이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직면해야 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인들은 용감하게 자신들이 젊어져야 할 책임에 부응하여

65) 楊照「過度與衝突——一九四五年～一九四九年台灣」,『臨界點上的思索』, 14-15頁, 陳鈞昂, 앞의 글, 재인용, 44쪽.

66) 李娜, 「在記憶的寂滅與復甦之間——關於臺灣的“二二八”文學」, 『文學評論』5, 2005, 第117頁 .

목소리를 높이고 도전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창작 취지였을 지도 모른다.

#### IV. 4·3소설과 2·28소설의 대비적 고찰과 그 의미

이상에서 제주 4·3소설과 타이완 2·28소설 총 6편을 살폈다. 두 섬의 작품들은 거대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사건이 남긴 상흔과 충격을 작품에서 그려내었다. 6편의 소설 모두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4·3과 2·28의 진실 회복을 위한 나름의 대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6편의 소설은 모두 여성들의 수난을 통해 양 지역의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사건이 남긴 상처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죽음으로 사건을 호소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살아서 현실과 맞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4·3소설과 2·28소설은 주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두 사건으로 인해 양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되었음을 4·3소설과 2·28소설이 보여주고 있다. 「도마칼」의 경우는 마을 주민끼리 서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그렸다. 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죄 없는 이웃을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군정과 무장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시킨 것이다.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과 「덧에 치인 세월」에서는 ‘폭도’와 연루된 사람들을 따돌림 하는 상황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문제가 그려졌다.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에서는 여인이 2·28의 와중에 본성인과 외성인의 싸움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투옥되다가 외성인 남자에 의해 추궁당해 정신분열자가 되었다. 정치범이라는 낙인을 찍힌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파혼을 당했다. 이를 통해서 타이완 지역공동체가 외성인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화(煙花)」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정치범 유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마을 사람들이 늘 여인을 피해 다니곤 했다. 서로 도움을 주면 살아가던 주민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상호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도마칼」에서도 행방불명되었던 작은삼촌이 조총련의 일원으로 나타남으로써 양어머니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민단이 아니라 조총련임은 반공사회였던 1970년대 한국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4·3소설에서 지역공동체의 파괴는 주로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뒹에 치인 세월」에서 주요 인물들에게 해방공간에서 이어지는 4·3 때문에 ‘폭도새끼’ 즉 빨갱이라는 이념적인 굴레가 씌워졌다. 그리고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에서도 반공체제하에 남편은 월북하여 간첩으로 나타났다가 죽임을 당하고 여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다. 이는 제주 지역공동체가 회복되는 데에 반공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4·3의 진상규명 작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붕괴와 관련하여 2·28소설은 반공이데올로기보다는 지역 차별인식을 문제 삼고 있다.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에서는 외성인 즉 외부세력으로 인한 2·28의 피해 양상을 뚜렷하게 그려내었다. ‘삼각턱 남자’로 상징되는 외성인이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본성인)을 과멸과 죽음으로 내운 장본인물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연화(煙花)」에서는 2·28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외성인과 절대로 결혼해선 안 된다고 다짐하는 부분도 나온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2·28사건에 아버지가 죽은 본성인 여자만이 아니라 2·28사건에서 아내가 죽은 외성인 남자 진홍자오(金鴻藻)도 공동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이를 통해 2·28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본성인이든 외성인이든 상관없이 당시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밤 풍금(夜琴)」의 경우는 남편을 잃은 외성인 여성을 중심인물로 삼아 2·28사건은 본성인에게만 주어진 상처가 아니라 당시 타이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아픔임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타이완 지역 구성원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4·3과 2·28로 인해 제주 지역공동체와 타이완 지역공동체가 크게 파괴되었지만, 그에 대한 저항의식은 그 저변에서 꿈틀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저항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밑에서 저항의 몸부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 4·3소설 「도마칼」, 「애국부인 김옥렬 여사 전」, 「뒹에 치인 세월」은 타이완 2·28소설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 「밤 풍금(夜琴)」, 「연화(煙花)」보다 민중들의 저항의식이 좀 더 가시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3이 2·28에 대해 항쟁의 성격이 더 강한 점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와 「도마칼」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쓰는 ‘식칼’을 작품 속 여주인공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결부시키면서 저항의 메시지를 드러내

었다. 이러한 도구는 일상생활의 쓰임에 벗어나면 충격적인 폭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작품은 이러한 도구의 이중적 쓰임을 통해 두 사건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폭력성을 호소한다.<sup>67)</sup>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에서 황쑤에게 식칼은 장밋빛 희망을 주는 충만한 살림의 도구였다가 2·28의 충돌 현장에서 피가 묻는 바람에 모든 것이 파멸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도마칼」에서 식칼은 여인에게 4·3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가축을 잡는 도구였다가 사건의 와중에 정신적 외상을 입어서 ‘미친’ 상태가 된 이후로는 마구 휘두르는 도구가 되었다. 억척스럽게 끊임없이 현실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가 4·3의 폭력성을 고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삼은 소설들은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가족관계를 그려내면서 가족공동체를 문제 삼았다. 이 소설들에는 부부간의 관계, 친척간의 관계, 모자간의 관계 등이 등장했다. 가족이란 한편은 생존수단과 노동력을 생산하는 경제적 단위이고, 다른 한편은 일상적 가족생활 경험에서 개인의 삶의 규범을 만들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규범들을 파악하고 돕는 최소한의 사회 공동체이다.<sup>68)</sup> 소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비롯하여 가족 안에 따르는 개인의 삶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저자의 소설적 초점이 가족의 특성에 놓인 각종 문제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소설에서 정치 비판에 집중할 때, 대부분은 여성의 개인적 경험, 삶을 통해서 사건의 영향이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보편적 서사 실마리의 설정은 여성을 둘러싼 결혼과 가정이다. 여성이 이러한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의 공간 안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여성의 모습과, 가정의 공간을 넘어 소박하지만 나름의 성공을 꿈꾸는 새로운 역할을 지향하는 여성 모습”<sup>69)</sup>도 나타난다. 대부분 이들은 결혼, 가정 등이 정치적 사건과 얽힘으로 인해 기대했던 삶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늘 여성이 정치에 관한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sup>70)</sup>로 볼 수 있다.

「도마칼」에서 하룻밤 행방이 묘연했던 아버지는 무장대와 내통한 것으로 의심

67)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 앞의 글 29-30쪽.

68) 편혜영, 「박완서 가족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0, 1쪽.

69) 임미희, 「가문소설의 '여성 수난 극복 공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12, 130쪽.

70) 黃雨婕, 앞의 글, 94쪽.



받았다. 이에 가족들은 심지어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결국 아버지가 시체로 발견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불신이 날로 심해지고 협력관계도 무너졌다. 그리고 양어머니와 우찬은 다정한 모자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서로 외면해 왔다. 또한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에서는 여인은 월북하다가 간첩으로 나타난 남편 때문에 아들까지 다시 패해를 입을까봐 결국 남편을 신고하여 죽이게 되는 양상을 낳았다. 「덧에 치인 세월」에서는 ‘폭도’로 몰린 남편은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시아주버니 두 명도 모두 죽고 말았다. 여인의 가족이 거의 해체되고만 것이다.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는 여인이 사건 때문에 부모를 연이어 잃고, 오빠들과 올케들은 겨우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결국 여인은 비참하게 철교 위에 생을 마감했다. 「밤 풍금(夜琴)」에서는 사건처리위원회에 참가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큰 두려움에 휩쓸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은 집안에서 나오기 꺼려하고 친척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연화(煙花)」의 경우는 국공내전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남편과 함께 타이완으로 건너왔지만 결국 남편도 행방불명되었다. 여인은 혼자가 되는 신세로,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연화(煙花)」와 「밤 풍금(夜琴)」 그리고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 한 시대의 윤리적 규범이나 가치관의 특징을 드러내거나, 가족 공동체에 얽매어 있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 양상에서 오는 문제(기)들을 보여주었다. 「연화(煙花)」의 경우는 외성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상대하여 몸을 파는 상황이 설정되었다. 이는 여인에게 치욕적이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밤 풍금(夜琴)」에서는 여인이 과거에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또는 가끔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의 여인은 남편과 아들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아들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4·3소설과 2·28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들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빚어진 사건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며 가족 구성원 간의 단결과 소외를 겪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나타냈다.

---

71) 편혜영, 앞의 글, 2쪽.



사회적 혼란기에 수많은 여성은 고된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위에 국가와 민족을 놓으며, 그러한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개인’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이다.<sup>72)</sup> 이 글에서 다룬 4·3소설과 2·28소설은 여성 주인공들이 사건의 참혹한 기억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를 의미 있게 그려내었다.

「도마칼」은 사건이 남긴 상처 때문에 심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수시로 도마칼을 휘두르는 여인의 처절한 삶을 보여주었다.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은 사건의 아픈 기억에 시달리며 힘겹게 나아가다가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딜레마적 상황을 맞는 여인을 내세웠다. 결국 여인은 아들을 위해 모성으로 회귀하여 남편을 고발하고 자신이 자살하는 결말을 통해 현대사의 비극을 고발하고 있다. 오성찬의 「뒹에 치인 세월」의 경우는 여인이 4·3사건으로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잃게 되면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트라우마 속에서도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억척스럽고 절실한 몸부림을 쳤다.

타이완 2·28소설에서도 계엄해제 전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2·28사건이 그녀들에게 남긴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그려내었다. 「황주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에서는 2·28의 와중에 억울하게 투옥되었다가 총살 직전에 석방된 여성의 정신분열 증세가 포착되었다. 결국 여인은 오로지 총살당하면 안된다는 중얼거리기만 하는 ‘미친’ 여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밤 풍금(夜琴)」에서는 국공내전과 2·28로 인해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과거에 기억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두려워해서 늘 혼자 다닌다. 「연화(煙花)」의 경우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외면해 왔다. 여자는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만큼 너무나 참혹했던 그 세월을 잊고 싶다는 것이다. 잊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4·3소설과 2·28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사건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계속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들과 싸우고 있거나, 억척스럽게 삶을 버티면서 현실과 맞서겠다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제주4·3사건과 타이완 2·28사건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공식적 역사에 순응할 수 없다는 메시

72) 최시환, 「현대소설에서의 “가족”」, 『현대소설연구』6, 현대소설학회, 1997, 16쪽.

지를 던지며 두 지역 민중의 내면 심리적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3소설과 2·28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이름 없이 제시된 경우가 많다. 「연화(煙花)」와 「밤 풍금(夜琴)」에서의 여주인공들은 작품 속에서 ‘그녀(她)’, ‘여자(女孩)’로만 지칭된다. 「도마칼」과 「뒷에 치인 세월」의 ‘양어머니’와 ‘그녀’도 이름이 없는 존재이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기에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더 나약한 존재로 인식되기에 그런 이름도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4·3소설과 2·28소설은 부정한 공권력에 의해 거대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제주와 타이완 양 지역 민중의 수난과 저항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 4·3과 달리 2·28소설은 2·28사건 이후부터 이어져 온 타이완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4·3소설에서는 불완전하게나마 ‘4·3사건’을 드러내고 있음에 반해, 세 편의 2·28소설인 경우는 공교롭게도 ‘2·28이라는 단어 표현을 단 한 번도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는 타이완 계엄해제 전에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이 있었지만, 한국보다 더 많은 한계가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8에 대해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철저히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이 타이완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사람들의 2·28사건에 대한 인식은 제한된 속에서만나마 의미 있게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과 타이완 2·28사건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두 사건은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모순, 분단모순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주 4·3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반공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었고, 타이완 2·28은 대륙에서 들어온 국민당정부가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자행한 양민학살 사건이었다. 제주 4·3은 미군정에 의한 외세의 개입이 두드러진 점, 타이완 2·28은 본성인과 외성인의 사이에서 지역 차별인식이 두드러진 점에서 또한 두 사건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4·3소설이든 2·28소설이든 1980년대 중반의 작품 속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독재정권 시기에서 사건에 대한 직접

적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소설에서 구체적·과학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 V. 결론

이상으로 제주 4·3사건과 타이완 2·28사건을 다룬 고시홍의 「도마칼」, 현길언의 「애국부인 김옥렬 여사 전」, 오성찬의 「뒷에 치인 세월」, 린쌍부(林雙不)의 「황추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 리위(李滄)의 「밤 풍금(夜琴)」, 양자오(楊照)의 「연화(煙花)」 여섯 편의 소설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진실회복과 여성 수난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4·3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적 격변기에 일어난 참혹한 죽음과 죽음의 사건 속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동시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비극적 결말을 고찰했다.

「도마칼」에서는 4·3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남편이 조총련모국방문단 일원으로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서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가족공동체 의식이 파괴된 상황에서 여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개처럼 발에 쇠사슬이 묶이게 된다. 이는 4·3이 남긴 상처가 치유되기 커녕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수시로 식칼을 휘두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제주 민중들의 저항을 암시하고 있다.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의 경우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간첩으로 다시 고향 마을에 나타나자 그 부인이 남편을 고발해 죽음이 이르게 하고는 자살하는 비극이 다루어졌다. 4·3사건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파괴됨과 아울러 가족구성원간의 협력관계도 무너졌다. 반공 체제 아래서 여인은 남편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족을 죽이는 양상을 낳고 말았다. 이는 4·3이 사람들의 의식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뒷에 치인 세월」의 경우 집단학살 사건에서 여인의 남편은 ‘폭도’로 취급되어 죽었다. 여인은 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강경탄압 상황을 겪었기에 자식들이 ‘폭도새끼’라는 말을 그 어떤 경우에도 들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예비검속 때에도 도피하지 않았다. ‘폭도’로 몰리는 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나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통해 무고

하게 폭도로 내몰린 제주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2·28소설의 진실 회복 방식을 다루었다. 세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사건이 남긴 정신적·심리적 상처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구원 또는 용서를 통해 삶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는 결혼을 앞둔 19살 시골 여성이 기막히고 억울한 일로 정신적 타격을 입어 인생이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한 20년 후에 달려오는 기차에 맞서 생을 마감했다. 외성인 남자에게 받았던 추궁이 그녀의 비극적 종말을 초래한 것인데, 이는 외성인에 의해 타이완 지역공동체가 침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소설은 주인공처럼 개인의 힘으로 거대한 기차를 막을 수 없지만, 당시 타이완 사회의 거대한 억압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밤 풍금(夜琴)」에서는 여주인공이 국공내전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타이완으로 건너왔지만 2·28을 만나게 되고, 결국 남편이 2·28에서 이어지는 백색테러 시기에 죽어 타지에서 혼자가 된 상황을 다뤘다. 남편의 부재와 당시 공권력에 의해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망각당한 상황 속에서 여인은 사건의 기억에 따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천주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타이완 민중이 과거와 대화하여 치료해 나간다는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연화(煙花)」에서는 여자의 아버지가 사건에서 피살된 후 가족이 해체되고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에게 몸을 팔아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상황이 포착되었다. 공동주인공으로 등장한 여자와 그녀 아버지의 친구는 서로 깊은 사건의 트라우마에 휩쓸린 상황에서 만나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화해하고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타이완 지역의 화합과 더불어 과거의 고통을 극복해 나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식인로서의 부여된 책임과 싸움이 필요하다는 의식도 엿보인다.

제Ⅳ장에서는 4·3소설과 2·28소설에서 나타난 두 사건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4·3소설과 2·28소설로서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첫째, 두 사건으로 인해 제주와 타이완 양 지역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가족들끼리도 협력관계가 무너져 서로 불신의 소용돌이에 휩쓸림으로써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양 지역

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에 4·3소설과 2·28소설이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와 가족공동체 파괴에 관련하여 반공이데올로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4·3소설과 달리 2·28소설은 지역 차별인식을 문제를 삼고 있다.

둘째, 4·3소설과 2·28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이름이 없는 여인이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기에 살았던 수많은 나약한 여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성들의 수난과 희생을 호소하고 있다. 4·3소설과 2·28소설은 정치적·사회적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인들의 강인한 모습은 공식 역사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저항은 소극적이지만, 그것은 당시 독재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4·3과 2·28을 겪은 여성들은 모두 사건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삶의 나락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여성들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 양 지역의 민중들의 삶과 의식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건이 남긴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피해자들의 저항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2·28소설에서는 여성으로 상징되는 민중만이 아니라 지식인의 반성과 싸움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살핀 4·3소설과 2·28소설은 제주와 타이완의 두 사건이 남긴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공권력의 폭력성, 사건 진상 규명,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와 관련된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를 부여한다.

근년 들어 시대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의 것을 잊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이는 각박한 현실의 삶에 치여 과거를 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제주 4·3이나 타이완 2·28은 후세대에게 어찌면 무섭기고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이긴 하지만 양 지역의 공동체가 처절하게 겪었던 과거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지금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과거사인 제주 4·3과 타이완 2·28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특히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세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역사이다. 제주 공동체와 타이완 공동체는 모두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때 향후 새로운 전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

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일 수밖에 없으며, 그와 관련된 문학작품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는 진실을 보여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과거와 대화하고, 그것을 현재에 올바른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글은 비록 작은 논문이기는 하나 제주와 타이완 양 지역의 문화적 교류와 대화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시홍, 「도마칼」,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 오성찬, 「덧에 치인 세월」, 『단추와 허리띠』, 지성문화사, 1988.
- 현길언, 「애국 부인 김옥렬 여사 전-우리들의 어머니」, 『우리시대의 열전』, 문학과 비평사, 1988.
- 李渝, 「夜琴」, 許俊雅 編, 『無語의春天·二二八小說選』, 玉山社, 2003.
- 陽照, 「煙花」, 許俊雅 編, 『無語의春天·二二八小說選』, 玉山社, 2003.
- 林雙不, 「黃素小編年」, 許俊雅 編, 『無語의春天·二二八小說選』, 玉山社, 2003.

### 2. 연구 논저

#### 1) 단행본

-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 엘자 도를랑, 윤지영 옮김, 『자신을 방어하기』, 그린비, 2020.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최말순,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글누림, 2020.
-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창비, 2012.
- 현기영, 『순이 삼촌』, 창비, 2015.
- 李樹峰, 汪文頂 엮음, 『兩岸文化發展與創新: 第四屆兩岸文化發展論壇文集』, 文化藝術, 2017.
- 行政院二二八事件小組, 『二二八事件研究報告』, 時報文化, 1994.



## 2) 논문 · 평론 · 기타

- 고성만, 「경계 위의 과거청산-제주4·3사건과 대만2·28사건 비교사 연구를 위한 시론」, 『濟州島研究』56, 제주학회, 2021.
-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오키나와·타이완·제주 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반(反)폭력의 양상」, 『한민족문화연구』70, 한민족문화학회, 2020.
- 김동윤, 「2·28소설의 번역을 기대하며」, 『한라일보』, 2020.11.23.
- 김은영, 「타이완 2·28의 前兆와 그 실상-소설 <冬夜>, <農村自衛隊>, <台灣島上的血和恨>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76, 중국인문과학, 2020.
- 김인환, 「역사의 상흔」, 고시홍,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 란보조우(藍博洲), 「대만-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42, 역사비평사, 1998.
- 문경수, 「4·3과 제일 제주인 재론(再論): 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4·3과 역사』19, 제주4·3연구소, 2019.
- 쉬즈지아(許志嘉), 「타이완 “2·28사건”의 역사적 진실과 복권[평반(平反)]」, 『기억과 전망』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신정호, 「타이완의 현대사 전개와 2·28문학」, 『人文科學研究』30,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한국동북아논총』23, 한국동북아학회, 2002.
- 양정심, 「제주4·3항쟁과 레드콤플렉스」, 『사총』63, 역사학연구회, 2006.
- 임미희, 「가문소설의 '여성 수난 극복 공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정나이웨이, 「타이완 2·28사건의 재조명 과정」, 『4·3과 역사』18, 제주4·3연구소 2018.
- 조홍선, 「2·28소설(二,二八小說)과 4·3소설(四,三小說)의 서술 비교—「채장혈제(彩妝血祭)」와「땅울림」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31, 한국중문학회, 2005.
- 조홍선, 「二·二八小說과 四·三小說의 기억투쟁—「彩妝血祭」와「땅울림」을 중심으로」, 중국인문학회, 2007.
- 조홍선, 「濟州의 거울로서의 타이완—李昂의「눈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小考

- 』, 『中國文學研究』63, 한국중문학회, 2015.
- 최시한, 「현대소설에서의 “가족”」, 『현대소설연구』6, 현대소설학회, 1997.
- 최영자, 「현길연 소설에 나타난 집단로맨스와 반영적 글쓰기」,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편혜영, 「박완서 가족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0년.
- 蔡志誠, 「歷史記憶·詩性救贖·文化認同—評李渝小說《夜琴》」, 『海天片羽』, 2006.
- 陳鈞昂, 「當代台灣公共知識分子的批判精神」,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2015.
- 黃雨婕, 「政治化敘事的性別化想像」,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2016.
- 蔣興立, 「論李渝小說中的抒情蠶體」,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6.
- 姜星宇, 「國族記憶與傷痕—台灣二二八事件與韓國四三事件小說比較」,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2016.
- 李娜, 「在記憶的寂滅與復甦之間—關於臺灣的“二二八”文學」, 『文學評論』5, 2005.
- 李欣芳, 「228條例補償改賠償 三讀通過」, 『自由時報』, 2007.03.09.
- 邱萬興, 「打破禁忌, 走出2·28的陰影」, 『街頭人生』, 民報, 2017.02.04.

## 中文摘要

### 濟州4·3小說与台湾2·28小說的比較研究

#### — 以1980年代中期作品中的女性苦難形象爲中心 —

方燕飛

二十世紀初，隨着帝國主義的肆虐与席卷由此全世界吹響了列強爭奪殖民地的号角。世界各國頓時戰火四起。在帝國主義列強的逐鹿中不可避免的導致了兩次世界大戰的發生。戰爭不斷加劇、硝烟遍布全球，第一次世界大戰(1914-1918)、第二次世界大戰(1939-1945)，兩次世界大戰的拉開与落幕給世界各國帶來了空前的災難与傷痕。二十世紀中期第二次世界大戰結束之后世界各國都一定程度的陷入‘戰后后遺症’的漩渦当中。同時，東亞區域的現代史也在其歷史洪流中迎來了新的挑戰与改變。

第二次世界大戰結束后韓國(此時的韓國還沒有分裂)也隨之結束了爲時三十六年的日本殖民統治，于1945年8月15日迎來了解放。由于甲午中日戰爭中清政府的敗北不得已將台灣割讓給了日本。第二次世界大戰以后台灣于1945年10月25日正式結束了長達五十年所謂的‘日治時代’或者‘日据時代’重新回歸到了中國祖國的懷抱。但是隨着1948年8月朝鮮南部單獨成立‘大韓民國’，北部單獨成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之后朝鮮就此一分爲二。中國在1946年展開的國共內戰中中國共產党于1949年在內戰中取得勝利之后成立了中華人民共和國，而國民黨因爲失利則撤退到了台灣。在這種動蕩不安的歷史潮流中濟州島在1948年4月3日爆發了4·3事件，台灣地區也在相似的時間內于1947年爆發了2·28事件。本文對於在相似的時代背景以及相似的時間段發生的這兩起事件通過文學的角度對在邁向現代化社會的發展進程中兩地區人民共同的‘苦難史’進行還原。

本文採取了比較文學的研究方法作爲寫作的主線，各選取了三篇1980年代中期濟州島和台灣兩地區当地作家分別以4·3事件和2·28事件爲背景且皆以女性作爲敘事主

体創作的小說作為本文的研究對象。濟州島4·3小說有高時洪的《剝刀》，玄吉彥的《愛國夫人金玉烈女士傳》，吳成贊的《被羈絆的歲月》；台灣2·28小說有林双不的《黃素小編年》，李渝的《夜琴》，楊照的《烟花》。通過這六篇小說結合時代背景以及作者的生活經歷從文學的角度出發分析兩起事件以及小說本身的相似、相異之處分別對兩起事件的真相進行了還原工作。以及對在公權力橫行的浪潮下兩地區共同体意識、家庭共同体意識的破壞以及兩起事件所帶來的后遺症結合女性的苦難生活進行了分析研究。以期不在發生相同的歷史悲劇。

## 부록: 2·28소설 한국어 번역

### 1. 린쌍부(林雙不)의 「황쑤의 작은 연대기(黃素小編年)」

1947년 어느 이른 봄날의 아침 따뜻한 햇살이 작은 마을을 비칠 때, 마을 남쪽의 한 토담집에 사는 19세의 소녀 황쑤(黃素)가 일어났다. 황쑤는 평소와 달리 흥분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날 어머니와 같이 20킬로미터 떨어진 시내에 가서 혼수준비를 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름만 지나면 그녀는 곧 신부가 될 것이다. 혼사는 어머니가 정한 것인데, 신랑은 이웃 마을의 왕진하이(王金海)이다. 사탕수수를 수확할 때 황쑤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든든하고 믿음직한 소년이었다.

황쑤는 평상시처럼 전날 저녁에 다 먹지 못한 고구마를 먼저 나무 사료통에 넣고 손으로 저어서 쌀껍데기와 골고루 섞은 다음에 사료통을 들고 마당의 끝을 향해 걸어갔다. 거위와 오리가 껍껍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돼지를 먹이려고 부엌 귀퉁이에서 고구마 잎 한 묶음을 꺼내 칼로 잘게 다져 음식 찌꺼기와 잘 섞어 돼지우리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빗자루로 마당을 깨끗이 청소했다. 집안일이 다 끝난 다음 그녀는 세수하고서 외출할 때만 입는 흰색 바탕에 푸른색 꽃무늬가 달린 긴팔 블라우스를 갈아입고 거실 벽에 걸린 베이지색 광목 천가방을 챙겨 들고 처마 밑에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쑤는 세 오빠들과 세 올케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따스한 봄 아침에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면서, 즐거운 종달새처럼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다. 행복한 마음이 남풍으로 인해 한껏 부풀은 듯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의 부끄러움과 신중함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말았다. 오빠와 올케들에게 들키면 그녀를 놀릴 것이다. 황쑤의 혼사가 정해진 이후부터 그들은 항상 나이가 어린 여동생을 장난스레 놀리곤 했다.

초봄의 햇살은 아름답고 반짝이는 그물처럼 따뜻하게 시내의 집들과 길거리

내리쬐이고 있었다. 황쭈는 어머니의 뒤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상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에 비친 물건들을 모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모녀는 주변 상점을 몇 개 돌아보고 이불 하나와 천을 세 개 샀다. 가게 직원이 물건을 깔끔하게 포장해서 황쭈에게 건네주었다. 황쭈는 물건을 받아서 광목천 가방에 넣고 오른손으로 가방을 짊 잡았다. 그녀는 천가방 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득 담아 두고 싶었고, 동시에 거기에 다가올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憧憬)도 가득 채워 넣었다.

모녀가 잡화점을 지나는데 상점 앞에 죽 늘어져 놓인 식칼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 빛났다. 어머니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이 날카로운지 확인했고 고개를 돌려 딸에게 말했다. “아껴 써라. 이 칼은 십여 년을 쓸 수 있다.” 황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십여 년 후 자신에게 아이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자 부끄러워져서 머리를 숙여 식칼을 받아 광목천 가방에 넣었다.

갑자기 길가가 소란스러워졌다. 황쭈는 뒤를 돌아보니 길거리 모퉁이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르르 몰려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황쭈는 그제야 시끄러운 외침 속에서 몇 개의 아주 높은 소리를 들었다. ‘촌뜨기새끼(阿山仔)’, ‘육지새끼(芋仔)’, ‘돼지새끼(猪仔)’와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황쭈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사람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서야 황쭈는 그들이 한 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한쪽은 쫓는 무리고 다른 한쪽은 쫓기는 무리였다. 사람들이 나무 방망이, 벽돌, 또는 깨진 술병을 들고 공격하거나 반격하고 있었다. 밝은 봄의 햇살은 선혈이 낭자한 얼굴을 비추었다.

군중이 싸우는 곳에 끼어 본 적이 없는 황쭈는 갑자기 밀려드는 인파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자, 두려움과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인파가 갑자기 바닷물처럼 몰려와 황쭈를 휩쓰는 바람에 어머니의 옷자락조차도 놓치고 말았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 황쭈를 놀라게 했다. 게다가 어머니가 곁에 없어서 황쭈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인파에 휘말린 그녀는 소란이 멈추기를 바라며 고개를 돌려서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황쭈는 거친 홍수에 밀

려서 갈대처럼 떠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공중에 떠밀리며, 베이지색의 광목천 가방도 그녀의 오른손에서 흔들리기도 했다. 싸움이 커지면서 황쭈의 얼굴까지 피가 튀어 흰 바탕에 푸른색 옷에도 피가 묻자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목메어 울고 있었는데 등을 두 번이나 세차게 맞아 황쭈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시신 위에 쓰러졌다. 옷이 빨개졌을 뿐만 아니라 가방도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 사람들이 점점 골목으로 흩어졌다. 황쭈가 일어났을 때 앞에 삼각턱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광목천 가방을 빼앗고 세계 뺨을 때렸다. 제복을 입은 몇 명의 사람이 달려와 그녀를 길옆에 세워 둔 트럭에 실어 끌고 갔다. 트럭 안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 후 매일매일 누군가가 황쭈를 심문했다. 대부분은 삼각턱 남자였다.

“사람 죽였지? 어? 안 그럼 왜 식칼을 들고 있어? 식칼에 왜 피가 묻었어? 누가 너한테 죽이라고 시켰나? 몇 명을 죽였어? 타이베이(臺北)에 갔다 왔지? 다오칭(大稻埕)에도 갔다 왔지? 솔직히 말을 안 해? 다른 사람이 다 말했어, 너는 왜 식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지? 말 해! 빨리 말해!”

남자의 표정이 차가웠다. 황쭈는 그 표정만 봐도 온몸이 떨려 마치 겨울 아침에 얼음물을 밟은 것처럼 등골까지 오싹해졌다. 그의 타이완 말투는 황쭈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이상했다. 그리고 그의 질문도 이상했다. 그의 질문에 황쭈가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 이름이 많이 있었다. 남자의 말투가 매우 사나웠고, 황쭈에게는 19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거칠게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멍하게 있었다. 우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

1948년 초에 어느 날, 남자가 감방에 들어와 차가운 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나와서 너는 사형 판정을 받았다.”

“뭐라고요……” 황쭈는 벼락에 맞은 듯 입을 딱 벌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마디로 하면 너는 총살이다.”

남자가 언제 떠났는지 황쭈는 전혀 몰랐다. 시간은 점차 흘러 날이 어두워지고, 또 깊어지고, 또 어두워지며, 그녀는 녹초가 되어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퍼즐처럼 맞춰질 수 없는 화면들이 황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

다. 십여 년을 쓸 수 있는 식칼, 수확 철에 만났던 왕진하이의 모습, 어머니, 껍  
껍거리는 거위와 오리, 그물 같은 봄날의 햇살, 돼지, 광목천 가방, 오빠와 올케  
언니들, 아버지 그리고 작은 마을 남서쪽에 있는 토담집,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나타났다.

“아!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기 싫어! 억울해! 나는 결혼  
할 거야! 나는 농사도 지을 거야!”

“총살을 당하면 절대 안 돼.”

황쭈는 처량하게 울부짖으며 며칠 동안 계속 소리를 외쳤다. 하지만 그녀에게  
대답하는 것은 감방의 다른 슬픈 울부짖음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세 명의 제복  
을 입은 사람이 감방에 들어와 황쭈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우리가 너를 인도하겠다.”

세 사람이 황쭈를 이끌고 광활한 처형장에 세웠다. 흐릿한 하늘 아래 멀리서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마치 유령과 같았다. 세 사람이 그녀를 석탄재 깔린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

“준비.”

황쭈는 뉘이 나간 듯, 오직 석탄재가 무릎을 찌르는 것만 느꼈다.

“조준.”

그 순간에, 황쭈는 먼 하늘을 보았다. 어느 여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  
었다. 여자의 머리 위에 따뜻한 노란 빛이 둘러싸이고, 마치 집에서 모시는 관세  
음보살처럼 보였다. 그녀의 의식이 약간 회복해지자,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자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황쭈? 내 말 들려? 넌 무죄 판결로 바뀌었다. 바로 집으로 보내주겠다.”

황쭈는 가슴이 화끈거리는 것이 마치 총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엎드렸다. 석탄재가 입에 가득 차 있고, 제복을 입  
은 사람이 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리고 보니 그녀의 바지가 다 젖었고 똥을 찐 것이었다. 누구든 황쭈에게 무언가  
를 알려 주려고 해도, 황쭈는 듣지 못하고 단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늦봄에 황쭈는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녀를 맞이한 것은 망가진 집이



었다. 아버지는 황쭈가 실종된 4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알아보다가 중풍으로 쓰러졌다. 오빠와 올케언니들도 웃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거위도 껍뻍거리는 소리를 잃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왕진하이의 아버지는 황쭈의 어머니 문병을 왔다.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자식들의 혼사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황쭈가 실성을 했나 봐요.”

“실성이 아니에요.” 황쭈의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왕진하이의 아버지는 무릎과 얼굴을 만작거리며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저도 황쭈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혼사는 취소해야 해요.”

“왜요?”

“진하이는 정치범과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쪽은 분명히 개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왕진하이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의 입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황쭈의 어머니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황쭈는 전혀 몰랐다. 작은 마을로 다시 돌아온 그녀에게는 유일한 일은 바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가끔 황쭈가 밤에도 뛰쳐나가 타이완 바다가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자 오빠와 올케언니들은 그녀가 다른 집 아이를 놀라게 할까 봐 그녀를 소양강 옆에 있는 빨감 창고에 가두었다. 한밤중에 그녀가 처량하게 울부짖고, 또 울부짖는다.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1959년 겨울, 황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 후에 오빠와 올케언니들은 황쭈를 돌보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다. 황쭈가 밖으로 나가도 가족들은 급하게 찾지 않았고 항상 착한 마을 이웃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소변을 처리할 줄 모르고, 옷을 깔끔하게 입을 줄 모르고, 머리를 빗을 줄 모르며, 점점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미친 여자가 되고 말았다.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고 돌을 던져 욕도 하기도 했다.

1967년 여름, 서북 쪽에 비가 막 내린 오후에 황쑤가 빨감 창고의 문을 열어 집을 떠나, 작은 마을을 떠나 시내로 향했다. 두 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황쑤는 철도를 따라 어느 기차 플랫폼에 들어가 남쪽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 올라탔다. 차장이 검표할 때 황쑤는 표가 없었다. 단지 끊임없이 차장에게 중얼거리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난 총살을 당하면 안 돼.”

기차가 멈추자마자 차장은 그녀를 쫓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으로 가는 일반 기차가 역에 들어와 황쑤는 다시 기어올라 기차를 탔다. 역을 몇 개 지나지 못하고 그녀는 다시 쫓겨났다. 황쑤는 플랫폼의 기둥 옆에 쪼그리고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황쑤는 플랫폼에서 내려와 철도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가다가 긴 철교 안쪽에 올라갔다. 황쑤는 한걸음에 침목(枕木)을 하나씩 차분하게 건너가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급한 기적 소리와 귀를 찌르는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뒤로 돌아보니 기차가 달려왔다. 하지만 황쑤는 철교 위에서 있기만 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 2. 리위(李滄) 「밤 풍금(夜琴)」

어느 날, 짙은 안개가 끼었다. 향아리 뚜껑에 촘촘한 물방울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 주변에 민달팽이가 남긴 지그재그 흔적이 있었다. 모과나무 잎사귀의 그림자는 위로 향해 들고 있는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물과 목젓은 데굴데굴 소리를 내어 위아래로 오가고 있었다.

신부(神父)는 수건으로 입가의 치약 거품을 닦고 있었는데 뒤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들려와 대나무 문이 열렸다.

단정하고 말쑥한 여인이 문을 열면서 들어왔다. 북방인(北方人)이었다. 8월에도 어떻게든 타지 않고 넓은 하얀 얼굴 외에 그 여인에게는 북방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베이지색 바탕에 꽃무늬 반팔 티와 청색 긴 바지를 입고, 한 손은 분홍색 패랭이꽃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 문을 닫으면서 아침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가 웃으면서 옆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성당 벽시계를 통해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도 아직 이르고, 빨리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수건을 어깨에 올리고 향아리 뚜껑에 있는 세면도구들을 모두 손에 모아, 발가락을 나막신에 바짝 끼운 채 계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녀는 빗자루, 쓰레받기, 솔, 걸레를 모두 대나무 우릿간에서 꺼내고 평상시처럼 향아리에서 물을 퍼냈다. 먼저 담벼락 모퉁이에 갖다 놓고 석류와 장청(長靑)의 언저리에서 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물통을 방 앞의 돌판길 옆에 갖다 놓았다.

신부가 책을 옮겨 서랍을 열고 이불과 베개를 뒤져 이틀 전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검은 테두리를 안경을 찾았다. 그는 책상의 신문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물통을 들고 뒤에 따라서 함께 방에 들어왔다. 물통을 방 안에 놓고 손을 시원한 물에 담그자 손가락 사이에 반짝이는 물방울이 가득 묻었다. 손이 앞으로 흔들려 땅바닥에 떨어져 이슬이 되었다.

신부가 작은 의자를 모과나무의 그늘 아래로 갖다 놓고, 안경을 끼고 앉아서 신문지를 무릎 위에 평평하게 펼쳐 냈다.

그녀는 다리를 굽혀 한 손은 침대의 모서리를 잡고 검은 구두와 긴 고무신 한 켤레를 침대 밑에서 꺼낸 후 빗자루를 맨 끝의 모퉁이까지 내밀었다.

일사귀 그림자 밖의 아침 햇살에 빨간 머리가 더부룩하게 보였다. 신부의 고향인 아일랜드는 또 다른 북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가 베개를 잡고 힘껏 털자 나팔꽃의 가운데에서 한 움큼 빨간 곱슬머리가 떨어져 나왔다.

모과나무는 꽃은 활짝 피곤 했지만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줄무늬 파자마의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었다. 기내 영자신문은 엄청 얇고 잉크가 반대쪽까지 스며들었다. 손수건을 펼쳐 코를 닦았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몸을 살짝 앞으로 일으켜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십여 일정도 지났어도 신문을 잡은 손이 까매졌다.

신부는 항상 다시 손을 깨끗이 씻고 옷 옆에다가 손바닥에 있는 물을 다 닦고서 금색 글자를 새긴 책을 열었다.

“그들이 길에서 반드시 음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오물을 깨끗이 씻어낸 고처(高處)에 반드시 음식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굶주림도 없고 갈증도 없을 것이리라. 무더운 여름날에 반드시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겨 도와준 자는 반드시 그들을 샘물 옆에까지 인도할 것이다.”

누르스름한 책갈피는 오래된 나무와 비슷한 향기가 났다. 신부는 비로소 6일 넘어서야 느끼한 느낌에서 벗어나 조금씩 시원해진 것 같았다.

신부는 나뭇잎 그늘 아래서 다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이번에 조심히 안경을 주머니에 넣어 신문지를 원래 모양대로 접고 동그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성당 쪽으로 걸어갔다. 성당 안에 죽 널려져 있는 나무 창문들의 밑부분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 들어와 성상(聖像)의 먼지를 털어냈다.

시든 꽃을 갖다 버리고 생생한 패랭이꽃을 꽃병에 꽂아 놓고 방문 앞에 성수반의 물도 바뀌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강단에 있는 풍금 앞에 앉을 때는 햇빛이 이미 조용히 시트의 틈을 뚫어 푸근한 빛깔이 부드럽게 덮개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수건으로 계속 풍금을 닦고 날아오는 먼지를 없애려고 입으로 바람을 불기도 했다. 검은 옷나무 덮개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40살 넘는 여인의 얼굴이었다. 깔끔하게 다듬어 덮개가 어두워서 주름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덮개를 열고 천으로 검지를 감싸서 순서대로 검은색과 하얀색 건반을

문질렀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갈색과 고동색 무늬에 쌓인 먼지를 닦았다. 그것은 풍금 뒤의 꽃무늬 병풍이었다. 녹나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빛나는 모습을 드러냈다.

병풍 뒤쪽에 커다란 물건이 암녹색 장막에 덮여 온 담벼락을 차지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라서 첫날에는 만지지 않았다. 닦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는 당부에 따라 십자가, 성상(聖像), 성배(聖杯), 성촉(聖燭)과 일체라고 생각하여 멀리만 서 바라보았다.

신부는 검은색 가운과 레이스가 달린 브라우스를 갈아입고 금색 글자가 새겨진 두꺼운 책을 거드랑이 밑에 끼고 대문을 열어 직접 오늘의 첫 번째 교우를 마중하러 나왔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모두 대나무 우릿간에 갖다 놓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를 추어올리고 가장 크고 울창한 모과나무를 향해 발걸음 움직였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은 머리로 드리워져 있었다. 신부가 천천히 손을 흔들어 하얀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 앞에 성호(聖號)를 그리고 있었다. 몸을 구부려 방석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머리를 숙였다. 디테론 서츠 앞에다 성호를 그렸다.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바람이 다시 나무 창문 밑에서 들어와 성경(聖經)의 책갈피를 넘기고 있었다.

초록색 창틀, 초록색 담벼락이었다. 짙은 햇빛이 플라스틱 시트에서 새어 들어왔다. 신부(神父)가 돌아서서 피 흘리는 예수를 향해 초록색 불빛 속에서 글라스 잔을 들었다.

갈색 머리였다. 아일랜드 들판이었다. 하얀 꽃무늬 테이블 커버의 자락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모과나무의 잎사귀가 얼굴을 만작거렸다.

중국의 절은 왜 항상 그렇게 어둡고 더러운 건가.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둥 밑의 남포등에 불을 붙이자 희뿌연 연기가 강단의 근처에 자욱해 복도의 모습들이 모두 흐릿해졌다.

“나의 교인(敎人)들, 나의 교구(敎區), 나의 조국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올 내일의 삶을 기대합니다. 노래 소리가 넘친 수정(水晶) 바다 위에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소리가 박달나무의 향기에 섞여 그녀 쪽으로 날아왔다. 어느 여자아이의 목청이 유난히 높았다. 기도가 끝났고 사람들은 벤치에서 일어서서 가지런히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복도에 무릎을 구부린 채 십자를 그리고 있었다. 대문 앞의 성수반에 담긴 물을 손가락에 묻혀 이마를 찍는다. 헌금함에다 돈을 넣었다. 꿇기지 않은 풍금 연주 속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

신부가 문을 닫고 그녀에게 다음 주도 같이 예배를 하자고 권유를 했다. “설사 뒤쪽 구석에 앉더라도 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망설일 때, 신부가 얇은 책을 하나 그녀의 손 위에 놓았다. 연한 파란색 앞표지에 반짝이는 촛불 그림이었다.

“예배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이에요.” 신부가 말했다.

“좀 바빠요.” 그녀가 미안하게 말했다.

“그럼 일요일에 미사가 끝난 후에 참석해도 돼요” 신부가 다시 제안했다.

‘일요일이니까 늦게 문 열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두렵긴 하네.’ 그녀가 생각에 잠겼다.

시장 노점을 지날 때 그녀가 마음을 먹고 자신을 위해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을 하나 샀다.

신부는 그녀에게 사람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의자를 앞으로 당기라고 했다. 그녀가 머리를 숙여 좌우에서 날아온 사근사근한 눈빛 속에서 신부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지금 자신의 발이 예쁜 샌들과 같은 자리에 놓여있었다.

총 다섯 명이었다. 부근 대학교의 여학생들이고, 그중 한 명은 늘 지각해 그럴 때마다 얼굴이 항상 빨개졌다. 하지만 신부의 목소리는 늘 한결같고 다급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은혜 앞에서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발을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으며, 그녀의 차례가 오면 진지하게 신부의 말을 듣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으며 대답했다.

가게 문 열 시간이 부족할까 봐, 또는 사장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녀는 다시 물러났다.

그녀는 파란 표지인 작은 책을 상의 안쪽 주머니의 넣고 울타리 문을 닫아 나왔다. 느슨한 햇빛이 골목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날씨가 좀 더워졌다.

그녀는 첫 번째 단추를 풀고 양손으로 가마솥을 들었다. 미지근한 물을 밀가루에 부었다. 일요일 오후에는 사람이 평상시보다 많았다. 사장님은 가게를 그녀에게 맡기고, 아내와 옥탑방에서 마작(麻將) 게임을 하곤 했다.

양손은 긴 나무 손가락을 꼭 잡고 힘차게 면 반죽을 하고 있다. 작은 면 반죽 덩어리를 가마솥 모서리에 평평하게 눌러서 찰기를 확인했다. 책 귀퉁이 부분이 오가는 동작 때문에 갈비뼈를 찌르기도 했다. 신념의 힘은 우리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단다. 신부가 한 말을 떠올렸다. 면 반죽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다음에 면 덩어리 위를 젖은 천으로 덮어두고 대야와 청경채를 들었다.

청경채를 씻은 물이 바닥에 튀겨 금방 자갈길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젖은 손가락으로 앞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추어올리고 시큰시큰하고 저린 허리를 살짝 만작거리고 있었다.

9월의 수원로는 끝에서 서늘함이 흘러나왔다.

행인이 없었고 햇빛이 점차 항구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전히 단순하고 외로운 외진 길가였다. 얼마 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차량 때문에 갈아진 길에 보수 공사를 했다. 걸어 다닐 때 신발 밑바닥도 비틀지 않고 돌맹이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문턱을 넘어 손에 들고 있는 대야를 찬장에 갖다 놓고 허리를 굽혀 화로의 뚜껑을 열었다.

물은 부글거리며 뜨거워졌다. 끓는다. 그녀가 불을 줄이자 가는 거품이 모락모락 올랐다. 손등으로 이마의 구슬땀을 닦았다.

산초, 팔각 그리고 소고기의 향기는 점점 좁은 공간에 자욱했다.

그녀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릴 때 찝찝한 느낌이 없도록 행주를 짜서 다시 한번 깨끗이 테이블을 닦았다. 몇 명 단골손님밖에 없었다. 기숙사에 사는 몇 명 남자 학생, 늘 딸이랑 같이 와서 포장해 달라는 중년 교수, 그리고 젊은 맛벌이 부부뿐이었다.

가마솥의 고기를 좀 더 삶아야 하는데 교수가 쫄깃한 수육을 좋아하기 때문이

었다. 모두 예의가 바른 손님이라서 말투는 매우 나긋나긋하다.

“만두 하나 드릴까요? 선생님”, “야채 볶음도 하나 드릴까요?”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를 손님한테 권유했다. 쪽파를 면 위에 뿌리고 뜨거운 국물을 한술 듬뿍 넣고 그릇 옆에 묻은 국물을 깨끗이 닦고 웃으며 손님에게 갖다 드렸다.

‘만약에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생각했다.

햇살은 느릿하게 문 앞으로 다가와 직사각형 문틀을 통해서 가느다란 빛을 쏟아내려 물기 속에서 반짝거렸다. 남학생이 뽀글뽀글한 스웨터와 앞에 놓인 국물의 김 속에서도 아른거리고 있었다. 남학생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놓았다. 햇빛은 후루루 불어 급히 면을 빨아들이는 그의 옆얼굴의 섬세한 솜털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책 페이지를 한 장을 넘기면서 위층에서 마작(麻將)을 뒤섞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물을 마시려고 물 한 잔을 따랐다. 가느다란 햇빛은 기울어져 곧 저쪽 테이블 모서리에서 사라질 지경이었다. 달리는 차들이 일으킨 먼지가 가게로 들어와 햇빛 속에서 해매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날씨가 쌀쌀해졌다. 그녀는 컵을 들어 물을 한 입을 마시고 일어나서 천장 불은 비틀어 켰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창문 열 개, 고상(苦像) 14개를 그리고 녹색 로비를 지나 시선이 모과 나무 뒤에 집중하고 있었다. 신부가 보충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야간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다.

그녀만 왔다. 가게 영업이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 아직 마르지 않은 아스팔트 길과 양쪽에 새로 생긴 플래시 가로등 그리고 텅 비어 있는 버스정류장과 유리 진열창에 환하게 웃는 여자 학생 사진을 진열해 놓은 사진관을 지나 비탈길에서 꺾어 온주(溫州) 거리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과 담벼락 뒤편에서 이어지는 나지막한 마작 소리는 그녀의 걸음을 따라서 자갈길에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 양쪽 처마 끝의 등불이 대나무 등롱(燈籠) 안에서 깜박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이 급해졌다. 고무창 신발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났다.

등불 아래서 책 20쪽을 펼쳤다.



“자신의 앞날을 포기하지 말고, 초성(超性)적 생명을 잃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자신의 과거들을 배신하지 말아라.”

45도 등불 아래서 속삭임이 점차 희미해지고 빨간색 속눈썹도 아래로 수그러졌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서 그의 틀니를 고정하는 선까지 보였다.

물컵에 꺾인 두 송이 팽랭이꽃이 담겨 있어 꽃잎 그림자가 신부 움직이는 손가락 사이로 드리워져 있었다. 검은색 가운 소매에서 은은한 오래된 나무 향기가 날아왔다.

찬송가가 끝난 다음에 연필을 책갈피 꽂아놓고 안경을 벗어 눈썹을 올려서 맑은 밤색 눈동자를 보였다.

“잠깐만요.” 그녀에게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실내가 매우 고요했다. 벽시계만 짹짹 돌아가고 있었다.

노르스름한 등불 속에 팽랭이꽃이 점점 빨개졌다. 그녀가 바르게 테이블 옆에 앉자 화사한 꽃들의 모습이 풀풀 얼굴에 다가왔다. 완두 새싹 문양은 하얀 베개에 펼쳐져 있어 즐기는 꼬뽕꼬뽕 내뿜어 베개에서 내려와 매트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테이블 위까지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열 손가락을 잡고 주먹을 쥐었다.

향기가 더욱 진해졌다. 그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갈비뼈가 테이블 모서리에 닿을 수 있도록 몸을 기울였다.

신부가 웃으면서 방문 앞에 나타나 그녀에게 한 손을 내밀어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신부는 그녀가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방으로 통하는 문을 크게 열었다.

검은 음료수를 담은 도자기 컵이 두 개 있었다.

신부가 그녀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신부가 작은 병을 열어 자신의 코 밑에 대고 깊이 한 번 냄새를 맡고 컵에 무언가를 몇 방울씩 넣자마자 실내에 갑자기 술의 향기가 가득 찼다.

신부가 구석의 냉장고에서 통조림을 하나 꺼냈다. 손가락을 들고 뒤집었다. 통

조림을 기울여 뒤집은 손가락을 통해서 천천히 컵에 부었다.

검은 음료 위에 하얀 크림이 떠올라왔다.

신부가 도자기 컵을 그녀 앞에 내밀어 놓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신부의 북돋우는 기대를 담긴 미소 속에 컵을 들어 비로소 전에 맡았던 기이한 향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후 신부가 식지와 증지로 천천히 테이블 가운데의 불그레한 체크무늬 린넨을 훑었다. 하얀 가루를 듬뿍 묻힌 동그란 빵들이 있었다.

그녀는 더욱 신념의 힘을 믿는다. 그녀는 배추와 고기를 다지면서 묵묵히 지난 주에 배웠던 새 구절을 암기하고 있었다.

저번에 신부는 건포도가 들어있는 빵을 썰어 건네줄 때 크리스마스 즈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며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는 오히려 조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성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어떻게 톱니칼로 빵을 끌고루 자르는지, 어떻게 슈크림을 흘려지지 않게 음료에 얹는지, 어떻게 차가운 슈크림 밑에 술을 섞은 따뜻한 커피를 만드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밤에 비가 올 때 그녀는 큰 우산을 쓰고 더러워진 빗물 거품을 밟아 걸어 다니곤 했다. 가는 빗줄기가 기울어져 뻗어 나온 처마에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울타리 뒤쪽의 등불이 깜박거리고 있었다.

신부는 맑은 날씨이면 검은 구두를 신고 중고 필립스 자전거를 탔는데, 비가 오면 긴 고무창 신발을 신어 여성용 꽃무늬 우산을 쓰고 경신문교원(耕華文敎院에)73) 가서 편지, 소포, 잡지 그리고 조국에서 온 기내 신문을 받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가는 것이었다.

신부가 그녀에게 십자를 박은 하늘색 구슬 팔찌를 챙겨 주었고, 어느 밤에 7개 성사(聖事)를 읽었는데, 그날따라 달은 유난히 커다랗게 보였다. 신부가 위쪽의

---

73) 역주: 1963년 성립하여 타이베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 받기 위해서 발길이 잦아진 곳이다. 오늘날, 경신문교원에서 종교,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불은 비틀어 끄고 협탁에만 조명용 작은 등불만 남겨 두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신부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가운데서 나온 나무 향기를 따라 문밖으로 나갔다. 반짝이는 물결 같은 휘영청 달빛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적막한 정원에 아무도 없었다. 지나갈 고양이와 쥐도 없었다. 소곤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발걸음 소리만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뚝뚝 자갈길을 밟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걸음 소리를 낮추었다. 한 사람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날씨가 추워졌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쇠붙이를 들추는 손가락 사이에 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감싸서 달빛이 그녀의 가슴팍을 통해 열쇠에 비출 수 있도록 몸을 살짝 돌렸다.

신부가 긴 열쇠를 하나 꺼내 한참 들여보다가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쇠붙이가 도는 소리가 났다.

말린 꽃의 향기였다. 나무 벤치들이 희미한 초록빛 속에서 쪽 늘어 놓여있었다.

신부는 옷자락을 젓혀 강단에 올라가 벽등을 키고 병풍 옆을 향했다. 팔은 옆모서리 부분을 잡아들어 옆으로 밀어 놓았다. 신부가 몸을 되돌려 허리를 구부려 풍금 의자도 저쪽 자리에 옮겨 놓았다.

그는 정연히 나지막한 의자에 놓인 옷의 주름을 차근차근 펴내고 양손은 위로 올려 축복하는 자세로 장막을 치켜올렸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치형 문틀은 반짝거리 빛나고 있어 한 줄기 한 줄기 죽 늘려져 마치 은색 날개처럼 보였다. 달빛은 시트를 통해서 풍금에 내려쬐이고 있었다.

그녀를 등지고 선 신부의 빨간 곱슬머리가 훑날리고 하얀 이너 별룬 셔츠의 소매도 훑날리고 있었다. 풍금 연주 소리는 마치 샘물의 격류가 현을 스치고 물방울은 손가락에 터져 크고 작은 구슬들이 옥쟁반에서 굴러가는 소리와 같았다.

시간이 갑자기 멈춰진 것 같았다. 샘물이 그녀의 머리와 가슴팍 그리고 등에 튀어 마음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북방의 바람이 어두워진 거실에서 스쳐 가고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다. 촛불 모

양의 등불은 흔들거리며 그림자도 따라서 같이 흔들거렸다.

풍금의 소리는 졸졸 흘렀다. 예곡 부분 운지법의 연습이었다. 멜로디가 감미롭고 가벼운 노래라서 마음에 들었다. 어느 맑은 4월 어느 날 큰 배가 엘비스도 항구를 지나갔다.

“아리아리오.”

“외할머니가 즐겁게 불렀던 노래예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외할머니와 비슷한 따뜻하고 가라앉은 목소리에 그의 외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였다. 밤색 머리와 얼굴, 투명한 눈동자, 두툼한 광대뼈와 턱 그리고 땡땡막한 몸집이었다.

그녀는 여념이 없이 자신의 생각에 빠졌다. 큰 배가 멀리 있는 항구를 스쳐갔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리아리오.”

가족사진은 갑작스레 시트의 희미한 초록빛 속에서 나타났다. 가족사진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남편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도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가 어른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남편을 본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금테 안경을 쓰고 먼 서재에 앉아 있었다. 격자 창문의 그림자가 테이블 밑에 떨어져 죽 늘어져 있었다.

청색 두루마기를 입고 검은 중절모를 쓰고 옷자락을 젖혀 살색 다리 털이 보였다. 수레에 올라타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 처마 밑에 서 있는 그네들을 바라보았다.

당나귀가 울부짖어 수레바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앞으로 굴러갔다. 눈밭에서 복잡한 반원형 흔적만 남겼다. 아낙네가 수레 채를 잡고 같이 앞으로 잡고 갔다. 바퀴 흔적 옆에 전족한 발자국이 닥 찍혀 있었다.

방울소리가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따뜻해진 날씨에 알파란 눈밭의 발자국이 순간에 밑에서 검은 흙탕물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었다.

손가락을 멈추고 같은 현을 반복해서 틀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계속 같은 현을 반복하고 있었다. 신부가 일어나서 온몸이 풍금 덮개 위에 엎드려 머리 위에 있는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은 중절모를 누르고 모자챙의 밑에서 그네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기모 코트 입은 채 비틀거리려 수레에 올라갔다. 옷자락이 수레 밖에 걸려 있었다. 땅딸막한 몸집이 순식간에 방식에 파묻혀 갑자기 사라졌다.

베에이핑(北平)에 갔다. 난징(南京)에 갔다. 상하이(上海)에 갔다. 한커우(漢口)에 갔다.

어머니가 손님들을 보낸 후에 묵직한 대문을 닫고 혼자서 주방에 들어갔다. 알따란 눈이 쌓인 마당에 두줄 발자국이 쓸쓸해 보였다.

방울소리가 희뿌연 골목에서 멀어지며 중절모를 쓴 뒷모습도 점차 사라졌다.

초록빛 속에 그녀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웃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어 여전히 자상하고 동그란 얼굴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귀를 기울여 “아리아이오.” “아리오.”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런 멜로디야 맞는데’,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어떤 멜로디이든 괜찮아.’라고 그녀가 생각했다.

초록빛과 어두운 대청에서 큰 배가 지장 없이 출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았다. 전쟁이 시작됐다.

초록 하늘에 검은 헬기가 지나갔다. 그녀는 참죽나무 사이에 이불을 널고 있었고 여동생은 이불의 사이사이에 머리를 내밀어 즐겁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헬기가 살짝 기운 은색 십자가 되어 멀리 떠났다. 뿌연 햇살은 여전히 쨍쨍했다. 세 사람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 마당에 서 있었다. 당나귀 수레가 떠난 이후부터는 눈이 거의 다 녹았다. 기와 처마의 틈에서 새싹이 모람모람 돋아났다.

따뜻한 4월이었다. 남쪽 담벼락의 자두나무가 먼저 꽃이 피었고, 이어서는 맞은편의 목련과 골목 어귀의 살구나무도 꽃이 피었다. 기슭 옆에 많은 울창한 복숭아나무가 죽 늘어져 있었다. 핑크색 꽃잎이 무럭무럭 피고 있었다. 아침 안개

가 점차 희미해져 꽃과 잎새가 없는 나뭇가지의 주변에 감돌고 있었다.

안개가 사라진 곳에서 그는 그녀를 향해 웃으면서 걸어왔다. 어머니가 공부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 만날 때부터 그를 좋아했다. 안개 때문에 강물이 잘 안 보이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변은 아주 고요했다. 많은 차들과 노란빛 띠는 군복을 입는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앞에서 지나갔다. 다리를 나무말뚝같이 엄청 두렁하게 묶고 있었다. 강둑이 비좁아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 피했다. 복숭아나무는 조용히 꽃이 피고 있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를 좋아했다.

나무가 한 그루 또 한 그루 활짝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전란을 이어 또 전란이었다. 멈추지 않는 전란이었다.

남자 옷을 입고 학교 친구들과 기차 속을 쭈시고 들어갔다. 이불을 널은 마당은 차 뒤에 흔들리며 휘날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뿌연 들판, 드문드문 보드기, 황량한 산맥을 스쳐 갔다. 기차가 날이 어두워지면 다릿목에서 멈춰 쉬잇 쉬잇 소리를 내며 연기를 내뿜었다. 모든 등불이 꺼져 사람 소리도 조용해지고 숨만 내쉬며 어둠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손은 가슴팍을 눌렀는데 안쪽 주머니에 바느질해서 돈을 숨겨두기 때문이었다. 무서워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지 못했다. 어두컴컴한 밤이었다. 마당조차 기차 뒤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불은 멀리서 태우고 있고 헬기는 낮게 비행하여 지나갔다. 봄비는 도로였다. 봄비는 기차간이었다. 침묵과 공포감을 가득한 얼굴들은 주변에 둘러싸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족한 발이 마당에서 질주하고 당나귀의 앞다리가 술렁거리고 있었다. 마부가 채찍을 들어 공중에 휘둘렀다. 바퀴 흔적과 발자국은 갈수록 허겁지겁해졌다.

소설에서 나온 전쟁과 관련한 장면들은 늘 영감적이고 영웅적이며 사람들은 자원해서 전선에 투신하여 적이 오는 대로 죽이고 참호에서 뛰어나와 포위망을 뚫고 승리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전란은 그런 게 아니다.’

기차가 소리 없이 차갑고 서늘한 수면과 창백한 황야를 지나가고 여동생, 어머니

니, 기와집, 마당, 당나귀 수레, 꽃나무를 가득 심은 강가, 심지어 다리를 나무말뚝같이 엄청 뚱뚱하게 묶는 군인들까지 모두들 아득하고 막연한 안개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이, 청춘, 학업, 사랑 등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에 대해 이해가 되면 이미 늦어서 사라져 버렸다.

전쟁, 전쟁, 전쟁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끝날 때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지나갈 것인 줄 알았다.

그녀는 배에서 내려 일본식 나무집에 숙소를 잡았다. 그가 먼저 도착해서 고목나무 아래서 그녀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편이었다.

그녀는 행낭가방을 흙 바닥에 내려놓고 손에 축축한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습한 날씨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쭉쭉 났다. 고무나무의 가지가 바람이 없는 공중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나뭇가지를 위로 걸어 올려 그녀를 향해 걸어와 이마의 땀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다.

근처의 시장에서 백토(白土)로 만든 작은 화로를 사 왔다. 주변에 반짝이는 세개의 구리 줄로 돌아 감싸서 예뻐 보였다. 잔디밭에서 붉은 벽돌을 찾아서 화로 밑에 깔고 문 앞에 놓았다. 날짜 지난 신문지를 파배기 모양으로 두르르 말아서 화로에 넣고 성냥을 그었다. 부치고 있었다. 연기가 36개의 연탄 구멍에서 와글와글 피어 나왔다. 그녀는 한 두 걸음을 뒤로 물러나 손으로 코를 막았다. 연탄에 불을 붙인 것이 처음이었다.

불이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동안 공용 싱크대에 가서 쌀을 깨끗이 씻고 팔을 좀 넣고 화로에 올려 천천히 익히고 있었다. 얼마 뒤 호루라기를 부는 것처럼 수업이 끝난다는 벨소리가 울릴 것이었다.

신문지는 꼬불꼬불 하게 되어 숨같이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그 순간에 그가 나뭇가지를 짚혀 비스듬한 노을 빛 속에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그녀한테 걸어올 것이었다.

사랑을 기다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는 밥과 팔이 골고루 섞을 수 있도록 나무 국자로 휘저다. 이따가 꺼내면

되고 그가 돌아오면 요리만 만들면 될 것이었다.

이때 그녀는 또 총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 집에서 폭주를 터뜨리고 타탁타탁 무엇을 경축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를 가득 실은 트럭이 눈앞에서 지나갔다. 그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손에 국자를 잡았다.

동네 골목이 비좁다 보니 트럭이 집 앞에 놓인 보드기를 긁고 지나갔다. 나뭇잎이 끊임없이 쪽 떨어졌다. 차 뒤에 기관총을 세워두고 옆에 헌병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잠깐 흘끗흘끗 봤는데 그 순간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전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가지 마.” 그는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평상시보다 늦었으며 몸을 돌리고 문을 꼭 닫았다.

“나가지 마.”

어두움이 둘러싼 안방 침대에서 총알이 하늘을 스쳐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불을 젖혀 일어나 맨발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에 시린 한기가 구부러진 발가락부터 올라왔다. 그녀는 벽을 따라 자물쇠를 다시 확인하고 탐조등이 밖에서 좌우를 흔들며 안방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발가락이 갑자기 딱딱한 것을 밟아 발가락 사이 끼워져 있었다. 의자 등받이를 짚고 두 발을 들어 밖으로 차 버렸다.

그녀는 돌아올 때 그는 침대에 쪼그려 있어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살그머니 움직였다. 총알이 골목에 튀어 나왔다.

“셋.”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누군가가 이쪽의 기숙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설탕을 줌 사서 휴대하기가 편한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명절같이 터뜨리는 폭탄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골목에서 가끔씩 군사 훈련을 하는데 초등학교가 이미 폐쇄되었다.

그가 밖에서 많은 신문을 갖고 와 혼자서 아무 말도 없이 식탁의 등잔 밑에서 신문을 읽곤 했다.

화로를 집 뒤 편에 옮겨 공용 싱크대와 거리가 좀 멀어졌다. 시장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거리 양쪽의 방공호를 살펴보았다. 다 쓸 수 없는 것이었다.



양쪽이 뚫린 방공호는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놀이를 하는 아지트였다.

어느 집의 창문이 돌맹이를 맞아 깨지는 소리는 귀가 터질 정도였다.

초등학교 6학년 타이완 여자 교사가 그들을 강독 옆의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피신하자고 건의를 했다.

그녀는 옷을 좀 챙기고 다음날 계엄령을 공포하기 전에 여교사를 따라 철망과 모래 가마니들을 예돌아 시내에서 우회하여 강독 옆의 2층 집에 도착했다. 안쪽 방의 창문과 문을 꼭 닫아걸었다.

어두컴컴하고 낮과 밤이 똑같이 춥다. 구석마다 눅눅해 만지면 손가락 사이에 바로 물기가 묻을 것 같았다. 장마 날씨였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우르릉거리는 포성 그리고 도로 위에 구르는 무거운 바퀴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폭죽같이 터지는 총성은 때로 맑고 탁탁거리고 있었다.

때로 아무 소리도 없으며 위층에서 여자 선생님이 어머님과 혹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비음이 무거운 타이완 말이었다.

갑자기 발이 나무 바닥을 밟은 소리와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느 구석 끝에서 천천히 들려와 방문 앞까지 멈추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호흡마저 멈추었다. 청원단, 공작대, 헌병대가 아니었다.

여교사의 어머님이 그들과 베란다에 가서 바람을 쐬자고 하러 온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어두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무리는 오고 한 무리는 가고 있었다. 널빤지로 만든 모닥불은 멀지 않는 곳에서 태우고 있었다. 많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걸음 소리가 들렸다. 열병대 처럼 베란다가 지나가고 나란히 저쪽 막연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모닥불은 조용히 계속 태웠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다. 연기가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은 거미줄처럼 쭈뼛 떨어졌다. 소화전을 들고 열었는데 물이 안 나왔다. 트럭 하나가 들어와 사람이 내려와서 바닥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 차에 실어 떠났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다. 부서진 나무문, 널빤지 그리고 간판을 모닥불에 던져 불이 다시 올라와 태우고 또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고무나무 앞쪽에만 기숙사가 있는 줄 알고 이쪽은 처음 온 것이었다.

여교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오고 그들에게 오늘과 어제의 신문을 챙겨 주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1일, 2일, 3일, 6일, 7일, 8일 모닥불을 계속 태우고 있었다. 그들이 날짜에 맞게 신문지를 정리해 놓고 다음 신문지를 기다리며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뿌연 꽃무늬 창문 뒤쪽 탐조등이 하늘을 스쳐 30초에 한번씩 왼쪽 창문부터 오른쪽 창문에 오가며 비추어 주고 있었다.

밭줄이 바다와 머리 위에 스쳐가고 마찰소리가 복도의 어느 구석에서 들려와 살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니 이제서야 밥을 먹는 시간이나 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폭탄이 불꽃같이 하늘에서 터져 별뿔별과 같은 불빛이 수문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강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서 은은한 온기가 풍겨와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 지나 어두운 수문 뒤에서 셋별이 솟아올라 다닥다닥 날이 맑아졌다. 발그레 물든 주변의 날씨가 따뜻해졌다. 장마 끝나 후의 첫 번째 일출이었다.

“하늘이 참 예쁘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오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그 어두컴컴하고 시간이 잊혀진 지하실로 내려갔다.

3월 10일의 신문에 사회 분야에서 남녀 한 쌍이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해서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조류가 그들의 시신을 바다로 밀어내는 것을 기대했지만 밀물 때문에 시신이 항구에서 맴돌고 있었고 다른 시신과 얽혀지고 말았다.

물은 점점 더러워져 시신을 치고 있다. 강물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꿈을 같은 현실을 후려치고 있다.

“아! 아! 아!”

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켜 일어나 그를 세계 흔들었다. 그는 드디어 무거운 잠에서 깨어나 이불 속에서 한 손을 내밀어 침대를 꼭 잡았다.

그가 말을 했다. 자신이 비좁은 골목에서 힘차게 뛰고 있고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계속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갑자기 앞에서 벽이 하나가 막고 있기에 자신이 그 벽을 날아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 변신하여 결국은 넘어갔다. 쫓아온 사람들이 사라지고 불빛도 사라졌다. 다시 인간이 되었다. 길거리에 걸고 있었는데 양쪽의 집은 창문이 없었다. 검은 허리띠를 밟아, 순간에 허리띠가 뱀이 되어 자신의 발이 감쌌다. 빨리 날아가고 싶었다. 힘차게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있었다. 날개가 없어졌다. 아! 아! 진짜 무서운 꿈이었다. 꿈은 뱀과 모래 같이 그를 빨아들일 것 같았다.

“당신 얼굴에 다 땀이군요.” 그녀는 말했다. 저번에 모래 속에서 깨어난 후 다시 저런 꿈을 꾸었다.

이번에 아버지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시신은 이불 세 개로 쯡즈(粽子)<sup>74</sup>같이 묶여 고리 모양의 항구에 버려져 강물에 떠밀리고 있었다. 검은 안구를 후려치고 있었다. 냉랭한 발바닥을 후려치고 있었다. 끝없이 밀려온 검은 물이었다.

“진짜 무섭다.” 그가 말했다. 얼굴을 이불 속에 박아 두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다. 어느 날인가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문 뒤쪽의 솟아오르는 하늘빛이었다. 엄청 아름다워 보였다. 그의 옆에 서 있을 것이었다. 어깨에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향기가 풍겨왔다. 그리고 꽃나무들의 꽃잎들이 조용히 따뜻하게 피고 있었을 것이다. 차와 행인들을 지나간 후 들어서 기슭을 따라 손을 잡고 걸어다닐 것이었다. 저쪽 안개 속으로 점점 걸어갈 것이었다.

길거리에 세워진 모닥불은 하루하루가 작아져 어느 날 꺼져버렸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지 않았다. 그들은 베란다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창문을 열어 두었다.

그들은 짐을 간단하게 챙기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자 선생님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짐을 떠났다. 예전 살던 일본식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전란이 끝난 줄 알고 화로를 다시 정문 앞의 붉은 벽돌에 갖다 놓았다. 시장 노점에 들어서 커튼도 사고 싶었는데 집 뒤편의 잔지에 쪽 주둔하는 군인들이 항상 집 쪽으로 두리번거리기 때문이었다.

74) 역주: 중국 단오절 때 먹는 전통 음식이다.

파랑과 오렌지색 바탕에 꽃이 달린 두 가지 커튼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같은 값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면 그가 좋아하는 밝은색으로 할까 싶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나간 그날, 아버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문틀에 기대어 있을 때 어두움이 골목 끝에서부터 슬그머니 다가왔다. 그녀는 밥을 화로에서 꺼내고 천으로 냄비를 감싸고 반찬을 음식 덮개를 덮어 두었다.

거실은 점차 어두워져 그녀는 덮개가 없는 전등을 켜 놓고 막대기처럼 두르르 말은 신문지를 펼쳤다. 아득하고 노릇한 불빛이었다. 어느 남녀 한 쌍이 가장 예쁜 옷차림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어두운 산길을 넘어 샘물 옆의 여관 근처에 농약을 삼켜 자살했다는 기사였다.

그녀는 신문지를 접어두고 벽시계를 거들떠보고 서랍에서 스웨터를 하나 꺼냈다.

교실 하나하나가 다 텅 비어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다. 책을 읽는 소리도 없었다. 칠판에 글씨 하나도 없었다. 등도 없었다. 다만 교원 휴게실 앞에만 하나 있었다.

어둡고 큰 교실의 책상들이 복도 사이사이에 나란히 끼워져 있었다. 책상 모서리에 검은 글씨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의 이름표를 붙인 책상이 유리창 저쪽에서 그녀와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구부려 살짝 창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를 따라 앞문으로 걸어갔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학교 고무나무 아래에 어두운 색 외투를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간절하게 그의 이름표를 붙인 책상에 앉고 싶었다.

어두운 외투를 입은 사람이 그녀한테 걸어왔다.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책상 안에 그녀에게 남긴 메모지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 책상 쪽으로 가야 했다.

힘차게 딱딱 문을 두드리려 했다. 어두운 외투를 입은 사람이 다가왔다.

복도를 뒤쪽으로 물러나 그의 이름표를 붙인 책상을 지나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다.

깜깜한 숲을 향해 달려갈수록 빨라져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말았다. 혹은 그가 먼저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아 읽던 신문을 펼쳐 읽으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샘물이 여관을 지나고 소나무는 다다미 위에 무너졌다.

“매트가 많이 타 버렸어.” 사모님이 말했다.

평소에 그녀는 그의 말투와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얘기를 많이 나눴어야 했다. 자기 전의 밤이나 깨어나서 아침에 학교 얘기도 많이 했었어야 했다. 혹은 같이 소풍이라도 갈걸 그랬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알았다.

전란, 전란, 중국은 왜 그렇게 전란이 많은 것인가.

전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부모님과 여동생과 늘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사 가는 중이었다. 뒤엎어지는 상황에 속삭이고, 정리하고, 침묵하며 도주, 도망 그리고 숨기는 것이 일상화 되고 말았다. 제때로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 폭탄이 방공호 밖에서 터져 그녀는 눈을 감고 차갑고 흔들거리는 돌벽에 기대고 있었다. 어느 날 전란이 끝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잊따라 나타난 두 명 고동 색 중산복을 입은 사람은 그녀에게 그에 대해 많은 일을 물어봤다. 군영 소등 신호가 느물느물 울릴 때까지 심문을 당했다.

그녀는 들을수록 다른 생각에 빠진다.

“집으로 갔을까? 잡혀갔을까?” 마음속에 두 질문을 품고 있었다.

상대방은 와이드 바지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다리를 꼬고 떨면서 앉아 있어 금색 선이 있는 검은 나일론 양말과 바지통 사이에 회색 털이 있는 발목을 보였다.

“최근에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어?” 회색털이 말했다.

그녀는 바르게 테이블 옆에 앉아 꼼꼼히 모든 질문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여 열심히 머릿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했다.

담벼락 구석부터 생긴 곰팡이에 금이 가서 뻗어 나왔다. 바닥 밑에서부터 비스듬히 기어올라 의자 뒤쪽에서 사라졌다.

곰팡이의 금이 연기 속에서 아득해지고 막연해졌다. 그녀는 진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한 것, 특별한 것, 아주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다.

기차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소리가 없었고 초원에 바람이 부르는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군대 행진하는 소리도 없었다. 멈추어진 수면, 어두운 기차 객실, 혼탁한 콧바람이 섞이어 얼굴에 스쳐 갔다. 낮게 비행하는 헬기였다. 갑자기 한 줄기 강한 빛이 들어와 그녀는 놀라 생각에서 깨어났다.

사실 그녀 자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좋은 사람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교사였다. 학생을 혼낸 적이 없었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가 자기 전에 항상 설탕을 넣은 팔죽을 먹는 것은 전부였다.

“자세히 생각해 봐! 생각해 봐!” 회색 다리털은 바지통 밑에서 새어 나왔다. 회색 신문지는 불에 타 버리고 빙글빙글 휘날렸다.

그녀는 기침하며 손등으로 입가로 가렸다.

“사람들이 왜 다 사라져야 할까?”

어느 날 그녀는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계속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져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계속 울다가 행주로 눈을 닦아서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고 말았다. 수돗물로 계속 씻었는데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교무처의 장 선생이 문 앞에서 앉아 기숙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길게 늘어진 목소리에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원로 끝에 있는 가게와 가까운 방 하나를 구했다. 친구의 동네 친구가 소개시켜 준 일이었는데 그녀가 원하는 것 아니었다.

“만약 공부를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사모님이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채소를 먼저 씻은 다음에 고기를 씻고 나중에 설거지할 때 한 번 더 쓰면 되고 그릇 밑에 기름이 좀 묻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칼등으로 부추를 모아 다섯 손가락을 다 잡고 먼저 줄기 부분부터 썰어 칼질 따라 손가락을 점점 뒤로 빼내면 빠르고 얇고 안전하게 썰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다진 부추와 기름이 찌꺼기 그리고 고기를 같이 냄비에 넣고 가슴팍에 감싸서 긴 젓가락으로 힘차게 비비고 있었다.

그런 일들을 안 할 때 그녀가 기름 냄새가 없는 옷을 갈아입고 라스북로에 가는 버스를 타서 연평북로에서 내려곤 했다.

그녀는 수문 곳곳한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담벼락은 매우 두껍고 구석에 잡초가 모람모람 나와 있었다. 반대쪽 물이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아득했다.

햇빛 아래의 건물이 예뻐 보였다.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 불그레한 기와와 짙은 녹색 대문이었다. 자귀나무의 나뭇가지가 문 위에서 뻗어 나와 더부룩한 빨간 꽃이 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2층 베란다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할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사모님은 그녀가 성실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녀에 맡기고 위층에 올라갔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서 나무문을 열고 쇠막대기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막을 받쳐 놓아 회색 앞치마를 쓰고 긴 젓가락과 숟가락과 건지기를 꺼내 영업 준비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연기 속에 드나들고 있었다. 갑자기 면요리를 잘하는 어머니가 혼자서 큰 테이블에 앉은 모습을 보였다. 등갓 안의 불빛이 어머니 누르스름한 얼굴과 테이블에 놓인 누르스름한 손을 비추고 있었다. 불빛 점점 어두워지고 자신도 어느덧 잠이 들었다. 다음날에 어머니가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로 안에서 쇠막대기로 면덩어리를 꺼내 손에 잡고 뜨거워서 후르르 바람을 불어내고 있었다. 연탄불과 연기는 옆얼굴의 비스듬한 빛 속에서 나풀나풀 날리고 있었다.

중절모자를 쓴 뒷모습이 오래전에 사라졌다.

당나귀 수레는 보이지 않고 방울소리가 골목 끝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서 땀을 흘리는 이마를 침대 기둥에 대고 그녀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얘기를 해주었다. 두 번째 악몽에서 깨어난 후였다.

덩치가 있는 군의관이었다. 전쟁터에서 티푸스에 걸리자 이불 세 개로 묶어 수레에 실어 집으로 내보내렸다. 다리가 길어서 수레 밖에 걸려 있고 수레가 움직



이며 발도 따라서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또 그때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졌다.

이번엔 머리만 밖에 있고 몸을 군용 마대로 감쌌다. 이불 대신에 마대로 몸을 감아 머리만 밖에 있다.

흑백 사진을 그냥 장바구니 넣고 챙겨 다녔다. 평상시에는 주방 나무 선반에 놓는다. 식사할 때는 그들을 보고 웃곤 했다.

예전에 길 강아지를 하나 데려온 적이 있었다. 군대 병원 근처에 발견했는데 한참 동안 키웠는데 나중에 사합원(四合院)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이웃은 우물에 명반을 뿌려 거품이 며칠 동안 계속 꼬르륵 나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잘 마음이 없어서 아예 상반신을 세워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불로 양손을 감으며 많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주 같이 다니는 친구 이야기, 자주 하는 일들 이야기, 시내의 사탕가게와 과일가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쪽의 제재소와 흙벽돌 공장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계속 듣고 있으며 아득한 기억 속에 빠졌다.

허리가 좀 굽은 남자가 서재에 앉아 창문의 그림자가 죽 늘어져 있었다. 아나네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유소(流蘇) 등갓 밑에서 옆얼굴이 노릇하게 보였다.

부모님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끔 누르스름한 팔을 움직이기도 했다. 불이 약하게 하고 나서 방은 더욱 어두워졌다. 빛이 휘날려 희미한 불빛은 자신과 동생의 침대 앞에 멈추었다. 모기장 한쪽을 걸어 올려 따스한 콧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두 나무 사이에 이불을 널어 동생은 혼자서 이불 사이에서 숨바꼭질 장난을 하고 있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어머니가 멀리서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안 나오면 혼난다.” 이불을 뒤집어 위에 있는 모란꽃은 활짝 피어 있었다.

중절모자를 쓴 남자가 고개를 돌려 축복하는 듯 손을 흔들었다. 금테 안경은 모자 테와 녹고 있는 눈밭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회색 신문 잣더미가 바람에 휩쓸려 기와에 올라갔다. 36개 연탄 구멍에서 더 많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중산복을 입는 사람의 회색다리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열흘 전에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10일 이후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벌어진 일은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회색 다리한테 그의 아버지, 강아지 애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고 욕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렸을 때 애기만 하고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떤 식으로 떠나든 다 마찬가지였다. 떠나는 것은 떠나는 것이었다.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개의치 않은 일이었다.

기모 코트 자락이 수레 옆에 떨어져 있어, 묶이고 있는 커플의 발은 다다미의 문밖에 놓여있고, 그의 아버지의 시신은 마대 속에 넣어진 채 머리가 수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맑은 4월 뒤에 4번째 줄 가사부터 다 잊어버렸다.

어머니와 동생은 북방에 남아 있었다. 백 살 넘는 외할머니는 항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신부에게는 신을 모시는 일을 종사하는 것은 외할머니의 기대였고 자신은 원래 호텔 풍금 연주자가 되고 싶었다.

“아리아이오.”

배가 다시 돛을 올려 항구를 떠나 어둡고 차가운 수면에서 스쳐나갔다. 푸른 빛 속에서 그녀한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날개처럼 은색 현은 스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설치한 다음에 시장에 가서 의자와 탁자를 몇 개만을 구입하고 군영(軍營)와 마주치는 작은 방은 서재로 바뀌었다. 길거리의 모닥불이 꺼지자 사람들도 그곳에서 떠났다. 그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녀와 비슷한 줄 알았다.

자신이 반대할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었고 따라갈 것이었다. 이 점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히려 전쟁 때문에 둘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전쟁이 그리워졌다.

밖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 사람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다가 멀어졌다. 강물은 수문을 두드려 주변의 건물은 기다림 속에 점차 어두워졌다.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허리를 꼭 잡고 끌어안았다. 공기가 습했다. 그의 목에서 익숙한 나무 향기가 풍겨와 헐떡거리는 숨 쉬는 소리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이불로 다시 그녀의 주변을 잘 덮어주고 한 손은 그녀의 이불 속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머리 위에서 손등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포화의 불길은 꽃무늬 유리창에 터져 깜박거리고 있었다. 30초에 한 번씩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사실은 그가 말했다. 십여 일 함께 보내는 밤낮에 강물이 지하 암실을 두드릴 때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작거리면서 조용한 순간에 던진 모든 질문, 모든 암시, 모든 망설임, 모든 몸부림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해 그는 다짐했다.

풍금 소리는 물을 흐리는 듯 시작한 격앙되고 끝은 나지막해졌다. 희읍스름한 직사각형 강단 외에 주변에 모든 것들이 어두워 보여 되찾을 수 없는 시간 속에 깊게 꼼꼼히 숨겨지고 있었다.

샘물이 성당 나무 처마에, 2층에 기와 처마에, 정원마당에 떨어졌다. 흠뻑 젖은 강아지를 우물에서 건져 올릴 때 아무도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흠어졌다. 제재소와 벽돌 공장도 다 문을 닫았고 수레가 삐걱거리며 멀리 떠났다.

그녀는 목이 쉬어 계속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하지만 멀리서 어느 메아리가 맞춰 주고 있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갑자기 부근의 골목에서 물이 물려오는 듯이 나타났다. 순찰대 사람들이 이미 교도처에 와 있고 빨간 바탕에 검은 글자를 새긴 완장을 두르고 캐비닛 뒤에서 나무 막대기를 꺼내 당당히 길거리 한복판을 향했다. 막대기 양쪽에 맞대어 행인과 차들이 다 나무 막대기 앞에서 멈추었다. 사람들은 사거리에서 줄을 지어 하나둘, 하나둘 구호를 따라 움직였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에 온주거리의 어느 구석부터 앞으로 걸어갔다. 끝나지 않는 노래와 함께 아버지 시신과 커플 시신을 떠밀고 있었던 항구로, 외할머니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십여 일 밤낮이 없는 밤낮이었다. 북쪽 어느 외진 곳이었다. 겨울 옷이 널려

있는 정원이었다. 활짝 핀 목단꽃이 그려진 이불이었다. 하얀 담벼락이었다. 기와 위의 잡초였다. 아버지 손등에 머무르는 비둘기였다. 이 모든 것들은 짧고 둥그란 손가락 하나가 아랫입술을 누르고 길게 휘파람을 부는 소리에 쪽 하늘로 날아갔다.

아일랜드는 엄청 먼 곳이었다.

그녀는 화로의 뜨거운 물에 펄펄 끓이는 국수를 살펴보았다. 손가락에 잡고 있던 소고기는 칼질을 따라 하나하나 떨어졌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야 황홀감에 빠져 눈가에 물기가 글썽글썽 머금어졌 마치 첫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사랑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때 문이 열려 곤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 혼자서 구석에 앉았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입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녀는 건지기에 면을 올려 국물을 펄펄 끓이는 냄비에 넣었다. 찬장의 도자기 접시에 담아 둔 다진 쪽파를 꺼내 나란히 올린 소고기에 뿌리고는 따뜻한 국수를 갖다 주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웃으며 그릇을 받아 자신의 앞에 놓았다. 의자를 앞으로 당겨 대나무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냈다.

밖에는 지나간 차량이 없고 단지 가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후르륵 면을 먹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꼬리를 반 정도를 잃은 도마뱀이 찬장에서 튀어나와 조용히 담벼락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옆얼굴이 좀 닮았다.”

남자 여전히 손님인 척 천천히 국수를 먹으면서 그녀에게 들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놀라는 일이 갑자기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랐다.

남자는 천천히 후루루 국수를 먹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코끝에 땀을 닦았다.

초봄의 안개 속에서 어렴풋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 작정이었다.

그녀는 뚜껑을 들어 냄비에 덮었다. 순간에 안개가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도마뱀이 찬장에 기어다니고 있었다.

남자는 깨끗이 손과 얼굴을 닦고 일어나 외투를 입는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차가운 바람이 확 물려왔다.

그녀는 테이블마다 다시 닦고 있었다. 의자들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남은 국수를 담은 냄비를 잠시 바닥에 놓고 밖에서 자물쇠로 한 번 더 문을 잠갔다. 쇠붙이는 적막하고 쓸쓸한 골목에서 찰칵거리렸다. 그녀가 자물쇠를 앞으로 당겨 확인하니 자물쇠는 다시 묵직하게 나무문 앞에 떨어졌다.

밭그레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온몸이 붉게 물들 것 같았다. 국물을 신발에 흘릴까 봐 양손은 무척 조심스레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내가 들어 줄게.” 익숙한 소리가 말했다.

그의 어깨에서 풍겨온 따스한 온기가 다른 한쪽 어깨에 스며들었다.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망설이다가 냄비를 건네주었다. 손을 부딪힐 순간에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잘 지내고 있니?” 그가 말했다.

“응.” 그녀는 고개를 숙여 빠진 듯한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한 손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어둠 속에 쭉스러워서 얼굴이 시뻘게졌다.

그것이 이미 십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텅 빈 거리는 조용히 그녀의 뒤에 뻗어 있고 희미한 빨간 불빛 속에 숨고 있었다. 가로등 밑 가늘고 규칙적인 그림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냄비 손잡이를 허리에 끼고 머리를 추어올려 냄비를 꼭 잡고 있었다. 부스럭거리는 고무 신발의 소리가 들려왔다. 어둑어둑한 수원로 끝에서 거센 찬 바람이 불어왔다. 십여 년 전에 거기는 사람을 총살하는 곳이라고 했었다.

### 3. 양자오(楊照)의 「연화(煙花)」

이것은 20년 전쯤의 일이었다.

근처는 오후가 되면 유난히 조용해졌다. 맞은편에 연구소가 하나 있고 길을 건

너면 언덕들이 점차 눈에 들어오며 나무들이 들쭉날쭉하다. 예전에 상사수(相思樹)<sup>75)</sup>가 몇 그루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속속 베어내 화로에 태워 버리고 말았다. 그릇만큼 굵고 쓸모없는 나뭇가지만 버려져 잡초가 가득한 진흙 땅바닥에 흩어졌다. 오래 세월이 지나 생긴 작은 오솔길들이 잡초와 나무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올해는 겨울비가 예년보다 늦어져, 며칠 동안 겨울철에 보기 어려운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정오가 지나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려 주변은 조용해졌다. 연구원들은 가끔 연구실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들은 급히 걸어 다녀서 자갈길을 밟을 때 항상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땅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하늘의 구름은 늘 뽀뽀이 흩어져 공중에 널려 있었다. 산비탈의 방향에서 보면 높이가 다른 굴뚝이 세 개가 나란히 우뚝서 하늘과 가깝게 보였다. 사실, 근처에는 곳곳에 굴뚝이 있는데 단지 그 세 개가 유난히 도드라졌을 뿐이었다. 짙은 햇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정확한 거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오른쪽의 굴뚝이 좀 더 멀리 떨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석회를 다시 칠해서 해가 떨어진 다음에야 작업이 시작되었다. 왼쪽의 두 굴뚝은 하루종일 멈춘 때가 거의 없었다. 가장 높은 굴뚝은 골고루 뿌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바람이 없을 때는 연기가 끊기지 않고 높아질수록 가늘어져 쪽 구름 사이까지 올라가 구름인지 연기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굵직하고 낮은 굴뚝은 불규칙적으로 한 덩어리씩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황갈색의 짙고 탁한 연기는 소리 없이 좌우로 흩어졌다.

연구소 주변의 나지막한 집에서는 가끔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맑은 날씨 때문에 멀리서 들려와도 소리가 뚜렷하고 부드럽고 섬세하며 마치 햇빛에 반사된 것 같았다. 유일하게 아스팔트가 깔린 길에서 사람이 지나자 강아지가 바로 소리를 지어 골목에서 쫓아 나왔다. 멀리 있어서 그런지 강아지가 날카롭게 짖는 소리와 온몸이 움츠러드는 동작의 박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

75) 역주: 학명(Acacia confusa) 콩과 식물이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이 타이완 전 지역에 널리 재배한 식물로 타이완 초기에 잘 알려진 식물 중 하나이다. 상사수는 홀잎이고 대부분은 가로수는 심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상사수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으며, 슬픈 사랑의 상징이다.

어느 중년 남자가 달구지를 끌고 길옆을 바짝 붙어서 걸어왔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멈추고 차의 받침대를 내려놓아 달구지를 길거리 세운 채 “참외, 토마토…” 소리를 외쳤다. 머리 위에 있는 삿갓 모자를 벗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치<sup>76)</sup>를 칠해서 노랗게 된 전봇대에 기대거나 다른 집의 울타리에 기대고 있었다. 모자를 아래위로 20번쯤 부치다가 방충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음 골목을 향했다. 이런 시기에 과일을 사서 먹는 것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여자는 보통은 과일을 파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잠을 잤다. 임대한 집의 창문은 마침 골목 입구와 맞닿아 있어서, 세수하고 나서도 늦지 않을 경우는, 쫓아가서 제철 과일을 몇 개 사서 점심밥 대신 먹곤 했다. 그녀가 샤워하고 집에서 나올 즈음에는 해가 많이 기울어졌다. 그녀는 늘 옷깃이 작고 양쪽에 단추가 달린 낡은 코트를 입는다. 엉덩이를 살짝 덮은 나일론 재질이다. 그녀는 연구소 동쪽의 담벼락을 따라 걸어가다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연구소에 들어가 잔디밭과 인적이 드물고 오래된 집 두 채를 지나 정문으로 나왔다.

언덕을 올라갈 때 햇빛은 비스듬히 왼쪽에서 내리쬐이고 긴 그림자는 땅바닥이나 나무줄기에 떨어져 비스듬히 움직이고 있었다. 고갯마루의 나무 아래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모두 서쪽을 향해 쭉 늘어놓여져 있었다. 분명히 사람들이 아침에 여기에 옮겨 놓아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돌덩이는 완전히 저녁의 노란 노을빛에 노출되어 흐릿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여자는 고갯마루의 꽃이 활짝 핀 양제갑(羊蹄甲)나무에 기대어 유유히 땀을 식히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보통 5시 이후에 사방팔방에서 나와 정문을 향해 밖으로 나갔다. 날이 어두워져 비슷한 모습들이 두루마기인지 양모 코트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옷에 감싸였다. 바스락거리는 발소리와 말소리를 섞은 채 인파가 정문에서 사라졌다. 이때 보통 한 사람만이 언덕 쪽으로 걸어오곤 했다. 겨울옷을 입었는데도 엄청 말라 보였다. 노을의 빛 속에서 그의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

76) 역주: 석회수(Lime water)이다. 석회수는 중국에서 겨울이 되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쉽게 갈라져지는 바람에 보호해 주기 위해 칠하는 것이다. 또는 석회수는 살균, 살충의 효능이 있어서 병충해를 방지해서다.

고 걸음마다 차분하게 걸어왔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걷는다. 슬로모션을 보는 것처럼 발걸음마다 끊긴 듯하면서 그렇지 않은 동작이 몇 단계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움직임 때문에 코트가 살짝 무릎 위로 들어올려졌다. 그는 항상 머리를 살짝 들어 발가락으로 타진하는 듯 먼저 땅을 닿아야 발바닥과 발끝을 확실히 내려 땅을 밟았다. 그 와중에 해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걸어와서인지 노을빛에 반사된 그의 왼쪽 얼굴도 희미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에게 공간적 혼란에 빠지게 했다. 심지어 그가 제자리에서 걷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었다.

서로는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다. 여자는 꽃이 활짝 피는 양제갑나무 아래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자신의 걸음에만 집중하고, 고개도 별로 들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까지 걸어가도 빛이 눈을 찔러서 여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이 순간에 외투를 벗는 것을 좋아했다. 오후에 샤워하고 남은 짙은 향은 쉽게 감지되지 않은 땀의 열기와 함께 물씬 풍겨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난 향기를 맡으면서 기쁘게 그를 맞이하러 빛 속으로 들어갔다. 두 팔은 외투를 껴안고 가슴에 감겼다.

2, 3일마다 연구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고갯마루에 달려와 그를 기다리는 것이 여자의 습관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몰랐다. 그녀는 그가 매일 언덕 뒤편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진홍자오(金鴻藻)’ 글자 하나씩 천천히 내뱉어 목소리가 자연스레 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자는 살짝 턱을 내리고 입술을 오므리며 호호 웃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처럼 자신의 이름을 성(姓)까지 다 불러주는 경우는 꽤나 오래전의 일이되었다. 어른들이 그를 ‘홍자오’라고 부르고 또래들은 그를 ‘진형’이라고 부르거나 ‘무문(茂文)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무문은 그의 자이다. 후배들은 당연히 그를 ‘진선배’ 또는 ‘진선생님’이라고 불러 준 것이었다. 그래서 여자가 그의 이름을 처음에 알았을 때, 그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다. 가끔씩 부르면 늘 ‘자오’를 무겁고 또렷한 권설음으로 발음했다. 한번은 그가 참지 못해서 완곡하게 그녀의 발음을 고치려고 했다. “사실은 ‘자오’는 권설음이 없어.” 여자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뜨고 말



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읽어주었다. ‘진홍자오(zao)’ 여자는 그의 말투와 리듬을 모방하여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 발음이 맞았네. 진홍자오(zao), 진홍자오(zao), 진홍자오(zao)”. “자오(zao), 자오(zao), 자오(zao).” 하지만 여자는 또다시 일부러 혀를 앞니에 세계 대고 “자오(zhao)”라고 발음했다. 그러다가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그도 좋아한다. 여자와 함께 다니는 장소는 줄곧 연구소 맞은편의 길거리부터 이 산비탈까지뿐이었다. 고갯마루를 넘어 멀리까지 쪽 이어진 분지 주변을 둘러싼 산들의 사이에는 기복이 심하고 완만한 구덩이가 있었다. 거기에 방향, 크기, 색깔, 모양이 다른 무덤들이 규칙 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적어도 백여 개의 무덤이 있었다.

여자는 매혹적인 비석과 무덤 사이에서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여자의 아버지가 이곳에 묻힌 지 20년쯤이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두 동생과 같이 어머니를 아버지의 무덤 옆에 매장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는 다른 낮은 무덤들이 뺨뺨이 들어있어서 그녀는 부득이 아버지의 무덤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어머니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줄곧 미안하다고 여겨왔다. 어머니는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를 의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그 날, 그 일대는 가장 고요한 오후 무렵이었다. 그녀는 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다. 일어났을 때 고개를 들자, 말라 보이는 체형에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양복 자락을 올린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그를 처음 보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 오후에 무덤을 찾아오곤 했다. 아버지의 무덤은 이미 허름해지고, 비석도 시간의 침식 때문에 글자가 흐릿해지고 거칠어졌다. 그러나 주변은 여전히 깨끗하다. 그녀는 때로 오후 내내 고갯마루에서 앉아 한참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먼 곳의 채소밭을 바라보니, 주변이 온통 푸르러진 것 같았다. 금방 수확한 곡식들이 채소밭 옆의 시멘트 바닥에 깔아 놓아 누룻누룻해 보였다. 짙은 색채를 오래 보았더니 온 세상은 그 가운데 두 가지 색깔만 남은 것 같고 옆의 사물들이 모두 희뿌연 흑백 그림이 되었다.

흐릿한 그림자가 길고 홀쭉하다. 늘 무덤 사이를 오가며 때로 허리를 굽히고, 심지어 몸을 웅크리기도 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가끔은 구름이 두껍



고 흐린 날에, 해가 지기 전에 바람이 불어 건조한 피부 속까지 와 닿기 일쑤였다. 그녀는 점점 위압감을 느껴 더이상 고갯마루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돌아 내려갔다. 그 회색 양복을 입은 그림자가 마치 그녀의 뒤에서 따라온 것처럼 느껴져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직 고갯마루에 서 있는 채로 그녀가 떠난 방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양복 자락이 바람에 날려 실체가 없고 검은 그림자처럼 보여서 그녀는 무서워졌다. 그래서 그를 계속 마주보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묘지에 가 보지 않았다. 다시 가는 그날, 주변에서 그의 종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여자는 마음을 놓고 아버지의 무덤 앞에 찾아갔다.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 모른 채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절강성(浙江省) 말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쪽은 왕허순(王和順)의 딸입니까?”

그녀는 놀라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말을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고개를 저을 때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햇빛에 반사되어 수많은 미세한 구슬이 되었다.

“맞구나.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의 큰 손만을 비비고 있었다. 마지막 그의 오른손이 살짝 하얘진 오른쪽 살쩍을 긁적거리며 말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다. 나는 진홍자오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겨우 이만 했어.”

그는 여자를 놀리는 듯 환하게 웃으며 3척의 길이를 손으로 재 보이며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웃는 시간은 엄청 짧았다. 그는 자주 한숨을 쉬면서 옛이야기를 하곤 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겨우 여섯 살이었지, 그렇지? 너는 많은 것을 몰랐지.”

그는 늘 이런 얘기를 했다. 마치 가장 아쉬운 일처럼 말했다. 그는 많은 일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짧았다. 보통 묘지를 돌아다니며 붉은 해가 갈라진 지평선에 떨어질 때까지만 함께 있었다. 시계를 볼 필요가 없이 그의 미간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었다. 돌아가서 샤워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았다. 대충대충 밥을 먹고 시간이 넉넉하면, 그녀는 파운데이션만을 바르고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탔다. 만약 시간이 부족할 때면 차라리 화장을 하고 택시를 불러 쌍청(雙城)거리나 농안(農安)거리의 입구에서 내렸다. 미군고문단(美軍顧問團) 뒤쪽 멀지 않는 곳에 있다.

그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때로 여자는 무서워한다는 마음을 느끼기도 했다. 그의 차분하지만 늘 껴지지 않은 옆얼굴을 볼 때 가끔 온몸은 소름이 끼쳐 공포감에 휩싸인 마음이 한참 동안 안정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도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랐다. 지금껏 이렇게 두려워한 적이 없다.

그녀는 늘 그에게 이런저런 일을 물어보곤 했다. 한번은 그가 엄숙하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좋지 않아.” 그러나 그녀가 물어보면 항상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꽃과 풀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각종 식물이 심어져 있고 물건이 가득 찼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여자를 웃게 했다. 그는 지금은 여러 가지의 연구계획이 있고 여자는 그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화학, 병리와 생물 조직과 관련 전문용어가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 듣는 영어와 완전히 달라서 여자는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런 달랑달랑하는 영어 발음은 아득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담고 있어서 몹시 좋아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속도가 평소에 쓰는 절강 말투보다 조금 빨라서 그의 특유한 고단하고 속박된 느낌이 희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연구계획을 그는 여자에게 제대로 얘기해준 적이 없다. 그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매번 시작만을 얘기하고 나서 멈추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늘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여자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빛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겨우 여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여자는 몇 번이나 끈덕지게 그에게 어떤 연구인지를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말투에 전에 없던 애교가 섞여 있

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는 난처해진 얼굴로 고민하다가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꼭 할게.”

여자는 애교를 부린 것을 후회하였다. 그 놀라움을 때문에 소름이 끼쳐 온몸의 피부로 번져갔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라고 여자가 말했다. 차분한 말투에 깊은 서운함이 실려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에게 미안해졌다.

그는 혼자서 고갯마루에서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졌다. 날씨가 쌀쌀해져 한기가 두꺼운 면 티셔츠를 뚫고 피부에 스며들어 몸 안팎으로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입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고개를 돌려 그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여자는 외투의 단추를 끼우고 결국은 따라갔다.

그는 나일론 서양식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넥타이의 뽀족한 꼬리를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보통 묘지 근처에는 식물의 종류가 가장 많고 무성하니까 연구하는 데 제일 좋아.”

그 말은 예전에도 말해 주었는데 그는 왜 항상 이곳에 발길을 머물고 있는지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했다.

“여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묻혀 있어. 예전에 그의 무덤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피는 붉고 작은 꽃들이 가득 차 있었지.”

여자도 기억하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곁에 서 있었을 뿐이다. 희미해진 노을빛 속에서 그의 얼굴에 갑자기 낮설고 본 적이 없는 표정이 나타났다.

4, 5년 전에야 그는 왕허순이 여기에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십여 년 동안 근무했던 교육부를 떠나 박물관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오랫동안 묵혀 있던 생물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논문 번역도 하면서 씨앗을 배양하기도 했다.

그는 혼자서 옛 친구를 보러 왔다. 그는 지금은 어떤 친구도, 어떤 친한 친구도 없었다. 근무처에서 겹겹이 쌓인 인맥 관계만 남았다. 처음에 얻은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그다지 확신하지 못했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 비석들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어느 것이 왕허순의 무덤인지 몰랐다. 겨드랑이에 향초 한 봉지와 과일을 끼고, 이마와 목 사이의 땀을 미친 듯이 흘리고 있었다. 햇빛이 쨍쨍했다. 언덕 꼭대기에 서 있자, 붉은 빛이 첫눈에 띄어,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먼저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작고 붉은 꽃은 줄기가 매우 가볍고 가늘어서, 꽃잎이 바람을 맞는 범위가 더 크긴 했다. 바람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작고 붉은 꽃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꽃들이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바로 왕허순의 무덤이었다.

작고 붉은 꽃이 눈을 시리게 해서 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피가 관자놀이에서 맥박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혈관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후 붉은 꽃들의 모습이 계속 그를 감싸고 있었다. 어딘가가 이상한 것이 확실했다. 기괴한 화면이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진짜 왕허순의 무덤에 갔다 온 것인지를 확신하게 했다. 모든 게 꿈이겠다. 그는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주변은 다 흑백인데 그곳에만 불꽃처럼 타오르는 붉은 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왕허순을 보러 가겠다고 했던 그 날 밤에 열이 났었는지도 몰랐다. 낮에 생각하는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는 말처럼 모든 게 꿈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관자놀이가 쿵광거리며 피가 흐르는 속도 빨라졌다. 이틀 만에 그는 연구소로 가는 버스를 탔다. 다시 도로 저쪽 끝에서 튀어나온 언덕을 올라갔다. 다시 한번 그 뻑뻑하게 모이는 붉은 꽃을 보았는데, 밀려온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구나.”

이번에는 그의 이성이 관자놀이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애써 나오려고 했다. 보통 묘지 주변의 식물들이 가장 무성하고 종류도 많은데 주변을 둘러보니 무릎을 넘는 식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꽃 핀 것도 드물었다. 주변은 모두에 녹색이 아닌 황록색과 옅은 갈색의 사이의 색채였다. 왕허순의 무덤 앞의 작고 붉은 꽃들은 말고 주변은 무척 황량했다. 그는 그런 정보를 갖고 박물관에 돌아가 영어와 독일어로 된 간행물을 무작정 뒤졌다. 자신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찾으려면 곧 알 것이다. 밤을 새며 이틀 동안 찾아보는 동안 원래 수척한 얼

굴은 더욱 야위어졌다. 드디어 공업 도시의 「공기 오염이 식물 성장 번식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찾아냈다.

그는 이러한 연구에 미친 듯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뺨질나게 연구소를 찾아다녔다. 연구계획을 써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박물관에서 연구소로 옮겼다. 그는 이곳 공기의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풍향과 지형 때문에 이 저지대에는 늘 대량의 공업 먼지가 특히 황혼 무렵 때에 가장 많이 쌓였다.

그런데 저런 연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보다 더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주머니에서 끌어내고 주먹을 짝 쥐어 가슴 앞에서 문지르고 있었다.

그때 타이완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왕허순의 무덤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 그의 연구계획을 들었던 동료들은 그것이 식물의 본성에 위반한 것이라고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자주 왕허순의 무덤 앞에 앉아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가끔씩 참지 못하고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지기도 했다. 체포된 전날 밤 왕허순이 스스로 승리와 공리 그리고 정의의 편에 다가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작고 붉은 꽃들의 구조가 도대체 왜 돌변한 것인지 아니면 왕허순의 죽음을 둘러싼 기적과 같은 일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꽃들은 우리 엄마가 매일 와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어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참지 못해서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나는 알고 있어.”

그는 얼굴을 돌려 여자의 눈을 마주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중에 알았어. 너의 어머니가 멀리서 물을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어. 비록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너의 어머니의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얼굴을 잊지 못해. 그제서야 알았어.” 그의 얼굴에 마치 전쟁이 끝난다는 평화스러운 표정,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지친 안색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늘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연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붉은 꽃과 같은 기적 말

이야.”

그녀는 둘이서 아직까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었음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늘 뜬금없이 생각났다. 그 일에 왜 이렇게 신경 쓰였는지 몰랐다. 그를 집에 초대할 수 없고, 물론, 여자도 그의 집에 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여자를 초대한 적이 없지만, 여자는 그를 이해했다. 비록 둘의 나이는 한 세대 차이가 났지만 이런 예민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는 아주 전통적인 지식인의 느낌이었다. 아마 그의 아내도 그럴 것이다. 가게에 가서 사차(沙茶)<sup>77)</sup>튀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연구소 주변에는 음식점이 별로 없었다. 시내 가는 방향에 30분 정도를 걸어가면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겨울철에 튀김을 팔기도 했다. 그 곳은 기숙사에 사는 연구원들도 자주 가는 가게였다. 그녀는 택시를 탈 때마다 그 가게를 지나가면 항상 머리를 내밀어 가게를 쳐다보곤 했다. 그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함께 튀김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자는 지금까지 그의 가족 상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 한번은, 둘이 함께 언덕 꼭대기의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자리가 낮아서 그의 바지통이 올라와 짧은 회색 양말이 보이자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쪽의 양말은 왜 저렇게 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목 보며 살짝 부끄러워진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이렇게 망가졌구나. 수선을 맡겨야 하는데 항상 깜박했다.” 여자는 그가 무슨 괴물을 쳐다보는 듯이 자신의 발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결국은 참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신경을 안 써 주세요?”

그는 고개를 옆으로 들어 눈썹을 치켜올리며 이해를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그가 일부러 이 질문에 피하려고 하는 줄 알고 바로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뜻밖에 그가 말했다.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여자는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진 것 같았다. 그의 양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쪽의 부인 말입니다. 그쪽한테……”

---

77) 역주: 소스 이름이다. 타이완 지역에서 사차를 메인 양념으로 튀김의 육수를 만든다. 그래서 사차튀김이라고 부른다.

여자가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뜻밖에도 웃었다. 오른손으로 3척의 높이를 재 보이며 말했다.

“그때는 네가 6살이었는데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여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망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집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

여자가 깜짝 놀라 ‘아’ 소리를 냈다.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동쪽은 거의 다 어두워졌는데, 단지 몇 송이의 구름만이 여전히 멀리서 짙은 자홍색을 띠고 있다. 그는 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십여 년 전에 집사람은 너의 아버지와 같은 사건 때문에 죽었다.”

여자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몸을 앞으로 일으켜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무릎을 살짝 만작거렸다. 그가 여자와 마주보며 있을 때 여자는 천천히 빨개진 아랫입술을 풀어 입을 약간 벌리고 깊은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몇 초를 지나서야 음을 하나하나씩을 내뱉어 끝소리가 무거운 영어로 말했다.

“I want to know what was the event.”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미간을 찌푸려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우리의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좋지 않다.”

그래도 여자에게 말해 주었다.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은 겨우 구정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의 아내는 길거리에서 시위 군중과 부딪혔는데 그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무서워서 길거리 옆의 경찰서에 달려가 남편이 교육청 비서라는 명함을 들고 경찰에게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중에 민중이 경찰서를 공격했을 때 그의 아내는 죽고 말았다. 한 십여명 시체의 가운데 그의 아내가 있었다. 손에 짝 쥐고 있던 명함 때문에 그에게 소식이 전해왔다. 매장할 때까지 그의 아내의 오른손은 여전히 주먹을 바짝 쥐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처음 대만 접수를 온 2년 동안 나의 직위는 교육청 비서였다. 그 시기에 그 명함은 쓸모가 많은 물건이었는데, 그래도 내 아내를 살릴 수조차 없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나는 누구든 죽일만치 화가 났지만 나에게 사람을 죽일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나에게 전



해왔다.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내 아내가 죽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는데 네 어느 삼촌이 나를 찾아와, 그 얘기를 들려주고 떠난 후에 나는 밤새 울었다.”

여자의 삼촌은 아관이라고 한다. 그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만어를 바꾸어 말했다.

“아관삼촌.” 그때 아관은 왕허순의 이웃이었고 모두와 친했다.

“아관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그가 네 아버지의 시신을 몰래 업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지 군청에서 그를 잡아갈까 봐 걱정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어. 바로 그때 나는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라고 말했다.

여자의 아버지가 '담배 단속 혈안 사건 조사 위원회'에 참가했고 또 '사건 처리위원회'에 가담했었다. 어느 날 회의를 나간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한 젊은 군인은 왕허순이 세면도구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집에 찾아왔다. 이틀이 지나 다른 젊은 군인은 왕허순이 옷을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집에 나타났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집에 다른 남자가 없었다. 이번에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7번길과 8번길 일대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이웃들의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여자의 할머니는 부엌 기구들이 덜그럭거려 외아들이 집에 와서 물을 찾아마시는 꿈을 꾸었다. 깨어난 노인은 친척 집에 가서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관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평상시에 허순형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서지 않다니 너무나 이기적이다.”

사람들은 모두 눈을 부릅뜨고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있었다. 아관이 그에게 부탁하는 모습과 같았다.

결국은 아관이 가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7번길에서 지나갔던 사람에게 계속 소식을 알아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경과 군인을 피해야 했다. 마침내 어느 구렁덩이에서 여자 아버지의 시체를 찾았는데 두 눈에 검은 천으로 감고 있었고, 두 손은 거꾸로 뒤에 묶여 있었다. 아관은 시체를 업고 어느 농가에 피신했다. 농부가 시체를 보고 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이분의 어머니께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셨다고 전해 주세요. 총살을 당



하기 전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집행인에게 타이베이는 어느 쪽이나 물으면서 그의 어머니께 절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전해 주세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마음, 그분의 아들이 저렇게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해줄 수가 없어서 우리 온 가족들은 평생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 주세요”.

그는 아관의 말을 듣고 밤새 계속 울었다.

“나중에는 미워하지도 않았어. 그냥 무서워 줄곧 두려워하기만 했어. 더 이상 두려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어.”라고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의 바다가 되어 밤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코트를 잡고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 출근 늦겠다. 빨리 가자.”

시간은 정말 빨리 갔다. 지금 안 가면 출근이 늦을 것이다. 여자는 망연자실하게 일어나 몸이 돌아서서 내리막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뒤에서 코트를 걸쳐 주자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렸다. 눈물에 젖어 빨개진 얼굴에 솟아온 소름이 달빛 아래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은 선명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쪽은 혹시 그거 알아……?”

그는 갑자기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여자의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소를 지어 고개를 끄덕이며 ‘알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다. 여자의 얼굴에 솟아 나온 소름이 순간에 사라졌다. 이마에서 한 줄기의 땀방울이 나타나 얼굴에 있었던 눈물과 섞여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몹시 차가웠다.

사건과 관한 자초지종을 얘기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여자는 다시 언덕에 가서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혼자 묘지에서 계속 오가다가 밤늦게 숙소로 돌아갔다. 심지어 기숙사 식당 식사 시간을 놓치곤 했다. 그는 걱정도 되고 후회도 되는데, 도대체 그 어떤 일 때문에 여자에게 상처를 준 것인지 몰랐다. 혹은 이 모든 일들이 여자에게 상처인지도 몰랐다.

다시 양제갑나무 아래 여자의 모습을 보는 날, 그는 언덕을 올라오는 발걸음조차 급해졌다. 여자는 예전같이 그를 “진홍자오(zhao)”라고 불렀다. 그는 의외로 약간 코끝이 찡한 느낌이 들었다. “만약에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면 그쪽은 들어줄 수 있어요?”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 선명한 음영이 보였

다. “그게 무슨 일인가?” 그는 땀을 흘리며 그의 이마의 주름살을 느꼈다. “부탁 해요. 오늘 밤만 내 모든 말을 들어줘요.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해줄 수 있죠?”라고 물었다. 그가 내려놓은 마음이 다시 긴장됐다. 좀 이상하다. 전에 알던 여자답지 않는다. “해줄 수 있죠?”라고 그녀가 다시 물었다. 여자의 말투에 그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애교가 섞여 정말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여자는 갑자기 일어나 샤워를 해야 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먹을 때 그녀는 평소에 묶은 머리를 풀었는데 등 가운데 내려올 정도로 길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여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소에 기숙사에서 큰 가마솥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과장해서 웃기려고 했는데 여자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매번 그런 음식을 먹어요?”

그는 그녀가 마음속에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다. 식사를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여자는 다시 그를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또 다시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고 있다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얼굴을 돌리고 문에 시선을 두지 못했다. 그녀가 나와 욕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줄곧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가 화장대 위에 있는 소철을 뒤지는 척하는데 여자는 침대에 올라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진홍자오, 내 옆에 앉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약속해 줬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등지고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오늘따라 여자는 이상하다. 그녀는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는 이제 가야 돼.”라고 일어났다. 그녀가 뒤에서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이 나한테 약속해 줬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앉아서 용기를 내어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보고 어찌라고 하는 거야?” 캄캄한 방에서 그녀의 눈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몸매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든든하고 두꺼운 손바닥을 잡아당겨 말했다. “나를 만져 줘요.” 그가 거절하기 전에

그의 손을 이불에 끌어들이며 그녀의 어깨에 대 놓았다. “당신이 약속해 줬잖아”라고 말했다.

그의 손은 여자의 가냘픈 어깨를 만지는 순간에 떨렸다. 그는 손을 떼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그는 또 관자놀이가 폴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녀의 어깨부터 내려가 오른팔,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목, 오른손바닥까지 스쳐 갔다. 그녀는 다시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에 얹어 놓았다. 목젓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팔꿈치, 쇄골까지 다시 올라가서 그녀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피부는 매우 섬세하고 침대 이불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다는 것이 확실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두 가슴 사이의 오목한 데에서 쪽 위(胃), 배꼽까지 내려갔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오른쪽 가슴에 갖다 놓았다. 그의 손이 딱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녀의 작은 젖꼭지는 마침 그의 중지와 무명지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그의 손이 무척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점점 흥분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살짝 침대 오른쪽으로 옮겨 그를 끌어올려 옆에 눕혔다. 그의 손이 빠르게 그녀의 몸을 만작거리기 시작했다. 가끔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녀를 아프게 하기도 했다. 그의 손바닥의 주름이 그녀의 젖꼭지를 만질 때 그녀는 달콤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여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음부를 피해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여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그의 손을 그녀의 음부에 갖다 대고 두 다리도 약간 벌렸다.

그는 고개를 흔들리면서 “이러면 안 돼.”라고 소리를 외쳤다. 여자는 “당신은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음부털을 오가면서 그녀의 가장 예민한 곳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요염하고 어여쁜 표정은 아니었고 오히려 구원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튀어 올라 빠르게 그를 꼭 껴안고 목메어 말했다. “나는 내 몸이 이렇게 더러워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녀의 눈물이 셔츠 옷깃에서 그의 피부에 떨어졌다. “어젯밤에 그 백인 병사가 나를 덮쳐 온몸에 입을 댔어요. 심지어... 나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다행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난 지금 좋아요. 내 몸은 또 내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자는 그가 두 팔을 짝 조이고 그녀의 등을 누르는 힘을 느꼈다. 그는 달래준 듯 “오! 내 여자, 내 여자”, 하면서 여자를 짝 안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그의 전에 흥분된 마음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둘이 이렇게 짝 안고 있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 어머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있죠.” 여자가 깨어나자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나한테 아무리 해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는 커튼을 조금 열어 창문과 골목을 통해 아침 햇살이 연구소 동쪽 벽에 쏘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여자에게 물었다. “너는 뭘 기억하고 있니?”

여자는 입을 오므리고 코끝 약간 떨며 눈물을 참아 한참 동안 지나 말했다. “많아요, 아버지가 죽고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부터 가족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느 친척이 밖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집에 들리면 집안 전체를 망칠 것이라고 아버지의 시체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나섰는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밖에서 입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아버지 시체를 업고 있는 아관 삼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죽은 것도 불쌍한데 집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애미를 보지 못 하게 하는 거야? 집안은, 이 모양인데 또 망가질만한 것이 어딴나?’라고 물었어요”. 이모들은 서둘러 할머니를 말렸다. 문밖의 헌병들이 멀리서 다가오고 총검의 빛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났다. 햇살 아래의 길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관 삼촌은 아버지의 시체를 업고 들어오자 급히 숨었고 할머니가 몸을 숙여 아버지 시체를 바라볼 때 갑자기 두 줄기의 코피가 흘러나왔다. 빈소가 세워지자 헌병들이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날카로운 빛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반짝하는 총검의 빛이었어요”. 어느 밤, 집 앞에 헌병이 없을 때 할머니는 여자와 막 걸음만을 할 줄 아는 동생 두 명을 영진으로 불러와서 무릎을 꿇려 영진 앞에서 맹세하라고 시켰다. “앞으로 집안 여자가 절대 외성인(外省人)에게 시집 가면 안 되고 남자는 절대 외성인(外省人) 여자에게 장가가면 안 된다.”라고 여자와 동생은 영진 앞에서 맹세했다. 어머니는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 여자는 갑자기 그를 뚫어 볼 정도로 바라보며 ‘나는 아직도 기억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의 눈을 마주보지 못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입가에 땀을 흘리며 말했다. “얼마나 깊은 원한인가! 너도 원한이 있느냐? 나도 외성인(外省人)이다.” 여자는 고개를 흔들며 그가 그녀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아니야.”라고 짧게 말했다. 여자는 가족들이 아버지의 제삿날을 어느 날짜로 정해야 할지 논의하는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서 아관 삼촌은 다시 그 농가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말렸다. 아관 삼촌을 해칠까 봐, 무고한 농가를 해칠까 봐 두렵다고 했다. 그때는 백 장군이 타이완에 와서 시국이 좀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영전에 옆드려 울부짖으며 가슴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다 “화순아, 꿈에 나타나 말해 줘. 나의 꿈에서 말해 줘.”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어두운 표정으로 “잠을 못 잤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전에 아버지가 할머니 꿈에서 나타나 부엌에서 물을 찾아 마시는 그날을 제삿날로 정했다.

백 장군이 아버지의 빈소에 와서 문상하기 전까지는 영전 앞에 하루종일 썰렁했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제외하고 친구, 동료, 상사, 부하는 모두 오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하루 사이에 전염병 발원지처럼 사람들과 격리되었다. 이 모든 것을 여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백 장군이 다녀간 뒤에 정문 앞 헌병들은 몇 달 동안이나 서 있었다. 이때부터 여자는 자신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다. 화순의 딸이다. 화순의 딸이다. 가끔은 화순의 딸이라고 몰래 물건을 건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가 멀리서부터 피했다.

여자는 몸을 돌려 얼굴을 베개에 박아 영영 울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침대 옆에 앉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여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울지 마.”

여자는 울면서 중얼중얼 말했는데 그는 일의 자초지종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단지 2년 전, 여자는 외성(外省)남자와 만났는데 얼마 되진 않아, 많은 친척 어른들이 함께 집에 모여 한번 호통을 쳤다. “화순의 딸이 어떻게 외성남자한테 시집을 가?” 특히 아관 삼촌은 큰 목소리로 “화순의 딸이 어떻게 외성에 시집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했다. 어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야 연구소에 출근했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 여자는 그에게 “솔직히 말해 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요”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가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래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이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함께 전후 정세를 분석하고 걱정하는데 너의 아버지는 일본 무사의 그런 마인드가 있어. 죽음에 대해 신중하게 보기도 하고 가볍게 보기도 했다.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피를 흘린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다고 하고, 항상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한때 그것을 무덤 앞에 무성한 빨간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말을 다 하지 않았다.

떠날 때 여자에게 그날 오후에 몇 명의 동료들과 회의를 열어 토론해야 할 일이 있어 언덕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원래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더 이상 이렇게 무섭다고 해서 숨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여자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진홍자오(zhao)” 이번에 또 습관대로 권설음으로 발음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자의 발음을 고쳐 주었다. “진홍자오(zao)”

“나는 중국어 잘 못해요.”

“나도 중국어 잘 못해.”

여자는 히히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그는 연구소를 향했다.

그날 밤 타이베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설날이 지났어도 그치지 않았다. 비가 그친 첫날 오후, 여자는 젖은 오솔길 밟고 언덕에 올라갔다. 뜻밖에 아버지의 무덤 앞에 빨간색의 작은 꽃들이 다시 가득 활짝 피고 있었다. 뺨뺨한 무리들이 물웅덩이 옆에 몰려 있었다. 여자는 기쁜 표정으로 양제갑이 번성한 나뭇가지 아래 서서 연구소의 정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문 앞에 언제부터 헌병들이 세명 서 있었는지 몰랐다. 여자가 시계를 보니, 이제 곧 퇴근할 시간이었다. 진홍자오를 데리고 빨간 꽃들을 보러 가려고 기다릴수록 마음이 급해졌다.

진홍자오는 여자 집에서 떠난 그 날 밤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었다. 그 죄명은 반란죄였다. 그런데 여자는 몰랐다.